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6 (1996)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제6호 (1996년)

큰 산일 수록 메아리가 크게 울려 퍼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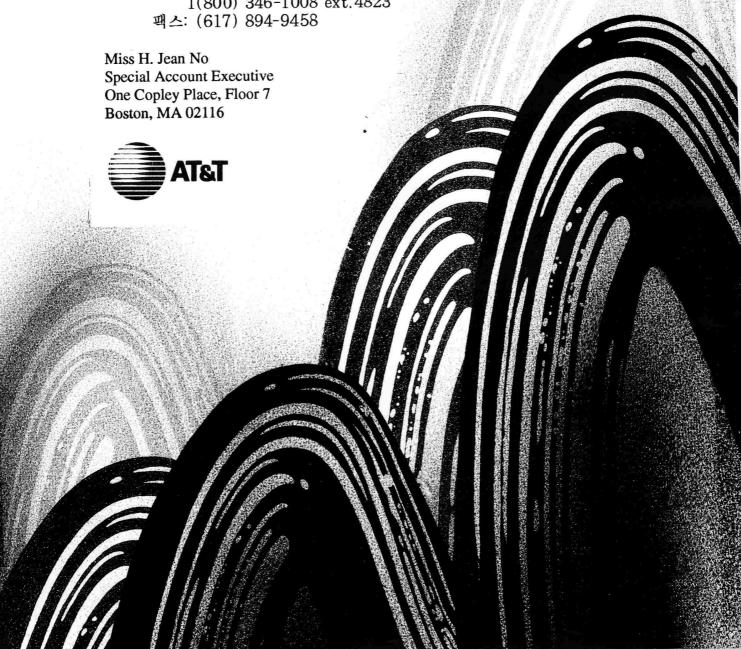
늘 넉넉한 서비스를 드리는 큰 회사, AT&T

큰 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는 듣는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강하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마음이 탁 트이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큰 산의 울림처럼 AT&T는 넉넉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서비스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정용 장거리전화에서부터, 성공비지니스의 생명선으로서 경제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드리는 사업용 장거리전화에 이르기까지 -AT&T는 여러분에게 큰 회사 만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약속합니다.

노 진 전화: (617) 450-4823

1(800) 346-1008 ext. 4823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To these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The results were very encouraging. In the last election, about 70%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the town of Lexington, MA actually voted.

2)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Who Stand for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This year, KACL has endorsed the candidacy of William Clinton and William Weld to the offices of U.S. President and U.S. Senator for Massachusetts, respectively. In the last election, it endorsed Massachusettes Governor William Weld and Senator Edward Kennedy, both of whom were re-elected. In particular, it organized a fundraising party for Gov. Weld in 1994, which raised \$11,000 with the participation of about 150 people.

3) Sponsoring Citizenship Tests and Education

The League has sponsored both the Korean and English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t has published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and obtain citizenship in its Journal, and provided free classes for test preparation.

4)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Americans as well as 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writing articles in local news media.

5)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Minority Organizations

The League has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other Asian-American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6 (1996)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지 제6호 (1996년)

Published By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Tel.: (508) 691-5108

Fax.: (508) 687-8942

October 19, 1996

Publisher Yangkil Kim

Editor Moon So Kim

Editor in Chief Michael M. Kim

Editorial Board Hong Kyun Choi, Yung Hoon Choi, Paul S. Chung, Steve Choi

Kyung Won Park, Bong June Cho, Kenneth S. Han, Song-Kun Kim

발행일 / 1996년 10월 19일

발행인 / 김양길

편집인 / 김문소

편집위원장 / 김명기

면집위원 / 최홍균, 최영훈, 정석호, 최낙철

박경원, 조봉준, 한석훈, 김성군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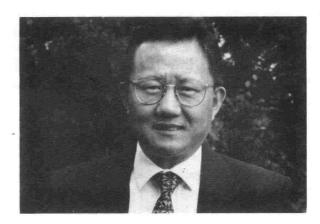
1996년 회지 (제6호)

Page	3.	발간사회장 김양길
		Message from President Yangkil Kim, President
		Congratulatory Message William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6.	
	8.	
	9.	
	10.	
		Congratulatory Message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Congratulatory Message Shin-Il Par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E.
	13.	미국 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우리의 대책 · · · · · · · · · · 이사장 김 문 소 Strategies to counter conservative trends in America Moon So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16.	시민 협회 활동 보고 총무 최 홍 균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1996 Hong Kyun Choi, Secretary
		전국 한미 지도자 연합 대회 참가 소감
	24.	이민법과 웰페어법 개정의 현황과 대책
	28.	반이민 공세,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협 사무국장 홍 정 화 Anti-immigration Policy: You may not be an exception! Chung-Wha Hong, Executive Director, NKASE
	32.	미국 정계에의 참여는 한민족과 미국 사회에의 기여 워싱톤주 하원의원 신호범 Benefits of Kore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Paull H. Shin, past Representative of Washington State
	35.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 바라는 글 고문 박 경 민 Suggestions for KACL Kyung Min Park, Advisor
	40.	2세와 1.5세 (I)고문 백 린 Second and 1.5 Generations: Historical Perspective (Part 1) Rin Paik, Advisor
	45.	참여하고 나누며 베푸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이사 김 한 수 Better Korean society: giving, sharing, and participating Hansoo Kim, Board Member
	46.	발음하기 어려운 뉴잉글런드의 지명
	48.	재정계획에의 조언
	50.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1996년)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1996)
	52,	신문 기사로 보는 시민협회의 활동(1996년)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1996)
	53.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현장
	58.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1996년 10월 19일 현재) List of Officers (As of Oct. 19, 1996)
	61.	재무 보고서
		4. 시민협회를 도와 주신 분들 15. 폴신(신호범)박사 모금 파티 참석자 명단
		20. 시민권 취득 안내 23. 제1회 시민권 시험 신문 기사
		39. 시민협회 가입 안내 45. 광고 감사 및 광고 안내
		47. 마이클 파렐 당선 신문 기사 61. 편집후기

훌륭한선배들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지만 또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영집 초대회장님, 김은 한 2대회장님의 뒤를 이어, 이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고이 싹트게 하며 기른 시민협회를, 이제는 제대로 성장시키고 꽃을 피우게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힘에 겨운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뉴잉글랜드의 한인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민권 취득 교육과 시험을 시행하여 지난 4월에는 한번에 82명의 합격 자를 배출하여 그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 주하원의원에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자 랑스런 우리 젊은 한인 2세인 마이클 파렐씨를 후원하여, 지난 9월의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이 제 단독 후보로 본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어, 뉴잉글랜드에 서는 처음으로 동양계 주하원의원이 탄생될 것으로 보임으 로써, 우리들에게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전환 점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 실톤주 부지사로 출마한 신호범(폴 신)박사의 **후**원금 모금 올 위한 디너 파티도 가졌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클린톤 대통령과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웰 드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결의 등,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더 불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한인의 정치 위상을 높이 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민법 개정과 웰페어법 개정 등으로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는 어렵고 힘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점점 더 심각해져 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만으로도 별 문제없이 지내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직간



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치명적 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해 시민권 취득을 도와 주 는 문제가 현안의 과제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민협회는 인권 옹호 문제에도 관련하여 애쓰고 있으나 협회의 힘이 부족하여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급 사무총장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참여가 필 요하며, 보다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참 여하며 또한 시민협회에 가입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협회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by Hong Kyun Choi

It is honorable, but also burdensome, to succeed good predecessors. After the first president, Dr. Youngjip Kim, and the second president, Dr. Eun Han Kim, I assumed the presidency of the Citizens League, which they sowed and cultivated. I now feel a great responsibility to make the League grow and blossom.

Last April, the Citizens League sponsored citizenship education and written tests for the first time among Korean-American organizations in New England. We are proud that 82 people passed the test, which should make it much easier for them to get citizenship. In addition, the League supported Michael Farrell, a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who ran

as a Democratic candidate for the Rhode Island House of Representatives. He won the primary and will become the first Asian State Representative in New England because he has no opponent in the general election. This is a milestone in Korean-American involvement in New England politics. We have also hosted a fundraising party for Dr. Paull Shin, who ran as a Democratic candidate for the Lieutenant Governorship of Washington State. We have endorsed William Clinton and William Weld for the offices of U. S. President and Massachusetts U. S. Senator, respectively. Along with the voter registration campaign, we are trying to increase the political power of the Korean-American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With the recent passage of welfare reform legislation and the pending immigration law changes, Korean-Americans are facing increasing difficulties. Until now, permanent residents have not been treated much differently from citizens. However, the new welfare law will significantly reduce direct or indirect benefits to non-citizens, especially the elderly. As a result, helping them obtain citizenship is a very urgent task.

power, which can only be achieved by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We encourage you to join the Citizens League and become involved in political processes such as voter registrati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participation in fundraising activities. Your support, participation, and encouragement are greatly appreciated.

Although the League has become more active and visible, there are still a number of hurdles ahead. In order to handle the increasing workload, we recently created the paid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but it will be a challenge to fund the position. In addition, the League has been working hard for the civil rights of a member but has found the effort difficult because of a lack of political power.

In order to protect our rights, we need to increase our

김양길 회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위원이며, 캐톨릭타임즈의 보스톤 지역 매니저이고, Genetics Institute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Yangkil Kim, President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regional manager of Catholic Times, and works for the Genetics Institute as a staff scientist.

			٨	l민협회를 <u>!</u>	도와 주신 등	분들			
희비 납부	자 명단								
김광능	변정자	이강필	이재신	김홍혜	박경민	장정율	현철우	이금주	김희준
이영경	김재룡	민제홍	신미봉	이희규	김혜연	김영곤	김미정	이우조	이영지
조중운	백 린	최선경	안병학	김경순	김원엽	김영희	김성군	권정자	함성기
고중돈	최낙철	장세중	백혜담	정화용	최연일	최송자	권이덕	권영희	최수길
김명칠	정진기	조준호	조한나	이완재	김정희	박기춘	신정수	오진옥	이재선
김홍혜	박경민	장정율	김양길	김진희	김경희	최홍균	황성미	김은한	이혜원
최영훈	이지원	박필수	김명기	김선미	김선영	김갑성	이상구	임나경	최언집
최옥자	윤은상	윤순혜	김영희	정석호	정에스터	장용복	이창주	김정선	조순리
안준모	강길원	강동옥	임영호	임경애	서태환	최원길	채길식	임원준	윤정지
김부석	김순현	이춘화	조의자	오상철	최영애	이민용	이용자	조봉준	고일식
고일석	이문봉	조영희	이문열	이경해	정대철	이광섭	이선옥	이강필	송재목
이동수	이천각	허영자	이강원	홍지복	이정여	박복님	정인옥	소정숙	김종천
김찬숙	김명숙	Ming Dong	(95년	10월 이후의	납부자 명단이	며, 그 이전	의 납부자는	5호에 수록	되어 있음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이강필	김성군	최낙철	안병학	김양길	최흥균	최영훈	박필수	김명기	한복수
박경수	김문소	정석호	김은한	김기자	이민용	조봉준	고일석	김연숙	이문일
이경해	김기석	이현주							
찬조금 납	부자 명단								
이재신	박경민	현철우	김경희	민제홍	김영곤	백 린	이우조	김갑성	정화원
권이덕	최연일	이경해	최수길	안준모	서태환	임원준	김은한	이문봉	이강된
김양길	김문소								

회비, 이사회비, 그리고 찬조금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광고를 게재해 본회의 회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전 임원의 감사를 올립니다.

William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WASHINGTON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Our nation was built on the dreams and deeds of immigrants. People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have made profound and lasting contributions to our society. The abundant gifts of the Korean people and culture have helped make America strong, and each of you can take pride in your efforts to maintain and advance this important legacy. I commend you for working to ensure that our great country continues to live up to the ideals of liberty and equality on which it was founded. Together, we can create a more peaceful, prosperous world for all of our people.

Best wishes for the future.



John H. Chafee, United States Senator, Rhode Island

JOHN H. CHAFEE

United States Senate

CHAIRMAN,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 ON FINANCE SENATE ARMS CONTROL OBSERVER GROUP

Dear Friends: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July 15 requesting a missive for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appreciate hearing from you.

Woodrow Wilson once stated that "The highest and best form of efficiency is the spontaneous cooperation of a free people" (P. 771, Bartlett). Wilson's assertion could not be more accurate when addressing the needs of a democratic n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Guided and inspired by the energy and will of its people, a democratic nation can neither function nor rise to the position of a world power without this uninhibited and freely existing cooperation. It is through this cooperation that the American community is able to draw upon its greatest of attributes, its extraordinary diversity. Unlike any other nation, our country is a medley of all nations, a configuration of every culture from every corner of the globe. The term "American" conjures up an endless array of remarkably unique individuals. Brought together under one common belief, that of democracy and democratic values, the American community is truly a powerful force when it achieves the cooperation of which Woodrow Wilson spoke.

The state of Rhode Island is a perfect example of our society's great diversity. There are approximately 163 ancestries within the Rhode Island population. There are more than 50 native languages spoken by schoolchildren in the Providence School System alone, and 16% of Rhode Island residents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t home. This percentage is well above the national average of 13%. With 102,200 foreign-born immigrants coming from 96 different nations, these immigrants constitute about 10% of Rhode Island's total population. Again, this percentage is well above the national average, giving Rhode Island the eighth highest percentage of foreign-born citizens.

The Korean population in Rhode Island is a wonderful example of a small population with a substantial impact. From this population stem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Rhode Island, the Korean-American Marine Corporation,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Schools. These organizations are truly dedicated to enriching the lives of their members as informed and active citizens

of Rhode Island.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Rhode Island includes members' yearly participation in the Heritage Festival in South County, Rhode Island. It also hosts an annual Christmas party for all Korean families and friends of the community, as well as Victory Over Japan Day, when Korean War Veterans come together to celebrate and remember those lost in battle.

Initially dedicated to educating the Korean population as American citizens, the Society has extended its energies and resources to helping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Leukemia Society of Rhode Island and local and state-wide elections. Currently, it is focusing on greater contributions to community centers and volunteer work in an effort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the gifts of support, opportunity and encouragement that were shared so readily with its own members.

Organizations such as these are truly shining examples of the results of community cooperation, and the virtues of our nation's great diversity. I would like to comme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for their tenacious efforts to unite, educate and integrate Korean-Americans in the many levels of our society's dynamics. I hope to see these efforts grow and meet with continued success.

The responsibility of community involvement rests with its citizens, a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serve as a model of how the United States can benefit from our great diversity.

Again,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Sincerely,

- 7 -

Bob Smith, United States Senator, New Hampshire

BOB SMITH
NEW HAMPSHIRE
1-800-922-2230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903

Dear Friends:

I commend you and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for the fine work you are doing on behalf of our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Hampshire and throughout the region.

You can be very proud of your efforts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participate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and to educate them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We are honored to enjoy the unique heritage and customs of Korea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a three-time visitor to Korea, I appreciate and respect the beauty and traditions of your native land. Your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are certainly commendable.

Again, best wishes to you in your future endeavors. It is an honor to represent you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ith warm regards,

Bob Smith, U.S.S.

John G. Rowland, Governor, Connecticut



JOHN G. ROWLAND
GOVERNOR

STATE OF CONNECTICUT EXECUTIVE CHAMBERS HARTFORD, CONNECTICUT 06106

Dear Friends:

I would like to take the time to congratulate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rica is a melting pot of cultures and through your publication, in its sixth edition, you have helped bring an understanding to this diversity.

The work that you have done in making Korean-Americans politically aware is of great importance. Keeping informed on current issues and how they affect particular groups is necessary to see that all Americans are well represented and protected under the law.

Therefore, I urge you to keep up the hard work and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your government representatives at all levels.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the future of your organization.

Sincerely

John G. Rowland

Governor

William F. Weld, Governor, Massachusett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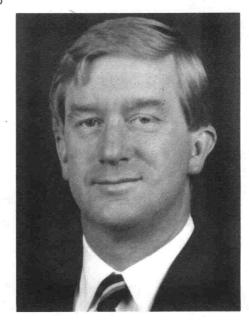
STATE HOUSE • BOSTON 02133

(617) 727-3600



WILLIAM F. WELD GOVERNOR

ARGEO PAUL CELLUCCI LIEUTENANT-GOVERNOR



Dear Friends:

Lieutenant Governor Cellucci and I are pleased to extend best wishes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part of the Weld-Cellucci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promoting diversity in the Commonwealth, we have worked to build a strong environment for business, instituting 15 tax cuts and an array of investment incentives to compan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from around the globe. Moreover, in recognition of the contributions that legal immigrants make to our economy, we have pledged to maintain state benefits to legal immigrants in need, despite recent changes at the federal level. As one of the fastest-growing communities in the Commonwealth, Korean-Americans are well-served by these and other policies.

We applaud the publication of the sixth annual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well as your organization's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civic participation. By encouraging Korean-Americans throughout New England to exercise their rights of citizenship and participate freely in the political process, you are strengthening our democracy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our forebears.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William F. Weld

in Weld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State House Providence, Rhode Island 02903-1196 401-277-2080

LINCOLN ALMOND GOVERNOR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it is a distinct honor to have this opportunity to address the Rhode Island Korean-American community. As an ethnically diverse state, Rhode Island derives much of its strength from these many different cultural communitie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s certainly one of those sources of strength.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has proven itself to be an integral part of Rhode Island's culture.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your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Make an effort to contact your local Senator or Representative and establish a dialogue on the issues that you find important.

Together, through cooperation, pride in our community, and diligent effort, we can help make Rhode Island strong.

Best wishes in your future endeavors.

Sincerely,

Lincoln Almond

Shinil Par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New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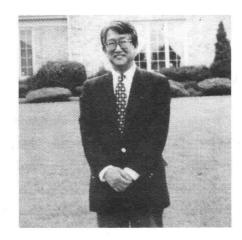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ONE FINANCIAL CENTRE, BOSTON, MA 02111

TEL. (617) 348-3660 . FAX. (617)348-3670

It is my great pleasure to extend my wholehearted congratulations on this six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would also like to send my warmest greetings to the members of KACL, both longtime acquaintances and those I have not yet had the pleasure to meet.

KACL's work toward increasing Korean-Americans'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ystem, as well as their participation in it, plays a vital role in strengthen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ere. KACL encourages Korean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ir communities and to make their collective voice heard, and it gives them the knowledge and the tools to do so.



In particular, this year KACL acquired the authority from Marich Associates in Maryland to administer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test here in New England. I fully commend KACL for their advocacy toward facilitating the citizenship process for Korean-Americans.

Of course, even though KACL has accomplished a great deal in these six years, KACL members should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a cohesiv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at sense, I would suggest that KACL develop more positive and concrete programs which address the benefits of the Korean community in New England.

To that end, I applaud the role KACL has played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ere.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n abiding concern for ethnic Koreans' welfare, I am gratified by KACL's efforts to help Koreans successfully assimilate to American life.

Congratulations once again, and I wish you the best of success in the coming year.

Sincerely,

Park Shinil

Strategies to counter conservative trends in America

Moon So Kim, Chairperson of the Board

지난 94년 상원과 하원이 모두 보수적인 공화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감에 따라, 60년대 John F. Kennedy 대통령과 Martin Luther King 목사 등으로 시작된 민권 운동과 소수 민족의 권한 확대에 역행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된 웰페어 법과 이민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따른 불이익은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웰페어 삭감의 많은 부분을 이민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민법 개정안에서는 합법 이민자의 친척 초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보수화 경향은 어느 한 정당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미국 전체의 경제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부강했던 경제대국 미국이, 80년대부터 시작 된 경제 침체와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 적자로 힘들어졌습니 다. 대기업은 기구 축소로 중견 인력들의 감원과 조기 퇴직 의 찬바람이 이는가 하면, 정부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웰페어 등 정부 복지 예산을 삭감하였고, 많은 가정의 부부 가 맞벌이를 하여야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상황과 인종간의 갈등이 92년 4월 29일 L.A. 경찰의 흑인 Rodney King 구타사건으로 폭발하였고, 가까이 있던 L.A. 한인 상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이 부족했던 한인 사회는 정부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상가의 파괴가 마치 한인들의 잘못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컸고 단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로, 가까이 있던 일본 타운은 경찰들의 강력한 보호로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미국내 한민족은 숫자 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도 정치적 참여는 극히 부족한 형편 입니다. 우리들의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치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1. 투표권 행사

정치력의 기본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있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얼 마나 투표했는가에 대한 통계가 금방 나와 정치인들에게 알 려집니다.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선 거에 참여합시다. 유권자 등록은 거주지 시청 또는 타운 홀 에 가시거나 우편으로 한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들은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웰페어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 한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민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기로 작정한 이상, 빨리 시민권을 얻고 유권자 등록을 하여 투표합시다.

2. 정치 모금 활동 참여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에서는 94년 1월에 김창준 연방하원의원 재선 모금 위원회(위원장 남궁연) 주관으로 14,000여달러를, 또 94년 9월에는 시민협회(당시 회장 김은한) 주관으로 현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William Weld의 재선을 위해 11,000여달러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14일에는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Michael Farrell의 모금 파티에 시민협회에서 5명이 참여하였고(김양길, 최홍균, 이경해, 고일석, 김문소), 8월 30일에는 위상톤주 부주지사로 출마한 Paull H. Shin 박사의후원파티를시민협회에서 주관하여 3,600달러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정치는 돈입니다. 정치는 투표권입니다. 후원금을 모아 주고 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정치인들은 우리 한민족의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는 몇몇 시민협회 임원들만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있을 후원 파티나 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후원 파티에 참여하여 능력대로 후원금 을 내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시민협회는 한민족의 입장을 지지하는 후보를 찾아내어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96년도 선거에는 대통령에 Clinton 현대통령을,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에 Weld 현주지사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3. 시민협회 기금 마련

지난 6년간 시민협회는 한민족 시민의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회장단을 비롯한 이사, 고문 여러분이 어떤 때는 각자의 직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회생적인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6번의 총회와 6번의 회지를 발간하였으며, 후원 모금 활동, 시민권 교육 및 시험 실시, 유권자 등록 추진, 홍보, 타 소수 민족 단체와의 유대 강화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협회의 활동을 몇몇 임원들의 봉사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6월 8일의 이사회에서 유급 사무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능력있고 협회 일을 지난 6년 동안 출판위원장으로 열심히 해온 김명기씨를 첫 사무총장에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여러 사업을 계속해서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보다 훨씬 많은 운영 자금의 확

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권 교육과 시험 실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의 확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사회 단체의 보조와 시민협회 자체의 모금 활동이 있겠으나, 한인 시민권자 모두의 회원 가입과 회비, 찬조비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인교회가 많은 한인들의 신앙 생활의 중심인 것처럼, 이제 시민협회가 한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익과 안녕의 방파제가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 상설 기관으로 자리잡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한인들의 회비와 찬조 금을 환영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클 수 있는 힘은 튼튼한 Endowment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민협회, 함께 이끌어 나가는 시민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 by Hong Kyun Choi

Since the Republican Party captured the majority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in 1994,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reverse the gains in civil and minority rights which began accruing in the sixties under President John F. Kennedy and Rev. Martin Luther King, Jr. As can be seen in the welfare law that President Clinton signed recently, as well as the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the changes have been especially hard on immigrants. For example, the bulk of the reduction in welfare benefits falls on immigrants, and the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to bring family members into the country.

To be fair, the trend towards conservatism is not the sole responsibility of one political party but is directly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America. Between 1950 and 1970, the U. S. was the economic superpower, and virtually all countries in the world received some kind of assistance from it. However, its economy weakened in the eighties due to recession and an astronomical budget deficit. The government cut social outlays to reduce the budget deficit, and corporations reduced the workforce by layoffs and early retirement. To keep the same living standard, many of the households had to rely on incomes from both spouses.

Against a background of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and racial tension, the beating of Rodney King by white policemen and the subsequent not-guilty verdict triggered the L. A. riots in 1992. Many of the Korean stores nearby were totally destroyed.

Even though they were the principal victims, they could not get adequate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Some news media even blamed Korean merchants for the damage. However, the damages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d been united and wielded political power. For example, Little Tokyo did not suffer much damage, even though it was also nearby, because of better protection by police.

Since the late sixtie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has grown substantially not only numerically, but also economically and socially. However, our political involvement leaves much to be desired. To increase our political influence, we must get involved in every aspect of the political process.

1. Exercise of Voting Rights

The source of a group's political power is the number of votes it casts. Politicians have no consideration for people who do not vote. For those who are U. S. citizens, please register to vote and cast your vote. You need to register only once by visiting the city hall or the town house, or by filling out and sending the mail-in registration form. Permanent residents are not eligible to vote. One silver lining in the recent welfare reform law is that it encourages many Koreans to obtain citizenship. Since you have decided to live in America, it is advantageous to become a U. S. citizen as soon as possible.

2. Participation in Fundraising Eve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England has hosted a few political fundraising events: in January 1994, \$14,000 was raised for U. S. Representative Jay Kim; in September 1994, the Citizens League organized a fundraising party for Massachusetts Governor William Weld and raised \$11,000; on August 14, 1996, five members of the Citizens League attended the fundraising party for Michael Farrell, who is running for the Rhode Island State Representative; on August 30, 1996, the Citizens League organized a party for Dr. Paull H. Shin, who was running for the Lieutenant Governorship of Washington State, and raised \$3,600.

Politics requires money and votes. Only by donating money, participating in political campaigns, and casting votes can we capture the ears of politicians. It is no longer enough for the officers of the Citizens League to participate in fundraising events. All of us need to participate, donate according to our ability, and tell politicians what we want. The Citizens League will work hard to identify politicians who stand for our interests. In this year's election, the Citizens League has endorsed William Clinton and William Weld for the offices of U. S. President and U. S. Senator of Massachusetts, respectively.

3. Funds for the League

For the past six years, many of the officers, board members, and advisors have worked hard to increase the visibility of Korean-Americans. We have hosted six annual meetings where we have invited keynote speakers of national prominence, published six issues of our Journal, hosted fundraising parties, managed citizenship education and tests, improved public relations, and strengthened relationship with other minority organizations.

Now, I think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has grown too large to be managed by volunteers alone. That's why we created the paid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and appointed

Michael M. Kim, who has served the League with dedication for the past six years as the chair of the Publications Committee. In order to carry out all the tasks listed above, we need a far larger budget than before. In particular, management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and tests requires a large staff and a large amount of money. Although we can apply for assistance to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as well as other foundations, we first ask all of you to support us by paying membership dues and contributions, if possible.

Just as the Korean churches serve as the center for Korean-American spiritual life, I think it is time for the Citizens League to serve as a permanent organization to protect the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s of Korean-Americans. Non-profit organizations can grow with the help of a strong endowment. We welcome your membership dues and contributions. Let us make the Citizens League an organization shared and guided by all of us.

김문소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회장,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재미 한인 수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보스톤 한인 교회의 장로이며 Tewksbury Animal Hospital의 원장입니다.

Dr. Moon So Kim, Chairperson,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th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chairperson of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and president of the Korean Veterinary Society of America

He is now an elder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nd the Director of Tewksbury Animal Hospital. .

워싱톤주 부지사 후보 폴신(신호범)박사의 기금 모금 파티에 참여하신 분들

8									
백 린	최영훈	김현문	최홍균	김양길	김성환	이현주	이천각	고일석	김성군
				F 52	0015	이민용	김기석	김문소	남궁연
서해수	원덕수	조명진	김영기	이강필	윤영훈	이단중			
최회봉	안병학	안병권	조성구	박필수	김성인	조봉준	정석호	윤영훈	정세용
				최원길	정수일	안준모/인	ો રિક્રો	임상묵/한	이경
엄정식	노명호	이형재	백봉현	의전설	る十五	UT-1/ L	0 0	0 0 7/ E	1.0
Jessica Lee		보스톤 총	영사관						

Activities of the Citizens League During 1996

Hong Kyun Choi, Secretary

1996년은 시민협회의 바쁜 한 해였다. 미국의 보수화경향으로 웰페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런 분들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영어 및 한글 시민권 필기 시험을 주관하였다. 한인이 금년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워싱톤주의 부지사로 출마한 Paull Shin 써와 로드아일랜드의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Michael Farrell씨를 위한 기금 모금을 하였다. 또한 금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Clinton 현 대통령을,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에는 Weld 현 주지사를지지하기로 하였다.

1996년도의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제5차 총회

제5차 정기 총회가 1995년 10월 14일(토) 보스톤 소망 교회(Waltham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의 초청 연사로는 커네티켓 대학 정치학과의 김일평 교수와 미주 한인 봉사 단체 협의회의 홍정화씨를 모셨다.

김일평 교수는 「웰페어 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웰페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추산되는 영주권자 노인들이 한달에 600달러 정도 받아오던 현금과 무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교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웰페어 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토의와 투쟁을하였으나 영주권자의 혜택에 관해서는 아무 토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이민자들의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모두 투표를 하고 정치인에게 기부금을 냄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정화씨는 워싱톤 포스트에 낸「반이민법 저지」전면 광고를 추진한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반이민 추세에 대한 대책」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반이민 여론 형성은 '이민자는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다', '이민자가 웰페어 타러 이민온다' 등 대부분 틀린 선입관에서 비롯하는데, 그 이유는 불경기, 중산층의 직업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분노,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희생양을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웰페어 개정안 중 시민이되면 차별하지 말 것과 영주권자에 대한 비현금 혜택 유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반이민 추세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한 인식의 공유와 서명, 로비, 광고등 조직 활동, 타 소수 민족과의 연대 등을 들었다.

2. 시민협회 회지 제5호 발간

김명기 출판위원장의 수고로 1995년 10월에 2,300부 의 회지를 발간하였다. 제4호에 이어 한글을 모르는 2세나



미국인을 위해 한글과 영어를 같이 사용하였다.

3. 회의

95년 11월 10일 박필수 이사댁에서, 96년 3월 9일 김 양길 회장댁에서, 6월 8일 김기자 이사댁에서, 8월 10일 조봉준 이사댁에서 등 모두 네번의 이사회를 가졌다. 또한 상임 이사, 임원 연석 회의를 96년 1월 16일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갖고 시민권 시험을 Marich Associates와 계약하여 주관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7월 5일, 9월 13일, 10월 3일에는 김문소 이사장댁에서 총회와 회지 준비에 관한논의를 하였다.

4. 시민권 시험 주관

김양길 희장이 New York YMCA의 민홍식 총무와 접 촉하여. Marich Associates와 Site계약을 통해 시민권 필 기 시험을 영어 뿐 아니라 한글로 주관하는 것을 추진하였 다. 1월 16일 상임 이사,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의 추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고 3월 9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쳤다. 이의 준비를 위해 김양길 회장, 최홍균 총무, 정용 훈 이사, 김계숙씨가 2월 17일 뉴욕으로 가서 Marich Associates가 주관하는 Site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왔 다. 시험을 위한 사전 교육을 북부 보스톤 감리교회, 캠브리 지 연합 장로교회, 성요한 감리교회에서 장영준씨가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여 여러 주동안 실시하였다. 4월 13일 Marich가 주관하는 교육에 68명이 참가하였으며, 4월 20 일의 시험에는 105명의 신청자 중 82명이 합격하였다. 시 민권 교육과 시험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한 김양길 회장, 교육을 담당한 장영준, 김영호, 김계숙, 장인숙, 이재숙, 이 귀옥, 김한수 제씨, 그리고 시험, 사진, 지문, N-400 작성 을 위해 수고한 김명기, 최홍균, 최영훈, 함성기, 김성군, 김 문소, 김은한, 박필수 제씨께 감사드린다. 또한 장소를 제공

해 준 북부 보스톤 감리교회와 수고해 주신 이 교회의 김원 엽 장로와 박석만 장로, 그리고 안준모 노인회장께 깊은 감 사를 드린다.

5. 유권자 등록 추진

최낙철 유권자 등록 추진위원장의 수고로 우편 등록 용지를 각 교회와 식품점 등에 배부하였고, 황진이 공연과 교회 연합 예배에 참여하여 유권자 등록을 권장하였다.

6. 한인 후보 지원

금년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 중 워싱톤주의 부지사로 출마하는 Paull Shin씨를 위해 8월 30일 기금 모금을 주관하였는데, 약 50명이 참석하여 3,600달러를 모금하였다. 8월 14일 로드아일랜드의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는 Michael Farrell씨를 위한 기금 모금에 여러 명이 참석하였다. Farrell씨는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본 선거에서는 반대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된다. Paull Shin씨는 예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하였다.

7. 후보 지지

금년 대통령 후보에 Clinton 현대통령, 매사추세츠 상 원의원에 Weld 현 주지사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클린톤 대통령은 재임중 소수 인종과 이민자들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는데, 현 공화당의 웰페어 개혁안에서 이민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두번비토한바 있다. 최근 선거에 따른 정치적 압력에 의해 웰페어 법을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영주권자에 관한 혜택 삭감을 제거하는 법안을 선거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Clinton 대통령은 의회의 이민법 개정안에서, 정부 혜택을 1년 이상 받을 경우 추방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가족 초청을 위한 재정 능력을 빈곤 수준의 200%에서 125%로 줄이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화당 후보인 Dole 전 상원의원은 이민자나 소수 민족의 권익 옹호에 보다 소극적이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후보로, 많은 한인들이 민주당의 정강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Kerry 상원의원의 지지가 제기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Weld씨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첫째, Affirmative Action과 이민자의 권익에 대해 Kerry 의원의 정견보다도 Weld 주지사의 정견이 민주당쪽에 더 가깝다. Weld 주지사는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공언하였으며, 90년 취임초 Asian-American Commission을 설치하고 부인인 Susan Weld여사를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의권의 항상에 기여했으며, 작년부터 이민자들 중에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였거나 본토인으로서 이민자들을 위해 일한 사람을 매년 수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연방 정부가 이 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경우 주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 Kerry 의원은 웰페어 개정안에 찬 성하였다. 둘째, Weld 주지사는 한인들을 포함해 많은 아시 아인들을 주정부 또는 위원회에 임명하였다. 한인들 중에서 최승훈씨는 Massachusetts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Radioactive Safety Board Director로 임명되었으며, 김기자씨는 Massachusetts Jobs Council에 Cellucci 부지사와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희규씨는 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Information Technology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셋째, 우리 한인 업체의 주종을 이루는 세탁인 협희는 주지 사의 협조 지시에 따라 주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8. 홍보

Washington-Boston Today, Korean Voice, 한국일보, 중앙 일보를 통해 시민협회의 여러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9. 비영리 단체 등록

최홍균 총무와 이현주 재무의 수고로 국세청에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되었다.

10. 다른 단체에의 활동 참여

4월 27일 Christian Economic Coalition의 첫 만찬행사에 협회 이사들이 참여했다. 5월 5일 Asian-American Unity Dinner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시민협회의 추천으로 김기자 이사가 지역 사회 봉사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10월 5일에는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의 Shelter 운영 자금을 위한 Silk Road 모금 행사에 참여하였다.

11. 이사 보강

이사회는 이경해, 김연숙, 함성기, 김성인, 박경원, 한 석훈, 노명호, 이동익, 윤익중, 진동호 제씨를 새 이사로 총 회에 추천한다.

-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 선출을 요하는 임원 또는 이사
- ① 사임, 전출, 퇴임 이사: 한복수, 김영하, 신영묵, 허장균, 원덕수, 이민용, 김선영, 이문열, 송남수, 서대식
- ② 임기 만료후 재임 이사: 최낙철, 정수일, 김기자
- ③ 신임 이사: 이경해, 김연숙, 함성기, 김성인, 박경원, 한석훈, 노명호, 이동익, 윤익중, 진동호
- ④ 이사회 추천 회장단: 회장 김양길, 부회장 최홍균, 부 회장 조봉준

1996 has been a busy year for the League. A more conservative American political climate allowed the legislation of welfare reform, causing more Koreans to desire American citizenship. The League sponsored written citizenship tests both in English and Korean on April 20 at the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e have organized fundraising events for Korean Americans who ran for public office in this year's elections: Michael Farrell, who is running for the office of State Representative in Rhode Island; and Paull Shin, who ran for the Lieutenant Governorship of Washington State. In addition, we have endorsed William Clinton for the office of U. S. President and William Weld for the Massachusetts U. S. Senatorial seat. Activities during 1996 have been as follows.

(1) 5th Annual Meeting

The annual meeting was held at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located in Waltham, Massachusetts, on October 14, 1995. Dr. Il-Pyong Kim,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and Ms. Chung-Hwa Hong, who works at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were the keynote speakers.

In a speech entitled "Welfare Reform," Professor Kim asserted that the recently signed welfare reform bill w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businesses by taking away benefits to legal residents, estimated to be between 25,000 and 30,000. He also noted that there was very little debate about these benefit cuts in Congress, reflecting the weak political power of immigrants. In order to increase our political influence, he emphasized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by casting votes and donating money to politicians.

Ms. Hong was one of the key persons who organized the full-page advertisement in the Washington Post opposing the anti-immigration legislation. In a speech entitled "Measures to Counter Anti-Immigrant Trends," she concluded that anti-immigrant opinions are formed by false impressions, such as, "most foreigners are illegal immigrants," and "they come to collect welfare." The root causes of these false impressions are recession, job insecurity, and anger towards the government. Some politicians use immigrants as scapegoats for these problems. To counter the trend, she suggested the short-term strategy of removing certain items in the welfare bill,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even after they become

citizens. For long-term strategies, she listed: the sharing of understanding through analysis of the anti-immigrant trend; organizational activities such as petitions, lobbying and advertisement; and forming alliances with other minority organizations.

(2) Publication of the 4th Journal

In October 1995, 2,300 copies of the Journal were published. As in the 4th Journal, both Korean and English were used for the second generation and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language. Dedicated efforts by Michael M. Kim, chairperson of the Publication Committee, are sincerely appreciated.

(3) Meetings

Four board meetings were held: on November 11, 1995, March 9, 1996, June 8, and August 10 at the homes of Phil S. Park, Yangkil Kim, Kija Kim, and Bong June Cho, respectively. Five joint meetings of the Standing and Executive Committees were held: on January 16 at the North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to discuss on whether to sign a site contract with Marich Associates for the citizenship education and tests; on July 5, September 13, and October 3 at Moon So Kim's home to prepare for the Annual Meeting and the Journal.

(4) Citizenship Tests

Yangkil Kim, then the acting President, contacted Joe Min,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program at the YMCA in Flushing, NY, for citizenship tests in the Korean language. The YMCA was already conducting citizenship tests under the supervision of Marich Associates, a consulting firm with a license from the INS. At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and Executive Committees, held on January 16, 1996, it was recommended that we sign a site contract with Marich Associates for citizenship tests, which was subsequently approved at the Board meeting on March 9. On February 17, Yangkil Kim, Yoang-Hoon Jung, Kye-Sook Kim, and Hong Kyun Choi went to the YMCA in Flushing to learn how to manage a test site. Free preliminary citizenship education was offered for a few weeks during February and March at the North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ambridge United Presbyterian Church, and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using teaching materials prepared by Young Joon Chang. On April 13, 68 people participated in the formal citizenship education offered by Marich. On April 20, 82 out of 105 passed the test.

The tes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dedicated service of Yangkil Kim. We sincerely appreciate efforts of following individuals: Young Joon Chang, Rev. Young-Ho Kim, Kye-Sook Kim, Mrs. M. Chung, Mrs. D. Lee, Mrs. I. Yoon, and Han Soo Kim for the preliminary education; Michael M. Kim, Yung Hoon Choi, Steve Ham, Song-Kun Kim, Moon So Kim, Eun Han Kim, Phil S. Park, and Hong Kyun Choi for their work during the test dates, filling out N-400 forms, photography, and fingerprinting. We als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North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letting us use their building, and Joon Mo Ahn, Won-Yup Kim, and Suk-Man Park of the church for their efforts.

(5) Voter Registration Drive

Thanks to the efforts of Steve Choi, chair of the Registration and Campaign Committee, mail-in registration forms were distributed through churches and grocery stores. In addition, voter registration was recommended and registration forms were distributed at the Hwangjini show (a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song) on September 19 and at the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on September 20-22, where annual joint services of the New England churches were held.

(6) Support of Korean-American Candidates

On August 30, 1996, the Citizens League organized a party for Dr. Paull H. Shin, who ran for the Lieutenant Governorship of Washington State. About 50 people attended the event and \$3,600 was raised. On August 14, 1996, five members of the Citizens League attended the fundraising party for Michael Farrell, who is running for the office of Rhode Island State Representative. Michael Farrell won the primary and will become the first Asian State Representative in New England because he has no opponent in the general election. Paull Shin was defeated by a very narrow margin.

(7) Endorsement of Candidates

The League has endorsed William Clinton and William Weld for the U. S. Presidency and the office of U. S. Senator of Massachusetts, respectively.

President Clinton has supported minorities and immigrants during his presidency. He opposed the anti-immigrant items in the welfare reform legislation, which he vetoed twice. As a result of election-year politics, he recently signed the welfare reform bill into law despite some anti-immigrant clauses. However, he is expected to introduce a bill

to reverse these after he is re-elected. In addition, President Clinton played a vital role in removing from the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the clauses that might have expelled immigrants who receive government benefits for more than a year as well as reducing the financial requirement for inviting family members to 125% of the poverty level from 200%. In contrast, former Senator Dole, who is the Republican candidate for President, has been more passive in promoting the rights of minorities and immigrants.

As for Massachusetts Senatorial race, John Kerry was considered because most Korean-Americans support the platform of the Democratic Party. However, the League decided to endorse William Weld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Weld's positions on affirmative action and immigrant rights are closer to the Party's than Kerry's. Weld declared his support for the affirmative action; appointed his wife, Dr. Susan Weld, to the chair of the Massachusetts Asian-American commission, which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wards enhancing the rights of Asian-Americans; and established a new award to honor immigrants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American society as well as Americans who have substantially helped immigrants. He also suggested that the state should make up for the benefit cuts to legal immigrants resulting from the welfare reform. In contrast, Kerry voted for the welfare reform legislation. Second, Governor Weld appointed many Asian-Americans, including Koreans to State positions and committees. Among Koreans, Seung-Hoon Choi was appointed Director of the Radioactive Safety Board, Massachusetts Emergency Management Agency; Kija Kim to the co-chair of the Massachusetts Jobs Council, along with Lieutenant Governor Paul Cellucci; Hikyu Lee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Information Technology. Third, the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where the bulk of Korean business belongs, has received substantial support from the State as a result of Weld's intervention.

(8) Public Relations

The League's activities were publicized in local Korean news media such as the Washington-Boston Today, the Korean Voice, the Korea Central Daily, and the Korea Times.

(9) Registr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Thanks to efforts of Hyon C. Yi and Hong Kyun Choi, the League has been registered as a nonprofit organization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10) Participation in Other Asian-American Activities

Several Board members attended the first annual celebration banquet of the Christian Economic Coalition. On May 6, seventeen members of the League participated in the 10th Asian-American Unity Dinner Gala. With the League's recommendation, Ms. Kija Kim, a Board member of the League, won the individual community service award. On October 5, several members of the League participated in the Silk Road, a fundraising event of the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which sponsors a shelter for battered women.

(11) New Board Members

The following persons were recommended by the Board

to be appointed as new Board members: Kay Dong, Yon Kim Corkum, Steve Ham, Song-In Kim, Kyung-Won Park, Kenny Kahn, Myung-Ho Rowe, Dong-Ik Lee, Ik-Jong Yoon, Dong-Ho Chin

시민협회의 총무, 최 홍균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Dr. HongKyun Choi, Secretary,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the Ph.D.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 now works for the Lincoln Laborat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시민권 취득 안내

이민법과 웰페어법의 개정으로 비시민권자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취득해서 생존권을 확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시민권 취득 안내는 지난 회지 5호에 5페이지에 걸쳐 최홍균 총무가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신청 자격과 필기 시험 내용을 아래와 같이다시 소개합니다.

- 1. 신청 자격
- (1)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 (2) 시민권 인터뷰 당시,
- ① 영주권 받은지 5년 초과
- ② 미국 시민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경우는 3년
- ③ 3년 군대 복무했을 경우
- *서류 전형이 대개 6개월이 걸리므로 시민권 서류 신청은 이보다 6개월 전에 할 수 있다.
- (3) 거주 조건
- ① 최소한 30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18개월 이상
- ② 신청 이민국 관할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③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시: 다시 돌아온 후부터 5년
- ④ 불법 체류자로 사면 또는 다른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거주일이 계산
- (4) 18세 미만: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신청하거나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음.
- (5) 경범 전과자인 경우: 두번까지는 이민국 재량으로 시

민권 취득 가능.

- 2. 필기 시험
- (1) 영어 면제 조건
- ① 50세 이상 영주권 취득 20년 된 분
- ② 55세 이상 영주권 취득 15년 된 분
- ③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 20년 된 분은 역사, 정부 시험을 10가지 질문 중에서만본다.
- (2) 필기 시험
- ① 역사와 정부에 관한 4지 선다형 필기 시험, 간단한 영 어 문장을 듣고 받아쓰기.
- ② 합격하면 면접시 역사, 정부, 읽기, 쓰기는 다시 시험 하지 않는다. 면접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이 훨 씬 유리하다.
- ③ 시기: 영주권받고 4년 이후, 시민권 신청 1년전 이후.
- ④ 시험 내용: 20항의 4지 선다형 질문과 칸단한 영어의 받아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다른 질문으로 구성 된 A 또는 B형의 시험을 모두 치러서 이중 한 시험에 서 12개 이상 맞으면 합격.

시민협회는 계속적으로 시민권 시험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96년에는 11월 29일(금)과 30일(토)에 시민권 취득 코스 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14일(토)에 한글과 영어 시험을 실시합니다. 97년에는 3월 14일(금)과 15일(토)에 코스 교육과 97년 3월 29일(토)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연간 계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처인 Marich Associates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순연될 수 있으니, 그때 그때의 신문지상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민협회의 임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National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

Yangkil Kim, President

전국 한미 지도자 연합 대회(제3회 전국 한미 정치인 연합 대회)가 지난 96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하와 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었다. 대회가 있기 2주 전에야 김 은한 전회장님으로부터 이런 대회가 있다는 전갈을 받고 서 둘러 대회의 성격을 파악해 보니, 참가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가 설립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초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았으며, 비록 시민협회에 처음부터 참여해 왔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이었고 소극적인 참여만을 해 오던 중, 뜻밖에도 한 달여전부터 회장대행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지 고심하던 차였는데, 대회의 명칭부터가 우선 호감을 주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통해 미국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배운다면 우리 시민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부부동반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한미 지도자 연합 대회는 미국내 각 지역과 국제 적인 정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미국 속의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과제를 직시하며 정치적인 관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92년 4월에 발생했던 LA 폭동 사건은 미국내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서, 이를 계기로 정치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수의 정치인들이 모여 전국 한미 정치인 연합 대회를 준비하였고, 1994년 1월 8일 로스앤젤리스에서 제1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대회에는 3백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가해 미국내한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대화의 장을 펼쳤었다. 이 역사적인 대회는 정치적인 분야에서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의 위치와 의식 수준을 달리 보게 만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1차 대회의 성공적인 결과에 이은 제2차 대회는 1995년 1월 6일에서 7일까지 워싱톤주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다. 2차 대회에서는 미국내 한인 여성들이 현 시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타 소수민족 단체들과의 협조 체제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로스앤젤리스 폭동 사건 이후의 진척 상황 및 2세들과의 세대차로 인한 대화 결핍의 타개 등등의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제3차 대회부터는 전국 한미 정치인 연합 대회의 명칭 을 전국 한미 지도자 연합 대회로 바꾸고, 주제를 Unity, Leadership and Empowerment라는 기치로 한인들의 미 국 이민 역사가 92년으로 가장 오래된 하와이에서 개최키 로 하였다. 하와이주의 Deputy Attorny General로 있는 Ms. Martha Chongmee Kim과 전직 하와이주 주의회 부회장을 지낸 Dr. Jackie 은해 Young을 공동의장으로, 하와이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였다. 이 3차 대회에서는 제1차 및 2차 대회에서 정립되었던 현안들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계 지도자들까지 포함시켜, 미국내 한인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한인들의 정치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정표를 마련코자 하였다.

첫날의 제1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을 통해본 재미한인 교포들의 미국 사회 적응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특히 누구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이에는 한국인을 부모로 하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한국인인가, 그렇다면 부모중 한 사람만한국인이고 한국말을 잘할 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닌가라는 자문속에서,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한방울이라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자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한국계 미국인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받아들여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 기반과, 자녀들이 훌륭히 자랄 수 있도록 높은 교육열을 보여 대체적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는 2세들이 중가하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1세들이 사회에 기 여하는 정도는 동류끼리만 모일 뿐, 주류에 적응하면서 정 치에 참여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하다고 진단하였다.

제2 토론회의 주제는 「어떤 형태의 권한과 지위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가?(What kind of Empowerment?)」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한인들의 권한과지위 향상을 달성시킬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또한 정치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참여가 필요한가를 토론하였다. 미주 지역에는 4,000여개의 한인 교회와 600여개의한글학교를 포함해서 2만개 이상의 각종 사회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이민 1세들만으로주도된 이들 사회 단체들은 친목 위주의 모임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으며, 각 단체들간의 상호 협력 관계는 미약하거나 전무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민 1세들의 기존 단체 에, 언어 및 사회 습관에 익숙한 재능있는 2세들을 적극 참 여케 함으로써, 활동 범위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점 차 넓혀나가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튿날의 제3 토론회 주제는 「한인 사회의 통합(Unity within Korean American Community)」였다. 1992년의 LA폭동, 호놀룰루 국제시장 한인 상인들의 소요 사건, 그리고 뉴욕 등지에서 일어난 흑인들과의 대립 사건 등등을 검토해 보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한인 사회내에 훌륭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몇명만 더 있었어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던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기존 단체들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소리로 모으고 좀더 활력있게 뭉쳐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토의하였다

마지막 토론회의 주제는 「방향 제시(Where do we go from here?)」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시된 문젯점들을 잘 파악해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

들간의 끊임없는 정보 교환, 연대 의식 확립, 보다 적극적으로 2세들을 1세들과 합류케 함으로써 조직면에서 활성화하며, 유권자 등록에 전부 참여토록하고 투표함으로써 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결되었다.

대회 기간중 미리 준비해 간 우리 시민 협회의 목적과 지난 5년간 시행해 온 사업들을 소개하는 유인물, 또한 창 간호부터 5호까지의 협회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 어 다행이었고, 우리가 지향하는 일들이 대체로 이 대회에 서 제시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에 기쁨을 느꼈으며 더욱 열심히 시민협회와 교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귀로에 올랐다.

English Translation by Hong Kyun Choi

The Third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 was held in Honolulu, Hawaii on January 5-6, 1996. Its purpose was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s among Korean-American politicians and leaders to analyze problems Korean-Americans face and to increase their political awareness. The Conference was established after the L. A. riots in 1992 by a number of concerned political leaders.

The first meeting was held in L. A. on January 8, 1994, hosted by the L. A. Korean-American Alliance. With more than 300 participant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urgency of increasing Korean-American political power and on possible solutions for problem areas. This historic meeting was a positive step towards improving the political status and awareness of Korean-Americans.

The second meeting was in Seattle, Washington on January 6-7, 1995. There were broad discussions on topics such as the problems Korean-American women face, the importance of forming alliances with other minority communities, developments after the L. A. riots,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e third meeting was held in Hawaii,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in America. The name of the conference was changed to the National Conference on Korean-American Leaders. In this meeting, issues raised at the first and second meetings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meeting tried to establish a milestone of greater political power by portraying the unity among Korean-Americans with the inclusion of leaders in business, community, and education. It

was hosted by the Hawaii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Ms. Martha Kim, deputy Attorney General of Hawaii, and Dr. Jackie Young, former assistant Speaker of the House of Hawaii, were co-chairpersons.

In the first session, the discussion topic was, "Adaptation To and Integration of Korean-Americans In American Society During the Past 10 Years." There were heated discussions, especially on the question, "Who are Korean-Americans?" Should Korean-American have Korean parents and be able to speak Korean? Then, if only one parent is Korean, or if one cannot speak Korean, is one not a Korean-American? In the end, there was a consensus that if one has a little bit of Korean blood and is proud to be Korean-American, one should be accepted as a Korean-America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members of the first generation interact mainly within the first generation community and that their participation in mainstream America and political activities is very weak, even though their living standards have improved substantially in the past ten years and their children have attended good colleges.

The theme of the second session was, "What Kind of Empowerment?" Topics discussed were, "Who should work to improve the rights and social status of Korean-Americans, and how?", "Who should participat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nd how?", and "How much participation is required?". It was estimated that there are more than 20,000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approximately 4,000 Korean churches and 600 Korean schools. In general, the activities of

these organizations, dominated by the first generation, are limited to social function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f any, is very weak. We agreed that these organizations should expand thei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ctivities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which is fluent in English and familiar with American culture.

In the third session, held the next day, the topic was, "Unity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fter reviewing the 1992 L. A. riots, the activity of Korean merchants in the Honolulu International Market, and conflicts between Korean merchants and black customers in New York and elsewhere, we agreed that these incidents could have been avoided if we had strong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By exchanging information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Korean-American organizations should form a common voice and show more unity.

The topic of the last session was, "Where Do We Go From Here?" To improve the status of Korean-Americans, it was agreed that existing organizations should constantly exchange information, enhance solidarity among themselves, and increase particip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We also need to increase our political power by encouraging voter registration and participation.

During the meeting, I distributed the brochure that describes the goals and achievements of the Citizens League, as well as all five issues of our Journal. I was very happy to see that the directions suggested at the meeting were almost completely in line with our current activities. I felt the need to work harder for the Citizens League an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New England and returned home hoping for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itizens League.

제1회 시민권시험 한국어 및 영어로 80%합격

할머니등 82명 당당히 합격

차기시험일자는 6월29일 예정 많은 교포들 응시해야

4월20일 북부보스톤교회(엔 도버 소재)에서 시민협회 주 최 55세이상 영주권 15년 50 세이상 영주권 20년이상 어른 둘에게 시민권시험이 오전 10 시 한국어 오후 1시와 3시 영 어시험이 치뤄졌다. 총105명 의 신청자중 82명이 합격하였 으며 제회 한국어 시민귀 시 형은 뉴-잉글랜드에서는 처음 시작되어 이번 기회에 시민권 시험 해당자중 3개월미만 까 지는 혜택이 주어졌으나 다음 시험 예정일인 6월29일에는 만기가 되어야만 시험을 불수 있다. 20일 오전 시험장에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시민협회 회원들이 등록을 받았으며 최 음 계획했던 200명에서 미달 된 105명이긴 하지만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며 하관계자는 다음시험 예정일이 6월29일이 유통적이긴 하지만 더 많은 어른들과 응시자들이 시험에



96년 4월 25일자 와싱톤-보스톤 투데이 신문에 게제된 기사

민협회 김양길 회장은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뒤 에서 소리없이 도와주신 이사 장님이하 임원 및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면율 통해 도와주신 보스톤 신문사 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고 전했다. 20일에 합격되신 분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합격통지를 받고 사본 을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 낸다.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 의 요령은 "N-400 Form" (I) N-400폼에 맞추어 완전하 게 작성하며 (2) 지문채취 (3) 영주권사진 2장(사진뒷면에 영주권번호와 성명기재) (4) 합격통지서사본 (5) 개인제크 로 \$95.00을 보내는 웃 LN.S. 이다. 인터뷰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I) 호적등본(영문번 역) 공중반은 것 (2) 이혼용 한 경우는 이혼판결문(영문) (3) 형사사건 연류된 경우(판 결서류) (4) 합격통지서윈본 (5) 이외에 이민국에서 지시 하는 서류등이다. 이외에 20 인 합격자중 시민헊회류 통해 시 지문채취와 사진찬영으르 원하시는 분은 6월8일(토) 오 전부터-오후까지 서류를 지참 하여 북부보스톤 교회로 서류 일체를 지참하면 시민협회에 서 서류와 봉투 기재등을 최 종 점검하여 준다. 다유 시민 권시험은 6월29일 예정이나 인원이 안될경우는 9월21일이 나 9월28일 예정이다. 지세한 내용은 보스톤 신문사 를 통하여 지면에 안내할 예 장이다.

용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Immigration Law and Welfare Reform Law

96년 8월 22일 클린톤 대통령이 웰페어 개혁안에 서명하고 또한 9월 30일 개정 이민법이 확정됨으로 인 해, 미주 한인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과 소요를 겪고 있다.

개정된 이민법과 웰페어법에 대비한 한인 사회의 대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간략히 그 법안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영향을 분석하며, 가능한 대책 방안을 이에 살펴보고자 한다.

- 1. 9월 30일 확정된 개정이민법의 주요 내용
- ① 공공혜택: 불법체류자는 일체의 모든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다.
- ②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신분을 확인 해야하며 이민국은 단속 직원을 증원한다.
- ③ 밀입국 예방: 국경 순찰대원을 2배로 늘리며 밀입국 자는 최고 10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 ④ 허위서류: 신분 관련 서류의 사기 및 불법 사용은 최고 15년 형에 처한다.
- ⑤ 불법체류자 추방: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일주일내 예 비재판을 거쳐 추방하며, 비이민비자 규정을 위반한 학 생은 5년간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다.
- ⑥ 합법이민초청: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극 빈 수준의 125% 이상(95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 우 연수입이 15,45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를 처벌하겠으며, 앞으로 이민국은 이의 단속을 극히 강화하겠고, 직장을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혜택을 완전히 제거해 불법체류자는 발 불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밀입국자는 중벌에 처한다. 불법체류자는 체포하는대로 즉시 추방하고 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된다. 만일 합법화를위해 이민 서류를 위조하면 중형에 처하고, 유학생의단속을 강화하며, 만일 유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면 거의 다시는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족 초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수입이 적으면 아예 초청을 못하며 피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재정 보증의 책임을 지게하는데, 만일 피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여하한 웰페어 혜택을 받으면 초청자가 이를 모두 환불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친지를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 외에는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장을 잃기만해도 가족 초청 권한이 박탈당하는 셈이다. 심지어 5개 지역 이민국에서는 초청을 위해 보

중 예치금을 내야한다.

2. 개정된 웰페어 법의 주요 내용

- ① 시민권자: 저소득 가정 보조금(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AFDC 또는 TANF)을 받을 시는 2년 이내에 직장을 가져야 하며, 평생의 수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없다. 여타 제도도 수혜 기간이나 대상을 축소한다.
- ②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본인이나 결혼한 배우자가 약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사회보장국에 있거나 명예 제대한 미군속 또는 난민이 아니면, 향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푸드 스탬프의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이 혜택을 받아 온 사람은 늦어도 97년 8월에는 전면 끊긴다. 또한 97년 1월 1일부터는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학자금 융자, 저임금자 주택보조 및 건강 및 영양 보조, 육아 보조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단,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계속 혜택이 유지되고, 응급 진료나 예방주사, 긴급 상황시에한해 웰페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③ 신규 이민자: 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는, 입국 후 5년간은 일체의 연방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고,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 이상 일한 기록 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3. 기타: 그동안 연방 정부가 관할하던 웰페어 프로그램을 대폭 주정부의 관할로 이양한다.

3. 개정법의 배경과 성격

예산 삭감의 필요성과 반이민, 반소수 민족의 사회 감정, 그리고 이민자의 정치력 빈곤을 이용해, 문제의해결과 원인을 "인종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다."일하지 않고는 먹지말라",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고 모든 이민자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여하라", "복지 정책의 지역화"로 요약된다. 세금은 내되 혜택은 없으며 싫으면 돌아가라는, 이민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인권법"이다.

위의 이민법은 아태이민자들의 66% 이상이 이민1 세라는 점을 볼때, 재정보증인인 초청자의 책임 범위 확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초청하려고 마음먹기 조 차 힘들게 만들고 있어, 아태 이민자들에게 중점적으로 불리하다. 초청을 위한 수입 요구 조건을 수치로 보면, 94년에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던 사람의 3분의 1이 이 제는 초청할 수 없다는 의미로, 최소한 3분의 1을 자른 다는 뜻이다. 나아가 부양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수입 이 많아도 선뜻 초청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소수 민족의 "가족 이산법"이다.

웰페어법은 전체 수혜자의 4%에 불과한 이민자, 즉 영주권자로부터 전체 웰페어 예산의 44%를 삭감한다(참고로 수혜를 받고 있는 미국의 극빈층은 전체 인구의 13.8%인 3,640만명이다). 즉,실지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6%의 수혜자는 시민권자라서 이들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대신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투표권이 없어 전혀 힘이 없는 영주권자로부터 완전히 빼앗아 44%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신분에 따른 "반평등법"이자 "인종 차별법"이다. 참고로 소수 민족중 가장 많은 수혜자는 흑인이며 다음이 히스패닉으로서 특히 멕시코계가 가장 많고한국인은 동양계 중에서도 4번째 정도밖엔 되지 않는다.

4. 여타 반이민법의 추세와 전망

추진되고 있는 다른 인종 차별적 반이민법으로는 먼저 영어 공용화 법안이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나 영어권이 아닌 소수 민족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몇개의 지역에서 법안이 계속적으로 상정되고 있는데, 며칠 전인 10월 4일에는 뉴저지주에서도 법안이 제기되었다. 이 법이 본격화되면일제 시대때 한국에서 일본어만 쓰게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영어를 못하면 고용도 할 수 없게되고 각종 상행위, 문화 활동, 한민족 교육마저 뿌리째흔들릴 수 있다.

또한 11월에 투표에 붙여질 가주민컨법안(CCRI)은 소수 민족과 여성들의 사회 진출 및 균등 기회를 철 폐한다는 것으로, 타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균등기회, 즉 어퍼머티브 액션을 철폐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취업, 학교 진학, 사업 기회 등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부 시민권 대행 업자의 불법 행위를 조사중에 있는데, 이는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미 영어를 잘해야만 시민권을 준다는 시민권 시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권 취득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 다.

또한 영주권자가 자녀를 미국에서 낳아도 시민권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반이민법안도 추진되고 있으며, 불법 채류자 자녀의 공립 교육 자격 박탈을 위한 학교 등록 계한의 법안도 상정되고 있다. 영주권자가 범죄시에는 추방하며, 아예 이민 문호를 대폭 삭감하야 한다는 움직임도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각주와 지방 단

체에서 여하한 반이민법안이 속속 제정될 지 예측 불허이다.사회 전반에 깔려 확산되고 있는 소수 민족 차별, 강력한 동화 정책 요구 움직임이 법제화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이민법들은 92년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이 L.A. 사태화하면서 촉발 내지는 화살이 반이민으로 향하고, 경제 악화에 맞물리면서 94년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안 187로 이어진 이래, 불과 3년도 안되는 사이에 연 방법으로 귀결된 맥락으로써, 촉박하긴 했으나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민법 개정이나 웰페어 법 개정은 결코 단발성의 움직임으로 인한 개정이아니다. 반이민 정서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를 극히우려하며, 민감히 주시하여야 한다.

5. 시행 현황

이민법은 전면 실시가 시작되고 있으며,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의 유학생, 웰페어 수령 경력자들이 재입국 시 곤욕을 치르는 경우와, 추방이 늘고 있다. 뉴욕의 경 우, 이민국 사무소에 의한 불법체류자 체포와 고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가 9월달부터 이미 각각 거의 2배로 중 가했다.

웰페어법의 경우, 이미 연방사회복지국은 8월 22 일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신규 SSI의 지급을 중단했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8월 27일부터 전면 중단 지시 를 내렸었고, 뉴욕, 뉴저지, 커넷티컷주는 9월 21일부터 푸드스탬프 제공을 중단키로 했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개정법 적용 유예 결정(10/2/96)으로, 푸드 스탬프만 내년 4월 1일까지 지속된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현재 시행 세칙을 마련중이다.

6. 개정법의 향후 추이

복지 프로그램의 권한을 주정부에게 이양함으로써, 각주마다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각각 다른 시행 세칙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클린톤 대통령은 재선되면 "입법안 부분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당은 수정법안을 제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재임이 돼도 쉽지는 않으며 정치 상황의 변화는 예측불허라서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소수계 단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위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나 이의 결과를 예측키는 너무 불확실하다.

다만, 만일 도울후보가 당선된다면 더욱 악화되고 극심해질 것만은 확실하다.

7. 웰페어법의 심각성

이 웰페어법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현재 65세 이

상의 한인 노인들이 받아 오던 생계보조금(SSI)와 푸 드스탬프 혜택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65세 한인 노인중 90%가 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는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다른 추정으로는 150만 미주 동포 (또다른 추정은 125만)중에서 이 혜택을 받아 오던 노인은 약 6%라고 한다. 그리고 이중 30%가시민권자이며 70%가 영주권자로서 약 63,000명이 문제가되는 인구이다. 이중 50%는 다른 수입이 가능하든지 또는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그나마라도 불가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약 3만명의 한인 노인들이 순수히 이 혜택만으로 생계를 꾸려왔다는 추정이 나오는데,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노부부가 둘이서 푸드스탬프까지 도합 7백달러 내지 8백달러의 생계 보조를 받으면서 5백불짜리아파트에서 살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내년이면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굶어야 하는 한인 노인이 미국내 자그만치 30,000명이 생긴다는 계산이 된다.

뉴욕에서만 아사 직전이 될 노인이 3,200명이라고 하며(중앙일보 10/2/96), 위의 계산을 보스톤 인근의 15,000명 인구에 적용하면 320명이 된다. 이는 1인당 최저 생계비를 년간 5천불로만 잡아도, 보스톤 인근의 한인 사회의 부담으로 매년 최소한 160만불의 재원이 필요해진다는 계산이다.

8. 한인 사회와 본국에 미치는 영향

웰페어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대한 악영향을 한인 사회에 미칠 것이다. 당사자의 경제적 고통과 부양 가 족이 받는 압박이 강해, 한인 가정의 규범이 흔들리거 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한인 노 인의 홈리스가 증가하고 자살마저 증가할 것이다. 노 인들의 좌절감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큰 과제이다. 또한 초청이 힘들어지는데다, 현재의 영주권자나 특히 신규 이민자가 스스로 일을 해서 건강 보험과 생계를 유지하 지 않는 한, 응급외에는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가 없게 되어, 이민자가 급감할 것이다, 이미 신규 이민 자는 급감하고 있다.

88올림픽 이후 증가했다가 주춤해진 역이민이 다시 증가할 것인데, 전과는 달리 특히 생계가 어려운 극 빈층이나 노인층의 역이민이 증가해, 본국 사회에까지 심각한 여파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은 체포되면 즉시 추방되며, 조건을 위반한 유학생들과 웰페어법을 위반한 영주권자의 입국 거부 등이 늘어 파장은 점점 거세어 질 것이다.

9. 동포 사업의 타격과 피해

① 한인 상대 범죄: 범죄 중가, 특히 생계가 더욱 막연

해진 히스패닉계의 범죄 및 한인 대상의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 실상 그동안 일반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살 인 및 강도는 증가 추세였는데, 더 심해질 것이다.

② 한인 업체: 타 민족에 비해 비율적으로 메디케어 환자의 의존도가 높은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사, 한의사 및 약국의 타격이, 한인 집중 거주 지역에서는 극심할 것이다. 노인들은 한식만 먹어왔기 때문에 한국식품점의 타격 또한 클 것이며, 한인 노인 상대의 단체 관광업계도 흔들릴 것이다. 또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상대, 특히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의 각종 한인 자영업체의 손실은 아주 심각할 것이다.

③ 창업: 특히 많은 수의 동포가 자본이 적게 들며 노동 집약적인 소규모 가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노동자의 고용 금지 등으로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것이다. 또한 가족 초청이 어려워져, 주로 가족 중심의 저자본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하려하는 동포들의신규 개업이 힘들어지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생계 기반을 조성하기가 더욱 곤란해졌다.

10. 한인 노인 및 사회의 동향

대도시의 한인 노인 봉사 단체에는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건강 및 언어의 장벽이 있어 극히 초보적인 일들을 찾고 있으며 요구하는 보수의 선도 내려가고 있으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뉴욕 노인 회관의 경우,2,250명 회원 중 12%는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중 80%가 영주권자이고 강제 퇴거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 입주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간신히 살고 있는데, 웰페어가 끊기면 죽는 일 밖에 없지"라거나 또,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둘중 하나"라고 한다.

LA 총영사관의 발표(10/2/96)에 따르면, 3/4분기에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 포기 신고가 전년 대비 51%가 급증했다고 한다. 시민권 취득 신청자가 지역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뉴욕 한인 봉사실의 경우, 8월한달 동안의 시민권 신청이 900명으로 작년 한해 전체와 맞먹는다고 한다.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11. 한인 사회의 문제점

시카고에서 8월 26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는 수천명의 대의원이 응집했지만, 동양인은 162명 뿐이었고 한인은 한명도 없었다. 이것이 소수 민족 내지 한인 정치 및 힘의 현주소이다.

유권자 등록을 대도시의 한인 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계몽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월초 현재까지도 실적은 부진하다. 1.5세나 2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도외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부분의 열기가 시들

단기성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필요해서 사람들이 시 민권은 신청하지만 투표는 저조할 것이다. 인식이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인 밀집 지역의 대다수의 한인 단체는 천목 중심이었고, 단체장들이 한인의 권익 확보보다는 개인 명예를 우선으로 하여 오히려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잦았고, 각종의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데는 전무하다시피 소홀했다. 또한 기존 단체의 모국 지향적인 행사 치중은 오히려 동포의 주류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었다는 논문도 있다(유덕순박사, 10/7/96 중앙일보).

12. 대책 방안

위의 개정 이민법과 웰페어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모두가 빨리 시민권자가 되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을 적극 지원하여 신속히 합법적인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아직도 어떤 혜택이 어떻게 가능한 지를 몰라서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혜택을 찾아내서 수혜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무 능력이 있는 한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노인 아파트 등의 쉘터를 마련해야 하며, 공동 작업장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의사회는 건강 진단 봉사, 종교 단체는 비상 구호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모든 추세는, 소수 민족이 권리를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뭉쳐서 대처하며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생존권 확보적인 차원에서, 각종의 한인단체들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펼쳐나가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내 기득권층에 의한 "정치"라는 형식에 대한 대응 조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치"라는 형식을 통해 극히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인 사회는 기존의 친목과 친교 중심의 단체 활동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정치 활동을할 수 있도록 선회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전문적인단체를 기능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폭중하는 시민권 취득을 유권자 등록과 투표로 유도하고, 이를 정부의 정책 입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치력을 발휘하겠끔 합쳐야 한다.

13. 실질적 대책 방안; 시민협회

위에 명시한 모든 문젯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말보다 적절한 조처를 위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능

력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귀결된다.

시민협회는 이미 6년전에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대책 방안을 세웠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책 방안은 모두 시민협회의 헌장 "제4조: 사업"에 완벽히 요약되어 설정되어 있다. 최선의 방책의 총집결이다. 이 시민협회의 헌장을 모든 한인들이 읽기를 권한다.

또한 시민협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경주해 왔다. 그 증거는 지난 5호까지의 회지 어느 곳, 이 6호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분명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고 부족하나마 실제적인 기록과 성과가 남아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협회의 공정하고 당당한 목적은 헌장의 "제3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시민협회는 철저히 헌장을 준수하는 한인 모두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다.

다만 해야 할 일은 폭증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의 수입으로는 완전한역부족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한인 사회와 모든 가능한 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할 때, 한가지 한가지,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14. 결언

끝으로, 얼마 전,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에게 100여통이 넘는 입회원서를 반송봉투와 함께 보냈고 그중 단 몇통이 10달러의 회비와 함께 돌아왔었다. 김양길 회장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 봐요, 일을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새벽 4시까지 (시민협회의) 일을 하다가 종일 또 병원에서 일하고 밤 12시에 또 이렇게 전화합니다"라며 조금은 지친듯 껄껄 웃는 김문소 이사장, 조용하고 냉정하게 가장 어렵고 귀찮고 오래 걸리는 일만 도 맡아하는 최홍균 총무, 그 분들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일을 같이 해보니 재미있는 것도 알게된다. 김양길 회장은 낮에 직장으로 출근하는게 아니라 시민협회 사 무실로 출근한다. 김문소 이사장은 집으로 퇴근하지 않 고 시민협회 사무실로 그때야 출근한다. 최홍균 총무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때 비로소 시민협회 사무실로 들 어오다

그래서 시민협회의 사무실은 스물네시간 불이 켜져 있다. Anti-immigration Policy: You may not be an exception!

Chung-Wha Hong,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얼마전, 동포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두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뉴저지주 팰리사이드 파크의 전직 시의원 부인인 클뢰아 코바씨가 자기 집앞에 주차된 차를 수차례 긁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과정에서 "코리안 소유의 차량인 줄 알고 그랬다"고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것이다. 또 하나는 뉴욕 플러싱의 줄리아 해리슨 시의원이 뉴욕타임 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들이 미국에 오는 것은 이민이 아니라 침략이며, 알수 없는 글자로 가득찬 간판들로 인해여기가 미국인지 아시아인지 모르겠다"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동포 사회는 발칵 뒤집혀졌다. 동포들을 우습게 본다고, 본때를 보이자고 성토를 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어째서 그들은 무모하리만큼 대답하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일까? 그 냥 단순하게, 미국에는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갈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이민자 들의 생활 기반을 허무는 반이민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마 구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에 편승한 반이민 감정이 사회에 만연되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들, 시의원의 부인 이고 시의원인 인사의 발언이 현재 미국 백인 중산층의 정 서와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소름이 끼치도록 끔찍한 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 다면, 지난 80년대에도 이민자들은 미국 땅에 살고 있었는 데 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반이민자, 인종 차별적 인 행동과 발언들이 끔찍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기업들은 합병, 규모 축소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고 기술 집약적인 컴퓨터나 정보통신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력들이 불필요해지면서 실업률은 급속히 늘어났고, 실업의 심리적 압박감, 사회적 범죄율의 증가 등이 사회적 현상으로 뒤따라 오게 되었다. 이에 미국인들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음을 반성 또는 시인하지 않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책략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 "이민자들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단순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같은 기만정책은 지난 94년말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87의 찬반투표로 본격화된 뒤, 곧이어 여러 반이민자 정책들이 주차원에서 연방차원으로, 주민발의안에서 연방법으로 확대, 악화되면서 반이민 공세의 회

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반 이민공세의 형태는 기존 법과 제도를 고치거나, 이 민자들에게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법의 개악은 크게 웰페어 개 정안(Welfare Reform Bill), 이민법안(Immigration Bill), 영어전용법안(English Only)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말 클린톤 대통령이 웰페어 개정안에 서명해, 지난 60여년간 지속된 웰페어 제도는 수혜 대상자에서 이민자들 을 배제하는 법적 차별을 제도화 했으며, 나머지 2개 법안 은 현재 연방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민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 감정을 표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시아 태평양 법률회의(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의 「반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범죄 개요」보고서에 따르면, 반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458건 일어났는데, 이는 매일 평균 1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0년대초,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입으로 인해 미국 공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백인 남성들이, 중국계 미국인 노동자 빈센트 친을 야구 방망이로 몰매를 가해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아시안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분노해서 그를 죽였다는 것이었다.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곧 또 일어날 것만 같은 사회 분위기가 요즈음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반이민 법안과 살벌한사회 분위기보다더무서운 것은 소수 민족 이민자 사회를 분화, 해체시키려는 동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소수 민족 이민자 사회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과 삶의 방식을 기반으로 미국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동화 정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겨레의 뿌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여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게될 것이다.

반이민공세는 동포 사회에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웰페어 개정안 통과는 약 4만여명의 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동포 이민자들이 지급받는 웰페어 액수, 연간 7천만달러가 없어지게 되고, 이는 동포 사회 전체 경제를 침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흑인이나

라티노 커뮤니티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도 웰페어 개정안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들과 이민의 목을 죄는 이민 법안과, 영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영어전용 법안이 웰페어 개정안 만큼이나 이민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영어전용법안의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한다는 조항이들어있어, 시민권 획득 절차를 현재보다 무척 까다롭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동포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이민 공세에 직면한 코리안 커뮤니티의 반응은 「첫째, 나는 시민권자니까 상관없다.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 「둘째, 투표권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강화하자」, 「셋째,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동포 대중들의 힘을 끌어 모으는 대중 운동을 벌여나가 이를 바탕으로 동포 사회의 정치력을 강화하자」는 등의 크게 3가지로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는 인식에 젊은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권 취득을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권을 손에 쥐면 잠시만은 안전할 지 모르지만 이는 안일한 개인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유색 인종 시민권자로서 반이민 공세의 거친 파도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이민법 제정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에서 영주권자, 그리고 이민온 시민권자까지 그 손길을 뻗어 왔던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주권자 차별 뒤에 따라올 결과는 분명 시민권자 차별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빈센트 친은 미국대생 시민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이민 공세의 충격은 가장 심하게 곤두박질쳐 왔던 것이다.

현재 동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정치력 강화의 문제이다. 정치력 강화 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선출 또는 임명직 관리들이 되어 제도 정치권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며, 또한가지 방법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대중들의 힘을 끌어모아대중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현재 동포 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치력 강화는 주로 전자에 속하며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에 주력하고 어느 한 개인이 정계에 진출하면 그것이 동포

사회의 정치력을 신장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고위 지위에 올라 동포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기, 철새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동포의 권익 옹호를 외치며, 정치 후원금을 거둬 가 자 신들의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 해 왔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 웰페어 개정안 찬반 투표에, 동포 사회의 자랑(?)으로 여겼던 유일한 동포 연방 하원의 원이, 정작 동포 사회의 이익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표를 던지는 것도 똑똑히 보았다.

과연 장기적인 동포 사회의 올바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민권 취득,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등 제도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동포 사회 단결을 기반으로 소수 민족과 함께 대중적 운동을 펼쳐 나가는 일이다. 한 예로,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에서는 올해이민자들의 권리 보장을 이행하라는 편지, 팩스 보내기 운동을 펼쳐 약 2주일만에 약 1만7천여통의 서명 용지를 모아클린톤, 고어 대통령 선거 대책 본부에 전달했다. 이 결과,지난 8월말 민주당 정강정책에 "합법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이 포함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동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한데 모아 공동 대처해 나간다면 한사람의 연방의원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동포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펼치는 팩스, 편지 보내기 운동, 전화 걸기, 시위 등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소수 민족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지금은 동포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분노하고 성 토하는 차원을 한 단계 넘어,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이다. 우리가 내딛는 한발 한발에 동포 사회의 멋진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 니, 90년대 반이민 공세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무엇을 하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미리 내다 보고 살아 가자.

English Translation by Kyung Won Park

Recently there were two events that drew the attent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first involved the wife of a former city councilman of Palisades Park, NJ, who was arrested for repeatedly scratching cars parked in front of her house; upon her arrest, she said, "I did it only because I thought the car belonged to Koreans." In the second event, while interviewing with the New York TImes, Ms. Julia Harrison, a city councilwoman of Flushing, NYC, made a discriminatory remark that "For Asians to come to the U. S. is not immigration, but invasion. All the signs written in

undecipherable languages make me wonder if I am in the U. S. or elsewhere." Such comments turne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upside down. The community demonstrated against such openly discriminatory and irresponsible comments and rallied for improvement in mutual understanding.

Such events as above make one wonder how it was possible for supposedly educated people to make such absurd and openly discriminatory comments at all. Just to accept that discrimination is a fact of life in the U. S. and that such events as above are very much in the realm of possibilities is not enough. Such events have occurred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anti-immigration sentiments in the society in general and movements to legislate immigration policies unfavorable to new immigrants. The comments of an ex-city councilman's wife and a current city councilwoman may actually reflect the general sentiments and thoughts of the white American middle class. This is a scary thought.

Immigration is nothing new to the U. S. There have been many, many, immigrants, but no systematic anti-immigration movements in the 1980's. Why the sudden turn-around in the 90's? Why is there such an abrupt increase in anti-immigration and racially discriminatory comments and actions in the 90's?

1990's saw a decline in the U. S. economy. Many large companies have merged, down-sized, and/or moved their factories to third world countries. There has been a concentration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computers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s systems. Traditional labor force became superfluous and many people were laid off. The rising unemployment rate was accompanied by a rising crime rate. Many Americans began to blame government policies for economic decline. However, the politicians did not acknowledge a failure of their economic policies. Rather they redirected the blame to the immigrants with a simple claim, "The immigrants are taking away your jobs." Such a scapegoat policy surfaced with Proposition 187 of California in 1984 and have uncontrollably exploded with various anti-immigration policies and laws from the state to the federal level and from state propositions to the federal laws.

Anti-immigration policies have taken the form of either modific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r creation of a

social milieu hostile and unfavorable to the immigrants. Modification of existing laws are exemplified by the Welfare Reform Law, the new Immigration Bill, and a bill to legislate "English Only." The Welfare Reform Law, signed by President Clinton in late August 1996, legitimized exclusion of immigrants from federal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The other two bills are being reviewed in the Congress at the moment.

Anti-immigration sentiments are growing more and more openly hostile and serious. According to a report on anti-Asian and anti-Pacific Islander crime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 there were 458 crimes (in the previous year) motivated by racial hatred against the Asians, averaging more than one a day. In the early 80's, several white men, driven by the belief that imported Japanese cars led to their unemployment from American car factories, beat a Chinese American, Vincent Chin, with baseball bats, ultimately claiming his life. They tried to justify their murder with their indignation that "Asians took away our jobs." The current social sentiments may not be far from the sentiments of these unemployed auto manufacture workers.

Even worse than anti-immigration legislation or hostile social milieu is an attempt to disassemble minority communities and assimilate them into the main stream white society. Minority communities have always maintained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society,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ir own unique cultures and customs. However, assimilation policies would rather deny our children their roots and heritage, deny them their ancestors' language(s) (Korean, for us), and force them to grow up simply as "Americans" and not hyphenated Americans (Korean-Americans, e.g.).

Anti-immigration policies have already influence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greatly and their influences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 Welfare Reform Law is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about 40,000 elderly Koreans and places an undue burden on their children to support them. In California, about 70 million dollars that Korean welfare recipients used to receive are about to evaporate, with dire consequences on the welfare and economy of the whole Korean community. In addition, income generated in dealings with the black and Latino communities is expected to decrease substantially.

The new Immigration Bill that will severely limit immigration and the bill to legislate "English Only" may affect the immigrant communities as hard as the Welfare Reform Law. A provision in the "English Only" bill would require that citizenship interviews must be conducted in English and make it difficult for immigrants not fluent in English to obtain citizenship. All immigrant communities,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suffer when these bills are legislated.

On the face of the anti-immigration movement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responding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is the attitude typified by the comment, "I am already a citizen. The new laws don't affect me." or "I will just become a citizen and I will be safe." Second, some people say, "Let us form voting blocs and fortify our political influences." Thirdly, "to try to prevent the anti-immigration bills from being legislated, let us unite the efforts and resources of the community and strengthen our political voice and clout."

Led by the belief that citizenship will take care of all problems, many Koreans, from the young to the old, are making utmost efforts to obtain citizenship. To become a citizen may make one feel safe for a while; however, such a belief is misguided and too selfish. It is a big miscalculation to think that as a colored citizen, one can sail through the angry waves of anti-immigration sentiments. History demonstrates that anti-immigration laws, though they may start with illegal immigrants, will soon encompass the legal permanent residents, then even naturalized citizens. Laws that discriminate against the permanent residents will soon be followed by laws that discriminate against colored citizens. The aforementioned Vincent Chin was an American citizen born in the U. S. Despite that, he had to take the brunt of anti-immigration attack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fac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fortification of their political influences. Fortification of the political influences takes on two forms. One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elected officials and widen the scope of influences of Korean American politicians within the established political system; the other is to unite the resources of each regional community and to partake in mass movements. Most of the current discussion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to do with the former method-voter registration, voter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Korean American candidates.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mobilize

Korean American votes and to support Korean Americans in their candidacy for high offices. However, all too often, the candidate who cries out for protection of immigrants' rights and garners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election year turns out to be only after his own personal gain, once he is elected. For instance, last August, at the time of the votes on the Welfare Reform Bill, the lone Korean American Representative in the Congress voted against the interests and futur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n, what will really serve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addition to voter registration and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Korean American candidates, I believe that our community needs to combine resources with other minority communities in a unified mass movement. For exampl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ducted a campaign to send letters and faxes for protection of immigrants' rights this year, gathered about 17,000 signatures in two weeks, and sent them to the Clinton-Gore Campaign Headquarters. As a result, the Democratic convention platform included a clause promising that "the rights of all legal immigrants will be protected." When many peopl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n combine their strengths and resources for a united cause, they will be much more forceful and in fluential that a single Congressman. I sincerely hope and urge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will continue to be responsive and cooperative to the mass movements of the pro-immigration organizations, such as sending letters and faxes, making phone calls, and participating in demonstration marches.

It is no longer enough to be just angry with racially discriminatory comments and actions. We have to tak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our status in the society. On each step we take hinges the futur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Decades from now, when our grandchildren ask us, "Grandfather, grandmother, wh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were riding high in the 1990's, what did you do?", are we prepared to answer positively and proudly?

Benefits of Kore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Paull H. Shin, Ph.D., past Representative of Washington State

우리 한민족의 미국 이민 역사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하였으나 한국 동란이 시작된 1950년도 이전에는 극히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25사변을 계기로 당시 종군한 미국 군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쟁 고아,미국 가정에의 양자, 또한 유학생 등 미국에로의 이민이 부쩍 늘기 시작하여 1970년도에는 그 정점에 달하였고,이리하여 1990년도 현재는 무려 150여만명의 교포들이 미국에이주하여 살고 있다.미국에로의 본격적인 우리 이민 역사가 반세기에 가깝다고 하여도,아직 한인의 대부분이 이민 1세들이며이들은 그간 특별히 성공할 계기가 별로 없었다. 갓 이민와서 경제적인 기반을 닦기에, 자녀들의 교육에, 또일상 생활에 바쁜 일정은 이민 생활의 미래를 계획적으로다루어 볼 여유나 기회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게 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가까워왔으며 우리 이민 사회에 도 1.5세와 2세들이 적지 않게 출현하고 있고 또 시민권자의 수도 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세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유태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유태인들도 오래전에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자신들의 직업이나 사업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녀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 2세를 위하여 희생하다시피 노력하는 데 바빴다. 그러나 그들이 기반을 이루고 다소 안정되면서부터는 미래를 더 심각히 생각하였으며, 자녀들의 진출 방향도 의학이나 법조계 등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미국의 정계에 들어가 권익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지금으로는 정계의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권력까지도 장악하여 안정되고 떳떳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민족도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경제면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업과 사업에 진력을 하여야 했고, 그러 면서도 한편으로는 장래를 위해 자녀 교육에 충실하여 남부 끄럽지 않은 2세들의 교육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도 달한 우리는, 앞으로 이들 1.5세와 2세들이 어떻게 보람있 게 이 사회에 진출하며, 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요건을 충분 히 활용, 전개하여 우리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결국은 이스 라엘 민족과 같이 이 사회에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으며 나 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그 예로서 제 경험을 간단히 들어 보겠다. 한국에서 나 서 4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지 못



하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 외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던 중, 6.25를 만나 그해 16살의 몸으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미장교의 가정에 입양되어 도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아버지의 성을 자신의 first name으로 하고 지금의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국에 있는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는 양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독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치루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우나 인내와 노력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의 감격도 감격이지만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된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늘 인내와 노력만이 나를 책임지며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를 쓰고 노력하였다. 그 후 대학에서 29년간 교면을 잡으면서, 나를 키워주고 도와준 모든 분과 미국에 빚을 진 것을 느끼고 이를 갚아야한다는 생각을 가 지기 시작하였다.

1975년 이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양의 언어인 일어와 중국어의 능력과 나의 태생인 동양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미국과 동양의 관계 특히 무역 관계의 과제를 위하여 줄곳 네명의 주지사를 거쳐 도우면서 무역 고문으로 긴밀히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중 한분의 지사가 내게 관심을 보이며 내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여 주의회에 출마할 것을 권하여주었다. 이민 1세로서 미국 정계에 나온다는 것은 퍽 어려운 느낌이었으나, 유태인 등 미국의 소수 민족이 미국 정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하온 터였기 때문에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교포들의 성원과 미 정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노력 끝에 주 하원의원직에 당선될 수 있었으며, 주지사 및 정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교포들의 많은 권유와 조언을 받으면 서, 2년의 임기를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다. 그 2년 동안 내가 워싱톤주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물론이었 지만, 특히 우리 한민족에 대하여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한민족의 장점 등을 소개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 들이 가진 한민족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느꼈었다. 내가 주 하원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미국인들이 한국 인을 달리 보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한국인, 특히 우리 1.5세 및 2세들이 정계에 나가 한국을 알리고 그 능력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희망을 강하게 가졌었다.

만약 1992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정계에 많이 있었다면 LA폭동은 없었으라는 것이 내 견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세와 2세들이 이같은 면으로 인식을 넓혀야 하며, 우리 1세들은 우리 후손들이 정계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하고 도와 주려고 하며, 이를 통해 나의 모든 지금의 고생이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미국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배우는 것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나, 반면 우리가 미국 사회를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도 큰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 사회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타락된 가정의 개념은 가정의 파괴와 분산을 초래하는 건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으며, 둘째, 일하는 근면의 정신이 퇴폐되고 미국 사회의 낭비와 또 생산의 질과 양의 저하에 미침으로 가져오는 폐해는 실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셋째로는 교육 가치의 몰락이며 이는 미국의 장래인 이세들

의 능력을 우려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는 실태이다. 서양 문화가 이같이 산적한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연명되어 갈 수 있을지조차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비해 초기 이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튼튼한 가족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신념을 갖고 있으며, 인내와 노력으로 일해야 한다는 근면의 철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장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2세중에는 탁월한 능력과 정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모든 도움을 찾고 있으며 짧은 이민의 기간에 보여 온 우리 민족의 성공의 예와 또 끊임없는 노력의 예는 지금의 미국에 모범의 일각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 한민족 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이같은 태도와 전통의 영향을 가진 우리 1.5세와 2세들이 미국의 정계에 진출하여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너무나 크다고 본다.

내가 금번에 워싱톤주 부지사에 출마하면서 워싱톤주 동양의 무역을 진흥하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지만, 위에 든 서구 문화의 심각한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 하고 싶은 것이며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정계 진출이 더 활발하여 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욱 중차대한 꿈이요, 소 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후에 후회 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결심이다.

Representative of Washington State, Paull H. Shin, Ph.D.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egan as early as 1885, when political exiles and displaced labor found refuge in countries outside their homeland. Although the number of these first immigrants was extremely small, by 1905 the first notable migration of Koreans took place. Initially numbering approximately 7,000, these contract laborers worked in the pineapple and sugarcane fields of Hawaii. Later, some branched out into California and the Yucatan peninsula of Mexico. The second wav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came between 1945 and 1955. The major flow of Koreans into the U.S. started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f 1950-53. During this time, students, war-brides, and Korean children adopted by American families poured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1967, the new immigration policy under the Lyndon Johnson Administration allowed not only students and professionals, but Korean famili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It is they who comprise the bulk of Koreans residing throughout the country as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s. In 1970, there were an estimated 70,000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re are over 1.5 million Korean-Americans.

Most immigrant Korean-Americans have utilized the free market system to achieve their economic prosperity through education and business. Concerned with "economic stability, job security,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ducating their families, Koreans have achieved a level of success that warrants serious consideration of their political investment in society. It is in this area that I sincerely feel the need for Korean-America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story of Korean immigration most closely resembles that of Jewish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s a people, the Jews were discriminated throughout the world, but found refuge and solace in the bounds of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These people concentrated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ir families, during which time they focused on educating their children in preparation for a successful and fulfilling life. Now, the Jewish-American community is recogniz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s a well-established, stable, and integrated sector of society that has much to contribute to the political process.

Much like Jewish-Americans, Korean-Americans have had high aspirations for educ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and have participated in realizing the American dream for themselves. Now is the time for concerned Korean-Americans to join with their counterparts in other ethnic and social sectors in becoming politically involved. I have been in this country for over 40 years, and have tasted the success that comes as a result of dedication, persistence, and hard work in a free, democratic society. I hope to use my story of determination to encourage the younger generation to involve themselves in civic affairs and politics.

For many years I was extremely apprehensive to run for a public office. I did not think the American people would vote for me because of my color. I have been trying for several years to overcome this fear, the same fear of rejection that plagues many minority groups struggling for acceptance and inclusion. I finally built up my courage and confidence in 1992, when I ran for a seat in the Washington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considerable encouragement by members of the business, education, and government community. It was on election night when I had one of the most memorable and fulfilling experiences of my life. Not only did I win the election, but I was approached by two, 1.5-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ese young students wanted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me. With tears in their eyes, they thanked me for setting an example of leadership and inspiration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y were afraid that political aspirations in the United States was not a possibility for them. They pledged that they would follow my example and become involved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try to encourage others to do the same. At that time, I felt this was a part of my mission in life, to encourage and inspire those isolated member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s of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This is one of the major reasons I am running for the office of Lieutenant Governor, to set a precedent,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so they can live with the same dignity, aspirations, and confidence that others do. I hope I can instill in fellow Korean-Americans throughout the nation this desire to serve our adopted land in public capacitie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preserve our unique culture and heritage, I would urge them to integrate into the American mainstream, educate their children to seek higher aspirations, and become more active in thei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The sooner we become politically conscious and realize our civic responsibilities, the sooner we can become viable, active, and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Only then can we live without fear or reservation, and achieve unity, stability, and acceptance.

폴 신 박사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입양되어 도미 하였으며, 동아시아 연구 및 역사학의 교수로서 25년 이 상 봉직하였고 각종의 사회 단체 활동과 함께 워싱톤주 한인회 회장을 2회 역임하였으며, 93년부터 워싱톤주 하 원의원으로서, 하원의 무역, 경제 개발 및 주택 위원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워싱톤 대학교로부터 동아시아 연 구로 박사학위, 역사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주 당의 공천으로 워싱톤주 부지사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Born in Korea, Dr. Paull H. Shin was adopted and brought to the U.S. in 1954. His professional career includes over 25 years as a professor of East Asian Studies and History as well as 15 years as a private entrepreneur. He is a member of numerou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served two nonconsecutive terms as President of th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ince 1993, Dr. Shin has serv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State of Washington and is the Vice Chair of the House Committee on Trade, Economic Development and Housing. Dr. Shin holds a Ph. D. degree in East Asian Studies and a M.A. degree i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96년 8월 30일에 있었던 폴 신 박사의 후원 파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15페이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Suggestions for KACL

Kyung Min Park, M.D., Advisor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의 광경을 얼마전 TV 중계를 통해 보면서, 미국의 정치, 나아가 세계의 정치를 좌 우할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미국 성조기와 후보 지지 피켓을 들고 환호하며 며칠간의 멋진 정치쇼를 벌이는 저 수천명의 군중 속에, 미국 주류 사 회의 구성원으로 아시아계, 특히 한국계 대의원은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TV 화면에 비쳐지는 면모들은 대부분 백인이었지만 아시아계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고, 특히 적지 않은 다수의 혹인들이 각주의 양당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미국의 정치판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혹인들의 인권 신장과 정치 참여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공화당의 콜린 파웰, 민주당의 제시 잭슨 등이 장차 미국 정치의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겠끔 혹인들의 정치 파워가 날이 같수록 눈덩이같이 커져가고 있음은, 소수 민족들을 위해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흑인들이 백인들과 주종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치를 논하고 유색 인종 차별 에 반대하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위해 자기 목소 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의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흑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나, 도리어 우리들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두터이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 이민해 살고 있는 우리 한국민 같은 소수계 민족들이,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내면적인 우월 감, 지배감, 차별, 그리고 면견 속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자 유스럽게 생업에 종사하며 능력대로 이 사회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이들 혹인들이 근 2세기에 걸쳐 백인 과 싸워 피땀으로 얻어낸 권리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혹인들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 의해 강제로 미국 땅에 노예로 끌려와, 사람이 아니라 가축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그들 선조들의 뼈저리고 처절한 수모와 아픔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그후 비록 링컨에 의해 노예 해방을 맞았지만, 철저한 흑백 분리 정책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의 진출이 봉쇄된 상태에서, 여전히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존재로 남을 수 밖엔 없었다. 특히 20세기초에 대두된 비미국적 요소 배격 운동에 힘입은 백인 KKK단의무자비한 폭력으로 많은 흑인들이 회생당했음에도, 흑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60년도에 이르러는 인종 차별과 불평등한 기존 체제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사회 도처에서 행동으로 나타냈다. 그 항의는 격렬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난 LA사태와 같은 폭동으로 미국 사회를 한때 공포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갔다. 이들 흑인의 일부는 급진 과격화하여 엘리자 모하메드(Elijah Mohammed)와 말콤 엑스(Malcom X)는 흑인 회교도(Black Muslims)를 조직하였고 더나아가 블랙 파워(Black Power)의 선언으로 군사 조직인 블랙 팬서당(Black Panther Party)같은 전투적 집단의 출현까지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흑인들은 온건파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목사가 주도하는 비폭력적 저항 운동에 동참하였고, 이에 뜻있고 양심있는 백인들도 많이 동조하였다. 1963년 8월, 드디어 워싱톤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명이 넘는 대집회가 열렸고 "우리는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는 찬송가를 부르며, 킹목사는 저 유명한 「나는 꿈을 갖고 있다(I have a dream ...)」는 연설로 인종 차별 없는 미국 사회를 이룩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는 흑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아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었다.

이를 기폭제로 해서 매사추세츠 출신이자 「뉴 프론티어의 기수」이며 자유주의자인 죤 F 케네디에 의해 추진된민권 운동이 결실을 보게 되어, 인간의 자유 권리를 인정하는 민권법이 1964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발효되었다. 이로써 혹인 중산 계급의 지위는 향상되기 시작했고 비로소소수계의 투표권, 경제, 교육, 공공시설 사용권이 보장받게되었다. 또한 과거 사회 각층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던소수계와 여성들이 고용, 진급, 입학, 임금 등에서 우선적혜택을 받는 「소수인종 우대계획(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법도 병행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종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부당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이 이루어졌다. 즉 인종 차별을 위헌으로 못박음으로써 우리 재미 한인들도 취직, 진급,

직장 생활, 경제 활동에서 적어도 법이 정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 속에 얼룩진 유색인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이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자취를 많이 감춘 듯 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잃은 미국이 처한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에 맞물려, 새로운 보수화의 물결이 다시금 일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이민법 개정, 사회 보장 제도 개정, 웰페어법 개정 등으로, 과거의 역사속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려 놓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소수계 이민 집단은 극력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금년으로 창립 6년을 맞이하는 본회는 본회 헌장에 명기된 목적과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으로 추진해 나가 야 할 것이며,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사견을 피력 하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본회는 항상 변화하는 객관적 상황과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미래상을 정립하며, 오늘을 토대로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후의 미국 한인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한 이에 따르는 미국 주류와 한인 사회와의 관계, 특히 한인 교포 사회의 미국 정치에의 참여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본회도 미국의 앞날과 교포 사회의 장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정책 기관이 되도록 전향적인 탈바꿈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작은 규모일지라도 본회 자체내에 상설 정책 연구 기관의 설치를 고려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본회 헌장 제3조 목적, 제1항의「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함은 본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 교육 계몽하며 관철시켜야 할 일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본회 회지 제4호(1994년도)에 계제된 최홍균 총무의「미국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과, 이 조나단씨의「미국 정치 참여: 2세의 관점」에서 잘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김문소 이사장의「시민협회의 비젼」, 코네티 컷대 김일평 교수의「시민 운동과 정치 참여」, 그리고 본회인권용호위원회 정용훈 위원장의「시민권의 의의와 가치 및 그에 따르는 책임」에서 또한 설명되고 강조되었다.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 정치인들이 보내온 격려사 중에서, RI 주지사 링컨 알몬드, NH 연방 상원의원인 쥬드 그렉, 주보스톤

박신일 총영사 등의 글에서도이 땅에 이민와서 사는 우리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본회는 창립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포들의 관심을 야기시키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이 나라에서 사는데 기본 권리인 시민권 획득, 유권자 등록, 선거권 행사에 관한 안내, 교육 등의 계몽 사업을 꾸준히 해온 성과가 이제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과 금년들어, 많은 수의 영주권자교포들이 복지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객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충격은 그동안 눈감고 무관심 속에 버려졌던 미국정치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한 자극제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말이 있다. 조국을 떠나 이땅에 이민와서 정착해 사는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대접받고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며 부과된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타민족과 평화스럽게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단일 민족인 한국과는 달리, 세계 각지에서 모인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고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하는 자유민주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인, 특히 WASP 즉 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미국의 주류를 이루며 미국 엘리트의 핵심적 존재로서, 이 나라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계속 기득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쌓아 놓은 보이지 않는 두터운 벽을 뚫지 않고는 소수민족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흑인, 유태인 등이 이 두터운 벽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미국 주류에 진출하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재미 한국인들도 이땅에 살면서 이민 역사는 비록 짧으나, 소수민족중 적어도 유태인만한 위치에 서있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영어를 익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역사와 헌법을 배워야 하며, 나아가 빠른 시일내에 미국 정치 문화에 익숙해지고 미국 정치의 역학 관계를 터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과준비없이 미국 주류 사회에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벽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 될 것이다. 진정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미국 주류와 선의의 경쟁자로서 또한 동반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땅에서 기반을 잡고 주인 노릇하며 살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철저히 미국을 공부하고 알아야 할 것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된다.

비록 적은 수지만 미국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는, 김창준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재선), 공화당 미국 정부 고위직에 올랐던 그램 여사(하와이 초기 이민의 후세로서 텍사스주 그램 연방상원의원의 부인), 재미 한국인의 정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서 워싱턴 D.C.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하였고 메릴랜드주 한인 미국 시민권 협회장 및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연맹 공동대표로 본회 총회에서도 연설한 진교륜 박사와, 한국 입양아로서 워싱톤주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워성톤주 하원의원으로서 민주당 공천으로 위싱톤 부지사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지난 8월말 본회 주최의 후원기금 모금 디너파티에 참석한 폴 신박사 등은,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미국 주류 정치에 참여하여 성공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본회는 계속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 운동을 인도하며, 한국 민족의 뿌리를 미국땅에 내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에 한인 사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권유, 교육,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시민권을 새로이 획득한 한국계 이민자들이, 모국지향적 귀소 의식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Korean in America가 아니라 진정한 Korean-American으로서의 재미 한국인 공동체 운명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뭉치며, 그 뭉친 힘으로 정치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와 주어야 한다.

재미 한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정치 집단으로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1903년 하와이 노동 이민으로 시작해서 해방후 한국전쟁을 거쳐 1965년과 1976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어, 취업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해진 이후 한국인의 이민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 재미한인 교포사회도 금년들어 인구 백만을 훨씬 넘게 성장하였다.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계 소수민족으로 이미 이땅에 자리잡은 중국인 일본인과, 월남전 후 새로 들어온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필리핀, 인도의 이민들과 연대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본회 창설의 목적이 이록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이미 각지역마다 아시아계 민족연합체가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보스톤에도 Asian-American Civic Association(AACA)이 있어 본회도 참여활동하고 있음)

생체, 본회의 헌장 제4조 사업, 2항의 「한민족과 한국의 입

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함은, 94년도 회지에 김 양길 부회장(현회장)의 글「왜 시민협회는 웰드를 지지하는 가?」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치의 참여는 비단 선거를 통한 피선거권 및 투표권 행사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에의 지지 표시, 선거 운동, 선거 자금 모금 및 헌납 등으로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선거 운동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선거 자금 때문에 큰 고생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격으로, 당선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나 형태로서도 빚진 호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클린톤 대통령은 당선이후 거액 헌금을 한 후원자들의 많은 수를 해외 주재 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웰드는 주지사당선이후 선거 모금을 해준 한인을 주정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시아계 소수민족과의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다. 또한 94년 본회가 웰드 재선을 지지하면서 선거 자금을 모금해준 결과로, 이지역 한인 세탁인 협회의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정부내 소수민족 등용 문제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 자금 혹은 정치 헌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의 개인적 접촉이라는 데서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거액 헌금이 아닌 소액 헌금일지라도, 소액의 수표를 지지자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정치 참여의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고, 헌금 인사 명부에 오르게 됨으로써 정치가 「Give and Take」라는 실체를 실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는 정치를 「권력의 분배」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미국 정치는 파이(Pie)를 자르는 게임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소수 민족으로서의 재미 한국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중에서 좀더 큰 파이의 몫을 얻어 낸다든지 또는 자기 몫을 찾아 먹기 위해서도, 한인회를 비 롯한 많은 재미 한인 단체들이 이익집단화하고 미국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재미 한인 이민 역사에서 한인들이 처음으로 미국 정치에 참여한 것은, 1974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있는 재미 한인 정치협회(KAPA)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제리 브라운이 출마했을때 3천불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준 것인데, 그가 당선후 한국계 미국인을 판사로 임명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1981년 펜실바니아 주지사 선거시 그곳의 한인회가 덴버거 지사를 위한 모금 파티에서 2만불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하여 주었고, 시민권자 3천명이 덴버거 지사를 위해 등록하였으며 마침내 그가 당선되었다. 1983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선거시, 그곳 한인회가 화인스타인여사(현재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를 공식

지원하고 모금 파티를 열어 6천불을 모금하였으며, 많은 교 포들이 그녀를 위한 선거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녀가 당선된 후, 시장 비서실로부터 소수계 민족 육성 기금으로 샌프란시스코 한인 교포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기금 8만 불이 전달되어 인력개발원에 기증된 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큰 파이의 한 몫임에 틀림없었다. 또한 1979년 미국 대통령 선거시, 카터 후보를 후원하기 위해 장선길씨가 주 동이 되어 미국 민주당 한인 총회를 창설하고 모금 파티를 열어 4만여불을 모금하며 개인 헌금까지 합쳐 10만불을 선 거 자금으로 내놓음으로써, 그 공로로 장씨는 민주당 재정 위원회 고문이 되었고 한인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본회가 내세운 전제 조건에 맞는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말보다 지지 유권자 의 확보와 모금 및 헌금과 같은 실질적인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본회는 본회내 정치활동위원회를 적극적이며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여, 이 지역 한인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치 이익 집단으로 계속 존재하여야 할 것이 다.

넷째, 본회 사업중의 로비 활동(Lobbying)은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정치 문화의 특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있는바, 현재 워싱톤에는 많은 미국인 저명 인사와 정치 거물들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의 미국과의 각종 이해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회도 이 지역 한인의 권익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는, 본회가 직접 압력 단체로 활약할 수도 있으나 미국 정치의 분산된 권력 구조와 정책 결정 기구의 복잡성, 확립된 정치 수칙 등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국 정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능숙하고 노련한 미국인 로비스트에게 맡기는 것도 때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생각된다.

다섯째, 본회가 권장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일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상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 주 상하원의원, 작은 타운의 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직장, 학교, 단체에 이르러서도 투표 로 결정되는 제도하에서는 투표권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며, 우리는 이 권리를 귀중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지난날 뉴욕 할렘가 한구석에서 술먹고 주정뱅이 노릇하던 많은 흑인들 이, 오늘날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에 주 어진 권리를 찾고 큰 소리를 내게 된 것은, 킹목사같은 흑인 선각자들에 의한 민권 운동과 투표 동참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할 것이다.

본회에서도 「투표권에 의한 정치력 발휘」를 위한 교육 계몽 사업을 현재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투표권 행사에 의한 피동적 정치 참여를 뛰어 넘어, 재미 한국인과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능동적인 정치 참여로 정치 일선에 나서려는 한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며, 본회는 이를 한인 사회에 적극 권장해야만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에 과감히 뛰어 들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나라 정치의 카 드를 쥐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에 관심을 갖고 어느 쪽이든 참여하여 정치 기반을 쌓지 않으면 결코 제2, 제3의 김창준 의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미국 양당 제도의 현실이다.

또한 양당의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많은 한인들이 우선 정당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야만 가능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재미 한인 사회도 한인 중심적이고 한국 지향적인 의식 구조에서 서서히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미국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미국 정치 현실에의 접근과 참여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미국이란 토양위에 한국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주체성있는 미국화가 미국 주류 사회와 한국 사회를 다같이 긍정적으로 조화있게 받아들이는 올바른 한국계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여섯째, 미국 정치 참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론 조성과 언론 방송 매체의 이용일 것이다. 본회의 사업의 하나인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총칙 사업 5항)」에서와 같이, 해당 기관, 인사와 직접적인 교접도 중요하지만, 언론 매체를 이용한 여론 조성으로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 매스콤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고, 특히 미국과 같이 매스콤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것이 정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본회는 이지역 한인 개인이나 집단의 권익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언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양심에 호소하며, 미국의 정치가 귀를 기울이도록 적극적인 홍보 공세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회 홍보위원회는 이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백인 주류 사회에 본회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을 게올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오늘날 재미 한인 교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21세기의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인 것이다. 본회 헌장 목적 4항의 「한민족 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 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 한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사 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김문소 이사장, 김일평 박사, 최홍균 총무 제씨의 글속 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회는 1.5세대와 2세대들이 미 국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며, 정치에 뛰 어들 인물들을 찾아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며, 이는 본회 헌장 사업 6항 「...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업을 추 진한다 ...」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며, 미래를 내다 보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현재 자라고 있는 새 싹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한다. 유태인들은 일 찍부터 미국내 각 지역, 그들이 사는 곳마다 「유태인 커뮤니 티 센터」를 세워 유태인의 정신적 뿌리를 후손에게 내렸지 만, 우리들은 미국내 수많은 한국학교, 교회 부속 주일 학교, 교회 청소년반 등의 2세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여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서의 자신의 뿌리를 찾고 동질성을 확인케 하여, 한국과 한 민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주 한인 사회에 대한 애착과 봉 사, 사명감을 스스로 깨달으며 미국 주류 사회와도 잘 어울 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쳐야겠다. 본회는 이 지역 한인 교회 학교 및 한국학교 와 협의하여, 한국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 현실에서 미주 한인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키 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결론으로, 6년전 본회 창립 이래 한국 사회와 미주류

사회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수고하는 본회 집행부, 이사회, 각 분과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치하하는 바이다. 오늘날 재미 한국인을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 민족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에 힘입어 빠른 시일내에 이 땅에서 한민족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한이민의 역사를 남길 날도 멀지 않은 줄로 믿는 바이며, 끝으로 본회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시민협회의 고문인 박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을 거쳐, 미국 마취과 전문의로서 Framing Union Hospital의 마취과장과 보스톤 의과대학의 임상외 래교수를 역임후 현재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건립 위

원장,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회장, 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Dr. Kyung Min Park, Advisor, graduated the medical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same school. He is currently working at the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chair of the committee for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e was awarded a prize from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시민협회 가입 안내

시민협회에 가입하셔서 소수 민족과 한인의 권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요. 가입 절차는 이 회지에 삽입된 입회원서를 기재하셔서 소정의 회비와 함께 명기된 주소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도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실 수가 있으며, 가입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이름 옆에 "영주권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회원서 용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회장 김양길 508-691-5108 이나, 사무총장 김명기 603-659-6129 로 연락주십시요. 즉시 보내드립니다. Second and 1.5 Generations - Historical Perspective (Part I)

Rin Paik, Advisor

하버드 대학교의 한인 학생회(Koreans of Harvard-Radcliffe)는 1988년 이래「이세(Notes from the Second Generation)」라는 제목의 회보를 내고 있다. 이 회보의 편집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이며, 대상 독자도 한인 2세이다. 그래서 회보의 제목을 「이세」라고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영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 회보를 영어로 발행하고 있다. 아무튼 이 회보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한인 2세가 자기 세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행하는 영문잡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하게 된다.

이보다 훨씬 앞선 1918년 5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한인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이 학생회는 1919년 1월부터 영문판으로 「소년 한국(Young Korean)」을 발간했다. 그런데,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에 미국에 망명 유학한한인 학생들은 아직 영어로 잡지를 만들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또 당시의 한인 2세들은 아직 대학에 진학할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면, 이 「소년 한국」은 오하이오주콜럼버스에 와서 공부하던 한인 1.5세들이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펴낸 최초의 한인 학생 영문회지임이틀림없다고본다.

이 두 회지는 다같이 재미 한인 학생들이 영어로 발간 했다는 공통점에서 많은 흥미를 갖게 한다. 2세라고 자처하고 나선 그들은 누구이며, 또 1.5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도 우리는 2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요즈음의 신문과 잡지에서, 2세와 1.5세에 대한 글을 많이 보게 된다. 2세의 교양 문제, 교육 문제, 장래 문제, 부모와의 갈등, 1.5세의 사회 적응 문제 등 교양, 교육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2세라고 하며 또 어떤이를 1.5세라고 하는지, 또 2세와 1.5세를 구분하는 원칙도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한 것같다.

2세는 재미 한인 사회의 저력이다. 따라서 재미 한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우리 2세에게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미 한인 2세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 것이다.

〈2세의 정의〉

우리는 이민 2세를 말하기 전에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하겠다. 이희승 선생의 「국어대사전」에 보면 "이세: 다음세대"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민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2세란 그저 단순히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그 개념이 많이 다르다. 이민 2세는 역사적, 사회적 또는 문화 의식적인 면에서 본국의 2세와는 많은 특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삼성당의 「영화사전」에 보면 2세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라고 풀이하였다. 또 일본어사전인 「광사원」에서는 2세를 "이민지에서 출생한 일본의 자녀로서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이 해석은 극히 독단적이며 아전인수격이다. 그보다도 미국에서 발행된 「Webster's New School and Office Dictionary」에서는 "Ni-Sei; A person born of immigrant Japanese parents in the U.S.(이민한일본인을 부모로 하여 미국에서 출생한 자)"라고 하였다.이 해석은 전기한 「광사원」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서 영역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Ni-Sei」라는일본어가 미국에서 발행된 미국어 사전에 엄연히 자리잡고 있다는사실이다.

2세라는 용어는 동양 이민에게 있어서는 뼈에 사무치는 말이었다. 그것은 때로는 희망이었고 때로는 좌절이기도 하였다. 「2세」라는 용어가 그토록 일본인의 마음을 아프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단어에 숨겨진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에서의 일본인 편견과 모델 그리고 배칙의 대명사로 불리워졌던 「Jap」이라는 단어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시 미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매우 혐악했었다. 미국에서 태어났건 또는 외국에서 태어났건 「Jap」은 「Jap」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인 2세뿐만 아니라 동양인 2세도 마찬가지였다. 엄연히시민권을 가진 같은 미국인인데도 백인을 주축으로하는 미국 사회는 아시아계 2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세계제2차대전 이전까지만해도 동양인 2세들은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

일본인이 2세에 대한 정의를 그와 같이 강한 의지로 표현한 것은 차별에 대한 격분과 야마도 민족의 자부심, 그리고 2세는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강한 반응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아무튼, 현재로는 아시아 이민의 2세에 대한 호칭으로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시민권

을 가진 자를 지칭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이민 1세의 고통이 너무 핍절하였기에 그들은 한을 품고 살아왔다. 고진 감래라고 하면 과거의 고통과 눈물은 오히려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2세의 출현은 회망이며 보람이고 장래를 약속해 주는 것같이 믿었던 것이다. 지면을 많이 얻지 못하여, 미국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압박에 대한 지난날의 예를 하나하나들 수는 없다. 그러나 동양이민에 대한 차별과 이민제한법은 간단히나마 짚고 넘어가야하겠다.

미국은 1882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중국인의 미국 이 민을 금지하였다. 그 이후 중국인은 이민은 물론 귀화조차 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국인 배칙 이후인 1885년부터 일본 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에대한 배척이 날 로 심각해지자 미국은 1902년부터 한국인의 이민을 환영하 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백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편 견과 배척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다. 1905년, 샌프란시스코 에서 일본인 및 한국인의 배척연맹이 조직되었다. 1907년 에는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인 아동 격리 교육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은 노일전쟁 이후 미일간에 있던 국제 정치 학적인 이해 차이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정책에 반대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1895년의 청일전쟁을 승리 로 이끈 일본은 1904년에 다시 노일전쟁을 일으켜 한국과 만주에 있어서 독점적 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국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올사조약을 체결하여 속령으로 하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앞세워 중국 본토를 압박하였 다. 더우기 1905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일관계 의 호전을 틈타 전쟁터에서 돌아온 복원병을 대거 이민시켰 다. 노일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06년에 30,392명, 그 다 음해인 1907년에는 15.757명이 각각 하와이에 건너왔다. 전투모를 쓰고 빨간 모포를 어께에 둘러매고 이열종대로 좁 은 호놀룰루의 거리를 행진하는 광경은 실로 놀랄 정도였다 고 한다(하와이 일본인 이민사 p168).

1903년 1월부터 1905년 11월까지의 3년 10개월에 걸쳐 65척의 선편으로 한인 7,226명이 하와이에 이민하였다. 그중 남자가 6,048명이었고 부녀자가 637명이었으며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541명이었다. 귀화가 전척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1세는 더 말할 나위없고 14세 미만인 541명의한인 1.5세들도 미국에 영주하여 1952년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무국적 외국인의 신세를 면치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이민한 637명의 부녀자중 내외를 갖추어 가정을 가진 이는 겨우 200세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들이

1910년까지 생산한 자녀가 107명이라고 하나 중빙할 기록 이 없어서 그 자세한 것은 알수가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1905년 3월 29일 로스앤젤리스에서 태어난 안창호 선생의 맏아들 필립 안이 한인 이민 2세의 제1호라는 사실이다. 그는 독립지사 안창호의 아들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할리우드의 명배우로 일시 그 이름을 미국 영화계에 널리 떨친 바도 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산 그는 1978년 2월 28일, 73세의 아까운 나이로 타계하였다.

〈사진 결혼과 이민 2세의 탄생〉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초기에 있어서의 한인의 미국 이 민은 그 환경과 조건이 지금과는 매우 판이한 것이었다. 당시는 계약 노동 이민이었기 때문에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으며,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가족을 갖지 못한 독신자였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낳게 한 것이 곧 사진 결혼이라는 웃지못할 결혼 형식이었다. 사진 결혼이 왜 언제 어떻게하여 시작되었으며 초기 이민 2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한국이민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의미를 가진다.

1886년 아메리카 노동연맹(AFL)이 조직되었다. AFL은 사회주의 급진적 이론을 피하고 순수 노동 운동을 본령으로 하였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르러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기계화의 대치로 미숙련 노동 수요의 격감과 동남 유럽으로부터 대량 이민의 도래는 미국 사회를 동요케하였다. 거기에 1901년 사회당이 창립되고 1905년에는 세계 산업 노동자단(IWW)이 결성되어 종래의 순수 노동은계급 투쟁으로 선회하면서, 외국 노동자의 유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미국 정부도 더이상 노동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외국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07년 8월 20일자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일 본인의 이민과 귀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국의 입 장을 보도하였다.

「합중국 정부는 이민 제한의 희망을 관철하고자, 그 보상책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일본에 제시하였다.

- 1. 한국에 있어서의 치외법권의 포기
- 2. 일본인의 합중국 귀화 허용
- 3. 한일 관세 동맹의 승인(북미의 일본인 p343)」

사실 미국은 한국을 회생양으로한 중국의 문호 개방을 전제로한 극동 정책이 무위로 돌아가자 일본의 한국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이 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노일전쟁으 로 획득한 만주와 한국에서의 식민지적 이권을 미국 이민과 귀화라는 조건과 상쇄할 수는 없다는 소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와 경제 그리고 문화면에서 열세인 일본은 미국의 이민법 제정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민법 제정을 막기 위하여 다가히라 쇼고로(高平小五郎)를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다가히라대사는 미국의 국무장관 엘리히 U. 루트와 1908년 2월, 이민 문제에 대한 신사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의 내용은 일본 이민자의 처자의 초청과 상인 그리고 유학생을 제외한 일체의 일본인의 도미를 금지하는 약속이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에 탈취된 후임으로 인해, 대한인도 이 신사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 다. 그러나 1905년을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을 금지하여 왔 기 때문에 이 협정으로 인한 하등의 피해도 없었다. 오히려 처자의 초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민은 할 수 없었으나 사진 결혼으로하여 처자의 초청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진 혼인은 1908년부터 1924년, 소위 배일이민법이라고 하는 국별 할당법이 제정되기까지 16년에 걸쳐 성행되었다. 김원용은 「재미한인 50년사」에서 지적하기를, 「1910년 11월부터...1924년 10월까지 하와이에 들어온여자가 950명이고 미국 본토에 들어온여자가 115명으로... 40년을 지난 오늘에 이르러 그 자손들이 7,000명에달한다」라고 하였다. 사실 사진 결혼에 의한 신부 초청은이 기간에 도미한 일본인 신부 3만2천명에 비하면 그의 32분의 1밖에 안되는 극히 적은 수였다. 그것도 호적에 입적시켜 정식으로 도미 수속을 밟아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 신부는 중국의 상해를 거쳐 밀항선을 타고 천신만고끝에 미국에 있는 신랑을 찾아왔던 것이다. 사진 결혼의 회비곡절은 짧으나마 한인 미국 이민사에서 읽을 수 있겠다.

〈2세의 출생〉

「하와이 거주 각민족 및 인종의 출산표(와다나베 시지 로 조사 작성)」에 의하면 한인 아동의 연도별 출산은 다음 과 가다

7 E 7.			
년도	출생	년도	출생
1917	144	1927	233
1918	183	1928	210
1919	175	1929	172
1920	192	1930	190
1921	219	1931	163
1922	218	1932	163
1923	232	1933	129

1924	258	1934	101
1925	234	1935	119
1926	234	1936	84

총계: 3.653

이것이 1917년부터 1936년까지 20년간에 하와이에서 출생한 한인 2세이다. 이후의 출생 통계는 얻지 못하여한인의 미국 이민 이래 1945년까지 출생한 통계를 다 제시하지는 못하겠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민 1세들은 한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10대에 부모를 따라 이민왔던 소년들은 어느덧장년이 되었다. 1930년의 「미국 국세 조사」에 의해 재하와이 한인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재하와이 한인의 연령별 인구 통계, 1930년 현재).

1 6 0 6		11, 1000 -	C 117.
연령별	인구	연령별	인구
1살-	165	25-29	228
5살 미민	£ 920	30-34	290
5-9	1,037	35-44	488
10-14	803	45-54	1,251
15-19	398	65-70	142
20-24	241	70-	23

총계: 6.461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세에서 14세까지는 사진 혼인에 의해 도미한 여자가 낳은 2세이고, 15세부터 29세까지는 이민 초기에 도미한 여자들이 출산한 2세이며, 30세부터 44세까지는 일짜기 부모를따라 이민은 1.5세이며 45세 이상은 초기 이민 1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쨋든 위의 통계는 여러 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의 하와이 거주 한인 미국 시민 및 비시민자의 년도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하와이 일보이 여가 참조)

ELLL	D D/.	
년도	시민	비시민
1936	4,157	2,525
1937	4,265	2,405
1938	4,355	2,252
1939	4,462	2,276

이것이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재하와이 한인 인구의 동태이다. 여기에서 시민이라고 한 것은 하와이에서 출생한 2세를 가르키는 것이며 비시민은 한국에서 태어난 1세를 말하는 것이다.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7년 부터는 비시민이 매년 100명씩 줄어드는 반면에 시민은 100여명씩 증가 추세를 보인다. 어쨋든 1940년대에 이르 러서는 한인 미국 시민이 5,000명에 달했다고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 본토의 한인 인구는 그 수가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미전역에 산재하였고, 또 전해진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2세와 이중 국적)

2세에게는 동화가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다. 영어인 미국어가 그들의 국어이며 아메리카적 양식이 그대로 그들의 일상 생활 방법이다. 그럼에도 백인 사회로부터 소외되며 조국의 무관심 속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전통이 상이한 재미 한인 사회로부터도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 제2차대전 이전에 있어서 해외 한인 동포를 극도로 괴롭혔던 것은 조국의 호적법이었다. 1세들은 귀화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남아 교민으로서 생활해야 하겠지만, 이민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무국적자가 아니면 이중국적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국민 자격은 호적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주의에 의한 국적 선택으로 시민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서 출생한 자는 인종에 관계 없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인의 자녀들도 미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어엿한 미국인으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권의 획득과 취직에 있어서 균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중인대에서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아 왔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인들은 일본인 2세를 이중 국 적자라고 경멸했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 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일본인 배척이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1924년 「국별 할당 이민법」을 제정하여 동남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축소하는 동시에 아시아인의 이민을 전적으로 금지하였다. 일본은 이 신이민법을 배일 이민법이라고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쓰르미유스케를 전권대사로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요로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난 후이니 사후약방문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시민인 2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1924년 11월 17일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의해 재미 일본인 2세는 병역 의무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내면 일본 국적 상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또 그 절차가까다롭다고 하여 1924년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 신고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하였다. 2세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더 자세히 논의키로 하겠다.

다시 말해, 이민 2세는 이민지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미국에서 받았으며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미국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혈통은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고 있지만 출생 자체가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달랐으며 문화 풍속의 차이와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 관념이 조국의 2세와는 크게다르다는 것이다. 즉 2세는 그 뿌리가 미국이기 때문에 뿌리 의식과 조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고 보이야 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민 2세를 본국의 2세와 굳이 구별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97년도의 제7호 회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English Summary by Hong Kyun Choi

Since 1988, Korean students of Harvard-Radcliffe University have been publishing a magazine called Yisei (the Second Generation). The editors of this magazine, as well as its readers, are 1.5 and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who either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or immigrated when they were very young. Long before this,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in Columbus, Ohio published Young Korean in English in January 1919. However, given that the first-generation Korean students could not have had a good command of English, it might have been published by the 1.5 generation.

Yisei is defined in a Korean dictionary merely as the next

generation. However, in a Japanese dictionary, "Ni-Sei" (the Japanese pronunciation of Yisei) is defined as the second generation born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In Webster's dictionary, Ni-Sei is defined as a person born of immigrant Japanese parents in the U. S.

"Second generation" was a word with very deep emotional associations for early Asian immigrants; sometimes it meant hope, but many times, it meant frustration. Historically, it was related to the word "Jap," which was a symbol of prejudice, hatred, and discrimination. To many Americans, "Japs" were Japs no matter if they were born in the U. S. or elsewhere. The

same was true for other Asians. Before World War II, Asian-Americans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In 1882, the U. S. made a law to bar Chinese immigrants; it did not even allow the naturalization of those Chinese who were already legal immigrants. In 1885, Japanese began to immigrate to the States. As opposition to the Japanese immigrants was intensifying, Koreans began to immigrate in 1902. Between 1903 and 1905, 7,226 Koreans immigrated to Hawaii: 6,048 men, 623 women, and 541 children aged 14 years or younger. These people were not allowed to become naturalized until 1952. The first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 is known to be Phillip Ahn, son of Ahn Chang Ho, who became well known as a Hollywood star.

Because early Korean immigrants came to the U. S. by labor contracts, most of them were men. Later, they married by the so-called "photo-marriage." Ironically, the photo-marriage was a result of anti-immigrant movements headed by labor unions, which feared the loss of jobs to immigrants. The U. S. government asked Japan to bar any immigration outside of immediate family members of current Japanese immigrants. Because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photo-marriage became possible. From 1908 to 1924, 950 women came to Hawaii and 115 to the mainland by photo-marriage.

From 1917 to 1936, 3,653 children were born in Hawaii from Korean parents. By the 1930's, there were about 6,500 Koreans in Hawaii. The number of U. S. citizens who were born in the States increased by approximately one hundred a year, while non-citizens decreased by about one hundred a year because the first generation was dying.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about 5,000 Korean-American citizens in Hawaii in the 1940's. However, there is no data on the number of Koreans in the mainland.

For the second generation, English was their native language, and they were familiar with American culture. However, they found themselves isolated from American society, while they were distanced from the first-generation Korean society by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 different culture.

Before World War II, one thing that troubled most overseas Koreans was the family registration law in Korea. The first generation, which was not allowed to become naturalized, remained foreigners. But the second generation became dual citizens. Because anybody born in the U. S. became a U. S. citizen, the second generation should have been entitled to the same rights and privileges as other citizens. However,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when it came to property rights, employment, and even at the witness stand in courts.

Americans despised the Japanese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dual citizens. Many Americans believed that the Japanese could not abandon their loyalty to the Japanese emperor,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eligible for American citizenship. After the immigration law that barred Asian immigrants was passed in 1924,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protect the second-generation Japanese in the States by changing citizenship laws to make it easier for the second generation to abandon Japanese citizenship. Furthermore, it stipulated automatic loss of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after 1924 if their births was not register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o be continued in the 7th Journal)

시민협회의 고문인 백 린 선생님은 하버드 옌칭 도서관 (HarvardYenching Library)의 사서와 뉴잉글랜드 한 국학교 교장, 단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은퇴, 지금은 보스톤 한인교회의 장로입니다.

Lin Paik, Advisor, was a librarian at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the principal of the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and a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Now he is retired and an Elder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한국계로서 로드아일랜드주 하원의원의 예비 선거 에서승리함으로써 경쟁자가 없어 본선에서 자동 당 선되는 마이클 파렐씨는, 단 17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낮은 투표율과 박빙의 경쟁 속에서는 한 표가 승부를 가름합니다.

한표는 숫자가 아니라 인격이며 하나의 존재를 뜻합니다. 반드시 등록하시고 이번 11월의 선거에 꼭 투표하십시요.

Better Korean society: giving, sharing, and participating

Hansoo Kim, Board Member

거의 매일 우리는 여러가지의 자선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는다. 나는 이런 편지를 받을 적마다 "이런 편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자선 단체도 많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한번은 Route 128선상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서게 되었는데, 별안간 미국 여자한분이 차를 세우곤 Cellularphone을 꺼내 쓰라고 해서, 고맙기도하고 한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나같으면 바쁜퇴근 시간에 차를 세워서 그런 도움을 제공하려고 했을까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만 하다. 보스톤 지역에 이민해 살고있는 우리들은 거의가 10년이상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고미국의 사회 제도를 다 알고있는 상태인데도, 아직 우리는 받는데는 익숙하지만 주는데는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아마 우리들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마음의 여유없이 급급한 생활을 했던 것 같다. 그러기에 남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 남들에게 베푸는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랫동안의 유교사상으로 인한 사대주의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기억컨대는 싫더라도 신정이나 구정, 또 큰 명절이 오면 선물을 들고 회사 상사들의 집을 찾아 가야만 했었다. 그때는 나도 언젠가 승진을 하면 부하들이 무얼 싸들고 오겠지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미국 생활 10년을 되돌아 보면, 명절때면 정반대로 부하 직원들한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미국에서 얼마를 살다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서로 도와 주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이내 알 수가 있다. 순전히 Volunteer로만 운영되는 단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배우는 그들이니 주는 데 인색하지 않은 것이 조금도 이상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듯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을 배우고 미국속에서 적 극적으로 살다보면, 우리도 잊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을 가끔 보게된다. 신문을 통해 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이 시간 을 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시민협 회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기금을 모금해 준다거나하 는 좋은 예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보며,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남에게 주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아직도 보다 많이 배우고 실천하며 또 자녀들에게 그러한 습관을 가르쳐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보스톤 지역에는 한인들이 약 15,000명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권익을 보장받기 위

해서는 단체로서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더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 시민협회, 과학기술자협회 등의 각종 단 체에 가입하여 가능한한 힘껏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주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은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생활화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준다는 것은 굳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거나시간이 남아서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이 보다 떳떳하게 이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를 더욱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 부모가 솔선수범하며 모범이 되어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개인적인 장래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장래를 위해 부모가 멀리 보며,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리 세대는 먼훗날 자녀 세대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누고 베풀며 봉사하는 한인 사회, 받는 것보다 주고 그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의것 하고 성숙된 한국인이 되도록 모두 같이 애써나가는 우리들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 다.

감사합니다

회지 6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협회 회지에의 광고는 일년 이상가는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광고 효과뿐만아니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까지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이어져 내릴인권 운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6호는 3,000부가 발간되어 뉴잉글랜드지역의 거의 모든 가정에 무료로 배부되며, 백악관을 포함해서 각 주지사와 주요 정부관서, 각종의 시민 단체, 소수 민족 단체, 주요 한인 인권 단체, 각종의 한인 주요 신문과 미국 신문 및 언론기관에도 전달됩니다.

광고 문의는 회장 김양길 508-691-5108, 이사장 김문소 508-475-3534, 사무총장 김명기 603-659-6129로 연락해 주십시요.

Correct pronunciation of cities and towns in New England

Yong Bock Chang, Ph.D., past Vice-President

어느 분이 미국에 오자마자 자동차를 샀습니다. 무슨 차를 샀느냐고 물었더니 도드게를 샀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알고보니 닷지(Dodge)를 구입했는데 한국식으로 충실하게 발음을 했던 것이지요.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부부가따님을 데리고 뉴잉글런드 지역 대학교 방문을 왔습니다. 웰레슬리(Wellesley)와 다트마우스(Dartmouth)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웰즐리, 다트머스라고 해야 옳지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따님 졸업식에 참석하러 다시 왔습니다. 따님이 졸업하는 학교를 여전히 웰레슬리라고 하더군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인데도 뉴잉글런드에 오시면 이렇게 실수들을 하십니다.

뉴잉글런드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지명에 별로 신경을 안쓰다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혜이버힐 (Haverhill)이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콘넥티컷 (Connecticut)이라고 잘못 발음합니다. 혜이버럴, 커네티 컷이라고 해야 옳지요 알고 보니까, 미국 방송국 어나운서도 실수하더군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들었는데, 워체스터(Worcester)라고 하더군요. 우스터를요. 글라스터 (Gloucester), 레스터(Leicester), 우스터(Worcester)라고 해야 옳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차라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편이 알아 듣기 쉽지만, 미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옳게 발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 듣지 못하기 쉽고 그래서 서로 무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뉴잉글런드의 지명을 훑어보고자합니다.

우선 미국어 발음상 중요한 원칙을 예를 들어가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페라(opera)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퍼러라고 하지요. 액센트 없는 음절은 「어」라고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액센트 없는 음절들인 「페라」는 「퍼러」가 됩니다. 그리고 「o」라는 모음은 짧게 발음할 때는 탐(Tom)이나 핫(hot)에서와 같이「아」라고 발음하지요. 「오」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퍼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첫음절인「아」에 액센트를 주면서요. 포씨블 (pœsible)이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계신데 파써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첫음절인 「파」에 액센트를 주면서요. 비슷한 말로 하러벌(horrible), 테러벌(terrible)이 있습니다.

포우터그 래프 (photograph)와 퍼터그러피 (photography)를 비교해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을 더이해하기 쉽습니다. 액센트가 있다가 없어짐으로써 「포우」는 「퍼」가 되고, 액센트가 없다가 생겨서 「터」는 「타」로 변하고, 액센트가 있다가 없어져서 「래」는 「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쓰이는 해러스(harass)와 허래스먼트 (harassment)도 좋은 예이지요. 허래스(harass)라고 발

음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을 알면 다음 단어들이 어디에 액센트가 있는지 추측할 수 있지요. 컴포우즈(compose)와 캄퍼지션 (composition), 패럴라이즈(paralyze)와 퍼랠러시스 (paralysis), 메이저(major)와 머자러티(majority), 마이 너(minor)와 머나러티 또는 마이나러티(minority)에서 말입니다.

골프에서(요즘은 갈프라고도 발음하지요) 공을 잘 맞추기 위해 힘을 빼듯이, 미국어에서도 액센트없는 음절을 힘을 빼고 약하게 「어」라고 발음한다는 원칙을 뉴잉글런드지명에 적용하겠습니다.

「톤(ton)」으로 끝나는 지명이 많은데「턴」이라고 약하게 발음합니다. 액턴(Acton), 바스턴 또는 보스턴 (Boston), 버얼링턴(Burlington), 캔턴(Canton), 렉싱턴 (Lexington), 뉴턴(Newton), 웨스턴(Weston)이 있습니다

「햄(ham)」으로 끝나는 지명은 대개「엄」이라고 약하게 발음합니다. 더어럼(Durham), 데덤(Dedham), 니이덤(Needham), 윈덤(Windham), 채덤(Chatham), 헝엄(Hingham), 스토운엄(Stoneham)을 들 수 있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프레이밍햄(Framingham)과 벨링햄(Bellingham)은 「햄」이라고 하지요. Waltham은 왈탬이래도 좋고 왈텀이래도 좋습니다. 현 대통령 부인의 성은 라덤(Rodham)이고 자주 들리는 아이스크림 가게는 브리검(Brigham)이지요.

포오드(Ford)도 퍼드라고 짧고 약하게 발음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펏이라고 해야겠지요. 베드포오드 (Bedford)가 아니고 벳퍼드이지요. 박스퍼드(Boxford), 쳄 즈퍼드(Chelmsford), 하앗퍼드(Hartford), 멧퍼드 (Medford), 악스퍼드(Oxford)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끝이 짧고 약하게 발음이 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아너드(Barnard), 하아버드(Harvard), 캉커드(Concord) 등이지요 좀더 정확히 하자면 바아넛, 하아벗, 캉컷이 되겠지요.

「마우스(mouth)」는 「머스」라고 발음합니다. 다트머스 (Dartmouth), 팰 머스 (Falmouth), 포츠 머스 (Ports mouth), 플리머스(Plymouth), 웨이머스 (Weymouth)가 있습니다.

「버로우(borough)」는 「버러」라고 발음합니다. 마말버러(Marlborough), 미들버러(Middleborough), 싸우스버러(Southborough)를 들 수 있고요.

「스테이벌(stable)」은 「스터벌」로 바뀌기 때문에 반스

터벌(Barnstable), 던스터벌(Dunstable)이라 하고, 「포오크(folk)」도 「퍽」이되어 노오퍽(Norfolk), 써퍽(Suffolk)이라고 발음해야 하며, 「랜드(land)」는 「런드」로 발음이 되어 포트런드(Portland), 웨일런드(Wayland)가 되고, 「맨(man)」도 「먼」이 되어 휫먼(Whitman)이 됩니다.

발음하기 힘든 지명을 써 보겠습니다. 빌리커 또는 빌 러리커(Billerica), 보우든(Bowdoin), 칼라일(Carlisle), 체스넛힐(Chestnut Hill), 히이브럴 또는 혜이버릴 (Haverhill), 레민스터(Leominster), 피이버디 (Peabody), 플래스타우(Plaistow), 레딩(Reading), 쌀즈 베리(Salisbury), 윈저(Windsor), 우오우번 또는 우우번 (Woburn), 마아사즈 비녀드(Martha's Vineyard), 머투 언 또는 머튜언(Methuen) 등입니다. 머투언은 「투」에 액 센트가 있습니다.

기차 정거장으로 에일와이프(Alewife)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알레와이프라고 틀리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에일 (ale)과 와이프(wife)가 합쳐진 단어로 생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생선 말이 나온 김에 횟감에 좋은 연어를 곁들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쌜몬(salmon)이라고 하는데 「」 자를 생략하고 쌔먼이라고 해야지요, 샘머(summer), 콤마 (comma)가 아니고 써머, 카머이고요. 모오기지 (mortgage), 리시트(receipt), 인다이트(indict)도 몽땅 다 발음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단어를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호텔 수위트(suite)이지 수우트가 아니고, 싸이카이어트리스트(psychiatrist)이지 싸이키애트리스트가 아닙니다. 싸이키애트릭(psychiatric) 트리트먼트이지만요. 노우 레드(no-lead) 또는 언레딧(unleaded) 휘발유이지 노우 리이드, 언 리이딧이 아닙니다. 납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리이드가 아니고 레드라고 발음하니까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세상입니다. 말도 많이 변하고 발음도 많이 변하는 세상이지요. 옛날 미국에 올 때 들고 온 영한사전이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파렐씨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뉴욕 중앙일보 (위에서부터 8/16/96, 9/16/96, 9/13/96)

한국계 파렡씨 주히원 출마

로드아일랜드서 뉴잉글랜드 시민협 적극후원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는

배기현 기자 한국계 마이클 파렐(32 민

전식계 다이를 되들(32 전 주)씨가 로드 아일랜드주 하원 외원에 출마했다. 하인 어머니 조옥지씨와 미

한인 어머니 조옥진씨와 미 국인 아버지 조지 파뮅씨의 삼 남매 중 장남인 마이클 파뮅씨 는 최근 센트럴 플스시와 콤버 랜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 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구에는 현재 센트럴 풀스 시의원인 파렐씨를 포함 4 명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 경 항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10일 민주당 1차(Primary) 선거를 치른다.

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공화 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다.

때문에 파렐 후보가 민주당 1 차선거에서 다른 3명의 후보를 누톨 경우 오는 11월5일 결선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센트럴 플스시에서 태어난 파펠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유 군에서 3년간 복무했으며 현재 로드 아일랜드 커뮤니티 칼리 지에 재학중이다. 한편 로드 아들 은 파렐 후보를 1 회를 결성했으며 세츠주와 뉴 햄 포함한 '뉴잉글린 시민협회,(회장

원의 밤 행사를

파렐 17표차로 당선 확정

안동혁 기자

트 브로셀 후보를 17표 차로 따 돌리고 당선됐다. 사한다.며 소신을 갖고 정치 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 다.

파켈씨는 한인 어머니 조옥 진씨와 미국인 아버지 조지 파 렐씨의 3남매중 장남으로 현재

한국계 정치인 마이클 파렐(만주) R.I. 주하원의원 사실상 당선

예비선거 승리…공화당선 후보 못내

안동혁 기자

한국계 마이클 파렐씨 (32-민주)가 10일 로드아일랜드 주 센트럴 풀스시와 쿰버랜 드 지역구 민주당 예비선거 에서 주하원의원 후보로 당 선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로써 파펠씨는 민주당이 전통적인 강세인 이 지역구 에서 공화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오는 11월5일 결선투표 없이 주하원의원에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주민 1천1

백여명이 투표했다.

이중 파렐씨가 얻은 표는 3 백47표로 2위인 로버트 브로 셀 현의원보다 30표를 앞섰 다.

10일 오후 현재 부재자 투표 30표에 대한 개표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2위를 차지한 브로셀 의원 은 이지역에서 18년 동안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온 정치 인이다.

파렐씨의 당선은 로드이일 랜드·매시추세츠·뉴램프셔 주톨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



마이클 파렐

역에서 아시안계 출신으로 주하원에 진출한 첫 케이스 이다.

파멜씨는 이날 『이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정치를 원 해 나를 선택한 것 같다』며 『확신을 갖고 해 나갈 것』이 라고 소감을 말했다.

파레씨는 이야! 「지역 한인 회 관계자들과 가능한한 자 주 만나 한인들의 정치력 향 상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야 지역 한인단체인 '뉴잉 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김양길)는 그동안 파 펠씨를 돕기위해 후원회 결 성과 후원의 밤을 갖는 등 활 발한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김회장은 이날 「파렐씨의 당선으로 한인 젊은이들이 큰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 했다.

마이클 파렐씨는 한인 어머니 조옥진씨와 미국인 아버지 조지 파렐씨의 3남매중 장남이다. Advice on Financial Planning

Yon Kim Corkum, Board Member

인생은 여행에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우선 목적지를 결정한 후 세부 일정을 작성하듯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물 샐 틈없는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 계획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까지도 상류 사회의 부유층이나 대규모 사업체들만이 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재정 계획이란 부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정 계획의 개념은 일반화되었다. Empirical Study에 의하면, 재정 계획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유층이므로 다른 면에서보면 부자가 되려면 재정 계획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게된다.

그러면 재정 계획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재정 계획은 경제 개발과 같은 그런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쉬운 표현으로 개인들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벌어오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재정 계획 작성 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환경에서 세법, 유산상속법, 투자 상식, 경제 상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 독립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아 돈을 잘버는 사람은 많으나 재정 독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전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번 돈의 관리는 소홀히 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치 못하고 단지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의 소유자로서 수입을 이내 지출하는 무계획적인 돈관리를 하기때문이다. 재정적 독립을 하려면 이러한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정비해야 한다.

재정적 독립을 방해하는 첫번째 장애물은 세금이다. 미주 생활에서는 연방세를 비롯해 주세, 부동산세, 사회 보장세, 메디케어세, 도로세, 물품세 등등, 세금을 모두 따진다면 우리들의 일생동안 총수입의 약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남은 재산에 대한 유산세로 엄청난 세금을 또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꼭 내야하며 세금 보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세금 보고는 연말에 이미 정해진 세금 액수를 줄이려고, 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실질적으로세금 액수를 감소시키려면 세금 보고 뿐만 아니라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부유층의 사람들일수록 세금을 적게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빈틈없는 재정 계획을 해왔기 때무이다.

재정 독립의 두번째 장애물은 투자에 대한 위험성 관리 (Risk Management)이다. 보통 투자의 위험성이라면 투 자한 원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예를 들어 1975년의 우표 한장 값은 15센 트였는데 1995년부터는 32센트가 되었다. 만약 1975년에 15센트를 금고에 그냥 넣어 두었다가 지금 우표를 사려고 한다면 우표 반장도 채 사지 못할 정도로 이돈의 가치는 떨 어졌다. 이와 같이 돈의 가치는 매년 평균 4%씩 떨어진다. 만약 이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여 3%의 이자를 받으면 그중 1%는 세금으로 내고 2%의 이익이 나오지만. 해마다 돈의 가치가 4%씩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이것을 재정 계획에서는 "돈의 뒷걸음치기"라고 부른다. 그까짓 2%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생각할 지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음 예에서 쉽게 알 수가 있다. 즉. 오늘 10만달러를 투자하여 7%씩 자본을 증식시킨다고 한다면, 30년 후에는 76만1천 달러가 되고 또 매년 9%로 불어난다면 같은 기간 내에 133만달러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작게 보이는 2%지만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돈을 소홀히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얻는 기관이 바로은행이다. 벤자민 플랭크린이 "작은 돈을 잘 관리하면 큰 돈은 저절로 불어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재정적 독립을 하려면 철저한 돈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정적 독립의 세번째 장애물은 부분적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는 증권 브로커와 은행을 통해서 하고, 세금 보고는 회계사를 고용하고, 보험은보험회사에, 법률 문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데, 이모든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아무리 자기 계통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 분야가 연관되고 통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각 가정의 재정 계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종합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며 개인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에 맞게 짜여져야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장애 요소가 있으나 가장 큰 장애 요소의 하나는 아무런 준비없이 그저 막연하게 "잘 살겠지, 잘되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미루는 자기 태만과 무관심이다. 옛말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오늘 하루는 긴 것같아도 인생은 짧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비와 튼튼한 노후생활 대책을 마련키 위해 태만과 안일한 사고 방식에서 깨어나, 내일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철저한 재정 계획을 지금부터 과감히 실천에 옮기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Life has often been compared to a journey. As the process of planning a journey involves selecting a destination and establishing an itinerary, preparing for a successful journey of life also requires a careful planning. The concept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has been perceived as a tool for the wealthy until the late 1970's. Public awareness increased in the early 1980's after the inflationary roller coaster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 era when Certificates of Deposits were yielding double digit numbers, giving a false sense of financial wellbeing, in reality, the actual returns were only around 2% when netted against equally high double digit inflation factor.

Empirical study enables us to ascertain that people who do financial planning are more likely to attain their financial success than those who do not. Since careful planning helps you attain your financial goals, one can conclude that in order to achieve your financial success, you need a financial plan. What then is financial planning and how can one apply financial planning to everyday life? Financial Planning is a strategy to help people overcome their financial road blocks and attain financial independence. It is a common sense approach utilizing the time tested quintessential factors for financial success such as; current market climate, a Nobel Prize winning Asset Allocation theory, income and estate tax laws, in an effort to control the roadblocks that interferes with achieving financial success. Examples of roadblocks are omnipresent market risks, the gigantic appetite of income and estate tax beast, loss of purchasing power due to inflation and human mortality. To attain the most mileage from one's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planning is the most powerful tool that is available today.

I would like to discuss a few of the road blocks that interferes with achieving financial success.

The first is taxes; average Americans pay about 40% of their earnings to federal and state income taxes, real estate taxes, sales taxes, FICA and Medicare taxes during their lifetime. After their deaths their heirs are again faced with the final death and estate taxe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some high profile people have passed away thinking their heirs will be well off with the large estate they left behind. In reality without proper estate planning, only a very small portion of the estate went to the heirs. The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most people think of tax as an inevitable beast where in reality with careful tax planning one can effectively minimize their taxes

through deferral, shifting, gifting, sheltering, credits and tax free investments.

The second is risk management; no matter where you put your money, there is a certain element of risks, for example, people feel very safe about putting their money in a bank savings account. If the savings account yielded 3%, when you take away 4% inflation and 1% taxes, there is a loss of 2%. This is a prime example of loss of a purchasing power people often ignore. Then what is so important about 2%? If you invest \$10,000 at 7% today, it will grow to \$76,000 in 30 years, and at 9% it will grow to \$133,000. The difference of \$57,000 is the power of compounding effect.

The third roadblock is fragmented planning; most people go to stock brokers for their investment, CPA for tax advice, lawyer for legal advice. In many cases this provides a quick short term remedies for their immediate issues. However no matter how competent each professionals are in their own field if they don't work in harmony with each other, what seems to be the best solution in one area today may actually create a liability in other areas tomorrow and even today. The problem is that very few professionals possess adequate knowledge outside their field to give prudent advice. A comprehensive financial planning process addresses all six key areas as identified by the College of Financial Planning and prevents fragmented planning.

There are many other road blocks to financial freedom, but the most insidious of all the road blocks is PROCRASTINATION. Of all the road blocks procrastination is the main cause of financial failure. The life slips by us faster than one can imagine while we meant to plan for our future someday. For the 90% of the population, that someday never comes. It is astounding fact that most of us spend more time planning for our two weeks vacation than for our future. When we think of it, we work so hard for our financial success, but only give it a passing thought.

Is it a time to set aside a few hours and plan for our future now?

김연숙 이사는 현재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에서 미국내 8천명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고위층 1%에 해당하는 Advanced Group 재정 계획 전문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상을 포함한 각종의 수상 경력과 각종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시민협회 활동

Activities of the League: Pictures



95년 10월: 제5차 정기 총회를 마치고 함께 한 임원, 이사



95년 10월 : 제5차 정기 총회를 마치고 함께 한 임원과 연사(김일평 교수, 홍정화씨)



96년 4월: 시민권 시험 주관. (서류 작성을 돕고 있는 임원들)



96년 8월: 로드아일랜드 주 하원의원 마이클 파렐 후보 후원 파티



96년 8월: 제22차 정기 이사회 (조봉준 이사댁)



96년 8월: 위싱톤주 부주지사 폴 신 후보의 후원 파티

Activities of the League: Newspaper Articles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지원키로

후부후워 기금 무금

민협회 회지발간 원고모집

회에서는 제6호 현회 을 위한 한인여러분 1를 모집하고 있다. 해 시민협회의 활동 흥보함으로써 보다 들의 참여를 모색하 주류속의 한줄기로서

박간부수는 3,000부로 예정하고 있고, 5호보다 훨씬 개선된 체 재를 갖출 것이라고 한다.

발간은 10월초 예정으로싸 원고마감은 8월31일이며 송부 처는 편집위원장 김명기(전 화:603-659-6129. 팩스:603-659-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11월 선거에서

첫날, 3천2백덕

미국 정치 참여를 통한 한인 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

<u>린턴 대</u>통령. Weld주지사 지원하기로

한인 미국시민협회

한인2세, 주하원의원 출마

되었다

또하이날 현회지 발가과 현회의 원 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신형 컴퓨터 구 견을 표시하였고 두번 비토한 바있다. 최근 선거에 따른 정 치적 압력에 의해 월페어 법 을 싸인하였으나 영주권자에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회작에 김양길 • 고문에 김은한씨

시민협회소식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 협회 제 22차 정기이사회 개최

11

71

주요 안건온 귀책에 관한 작 1993년 · 씨는 개인 김 대해에게 출하여 이사

뉴잉글 장 김양길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랜드 차이 주하워의 제22차 정기이사회 개최 클 파렐(N 모금후원

뉴잉글랜드 하이미국시민형히 (회장 김양길)의 제22차 정기이 사회가 지난10일(토) 조봉준 이 사 자택에서 개최되었다.

세로, 현지 재무보고에 이유 회장보고에 시의 시의 서 시민권취득 시험의 문제점과 장으로 확

파렐씨가 출마한 지역은 센트랄 풀 즈와 콤비랜드 하반지역으로 로드아일

기금을 전

조오지 피

파레씨

향후 조차들이 논의되었으며 요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 | 로드아일랜드에서 주하원의 | 일(토) 오후 7시에 케임브리 싱턴주에서 부지사로 출마한 ₹ 협회(회장 김양길) 이 제 신 후보의 공식자지와 후원 디니 정기이사회가 8월 165 파티 개최, 로드아일랜드에서 구 조봉준 이사자택에서 기 하원으로 출마한 한인2세인 마른 를 파렐의 모금파티 참석동이 는 **었다.**

및 클린턴 지지, 여타 지역 젯점과 향우 조치득이 는

재무보고에 이은 회장 기다 반진으로 제경력과 에서 시민권 취득 시험

하인미국 시민협회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워싱턴주 부지사 폴 신후보 후원 디너파티 로 지출하

로드아일랜드 주하원의원 파렐후보

시민협회서 공식지

박사포원모금파티 Will in

폴신 후원모금파티 풀

에서 지난 8월30일 열었다. 사진 폴신 후보, 김양길 시민회장, 김성 민권취득 시험의 문제점과 향후 조 이 논의되었으며 워싱턴주에서 부 로 출마한 폴신 후보의 공식지지! 원 디너파티 개최, 로드 아일랜드 원의원으로 출마한 한인2세 마이네 텔씨의 선거운동 참여 방안 등이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 회 (회장 김양길)는 오는 11월 전 거에서 대통령에는 클린턴 현 대 통령(민주당), 메 사추세츠 의원에는 웰드 현 주지사 (공화

시민협회 헌장은 당에 관계 없 이 하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 치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고 있는데, 시민협회는 94년 주지 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서 웰 드와 케네디를 지지한 바 있다.

당)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중 소수 인종과 이민자들의 입장을 지지 하여 왔는데, 현 공화당의 웵페어 개천이에서 이민자 권익을 제하 하는 저항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 였고 두 번 비평도 한 바 있다. 최근 선거에 따른 정치적 압력에 의해 왤케어 법을 싸인하였으나. 영주권자에 관하 부분을 제거하 는 법안을 선거 후 의회에 상정 하겠다고 하였다. 메시추세츠 상 원 후보로 많은 하인들이 민주당 의 정강을 지지하는 점에서 케리 상원 의원의 지지가 제기되었으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왨도록 지지하기로 하였다.

첫째, Affirmative Action과 이민 자의 권익에 대해 케리 의원의

(와싱톤-보스톤 투데이, 중앙일보, 코리안 보이스, 한국일보)

정견보다도 웰드 주지사의 정견 이 민주당 쪽에 더 가깝다. 웰드 주지사는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 고 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공언하였으며, 90년 취임 초 Asian-American Commission 을 설치 하고 부인인 수잔 웰드 여사를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아시아인 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며, 작 년부터 이민자들 중에서 미국 사 회에 공허하였거나 본토이으로서 이민자들을 위해 일하 사람들을 매년 수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 고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에 대한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시의 시의원으로 금 73선거구인데 4명의 민주당 후보 11의 위원장으로 활약 중 노장의 취약 하원의원을 제치

5용지씨와 아버지 조

사이에서 태어난 한

고 시의 민주당 공천후보로 정식 원급의 수 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 면 케리 의원은 웰페어 개정안에 2 BH.

의하였다.

찬성하였다. 등대, 웹트 주지사는 하인들을 포함해 많은 아시아인들을 주정 부 또는 위원회에 임명하였다.

셋째, 우리 한인 업체의 주종 율 이루는 세탁인 **협회**는 주지사 의 협조 지시에 따라 주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민협회는 오는 선거를 맡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 이며, 많은 교만들이 선거에 참여 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다.

것이라고 대동하고 뜨거운 성 1C1.

한다나파 머넓게 소 192101 8 출마지역은 로드아일랜드의 7시 정각

부부동반 고 자녀분 며 결선 후보의 부 1 H. Shin l선에서 승리**하면** 주길 바라 시민협회

(508)691

내하는 과행호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는 젊은 한인2세

모드아일랜드주의

혜택을 줄알 경우 주정부에서 보 96년 7월, 8월, 9월 3달간의 신문 기사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nded on October 19, 199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 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 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 전에 기여한다.
-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 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희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희는 정희원, 준희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 2. 준회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

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올결의할 수 있다.

-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회 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 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 면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 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 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기능

-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화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추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 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 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 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 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사무총장 1명
- 4. 재무 1명
- 5. 대변인 1명
-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 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 2. <u>사무총장</u>,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임기

-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 령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 강만 재임한다.
- 4. <u>사무축장은</u>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u>사무</u> 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된다.
-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 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 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u>2년</u>으로 하다
-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 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 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u>사</u> 무총장이 겸임한다.
- 6. 감사는 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중빙 서류 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u>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작여 임기</u> <u>를 재임한다.</u>

개정

-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Article I General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Article II Membersbip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Article III Organization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5) In an emergency or necessa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u>Executive Director</u>,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u>Executive Director</u>,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 (4) The <u>Executive Director</u>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u>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u>
-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1996년 10월 19일, 제2차 헌장 개정에 대하여

1. 개정 제안 사유

- ① 1996년 6월 8일에 개최된 제21차 이사회(회의록 13항)에서 "협회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유급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김문소 이사장의 의견에 따라 사무총장을 신설하고 첫 사무총장에 김명기 출판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하였다"는 의결에 따라, 유급 사무총장을 위한 헌장의 개정이 필요해짐.
- ② 96년 7월 16일 개최된 제2차 임원희/상임이사회에서, 회장단 및 이사장단의 현행 임기가 과도한 업무에 너무 길 다는 제안에 따라, 임기 단축의 개정이 필요해짐.

2. 개정 내용 (위의 본문에서 밑줄 쳐진 부분)

① 사무총장의 임무는 현행 총무의 임무에 代하며, 이에 준하여.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3항에 총무 1명 대신 사무총장 1명,

「제13조: 희장단의 선출, 2항에 총무 대신 사무총장,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4항에 총무 대신 사무총장, 또한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제18조: 이사의 임무」 5항에 총무 대신 사무총장으로 함.

② 회장단 및 이사장단의 임기를 각각.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항의 3년 대신 2년,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2항의 4년에서 2년으로 하며.

「부칙」에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를 삽입함.

본 개정안은 1996년 8월 10일의 제22차 이사회에서 의 결되어, 이에 1996년 10월 19일의 제7차 정기 총회에서 의 승인을 추천함.

ist of Offic	cers				(As of Oct. 19, 199
			Home Tel #	Office Tel #	Fax #
회장	김양길	President	182 Olympic Lane, N	J. Andover, MA 01845	H:(508) 687-8942
, 0		Kim, Yangkil	H:(508) 691-5108	O:(508) 623-2103	O:(508) 623-2602
부회장	최홍균	Vice President	11 Bartkus Farm Rd.	, Concord, MA 01742	H:(508) 371-1217
		Choi, Hong Kyun (Ph.D.)	H:(508) 369-0351	O:(617) 981-4457	O:(617) 981-0122
부회장	조봉준	Vice President	10 Endicott Rd., And	lover, MA 01810	
	7117 77	Cho, Bong June	H:(508) 475-2317	O:(508) 535-6936	F:(508) 475-2317
무총장	김명기	Executive Director	2 Lamprey Lane, Lee	e, NH 03824	H:(603) 659-5488
		Kim, Michael Myungki	H:(603) 659-6129	O:(603) 659-4845	O:(603) 659-5488
H무	이현주	Treasurer	199 Johnny Applese	ed Lane, Leominster, MA 014	53
		Yi, Hyon C.	H:(508) 840-3651	O:(617) 944-2442	F:(617) 944-2772
내변인	함성기	Spokesperson	51 Congress St. Apt.	#3, Nashua, NH 03062	7 "
		Steve Ham	H:(603) 881-9587	O:(603) 598-7276	
]사장	김문소	Chairperson	10 Cardinal Lane, Ar	ndover, MA 01810	H:(508) 470-3232
		Kim, Moon So (D.V.M.)	H:(508) 475-3534	O:(508) 851-3626	0:(508) 851-6408
니이사장	박대위	Vice Chairperson	107 Scotland St., Hir		
1 1 0	1 - 4 - 1	Park, David	H:(617) 740-1286	O:(617) 740-8032	F:(617) 740-8032
사	정수일	Auditor	15 Locker St., Wayla		
11	012	Chung, Sooil	H:(508) 655-2067	O:(508) 875-9111	
사	최영훈	Auditor		Lexington, MA 02173	
	102	Choi, Yung Hoon	H:(617) 861-6068	O:(508) 467-2815	
구권자 등	록 추진	위원희 REGISTRATION & C	AMPAIGN COMMITTE	E	
1원장	최낙철	Chairperson, Committee	12 Springdale Rd., L		
1 6 0	-116	Choi, Steve	H:(617) 860-9426	O:(617) 878-7015	
원	박필수	Member, Committee		Tyngsboro, MA 01879	
	1 6 1	Park, Phil S.	H:(508) 649-6595	O:(508) 649-4177	
1원	윤익중	Member, Committee	790 Hilldale Ave., Ha		
	4 10	Yoon, Ik Joong	H:(508) 373-4446	O:(508) 689-3122	
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I	EE		
원장	정석호	Chairperson, Committee	65 Broadway St., Ne		
		Chung, Paul S.		O:(800) 473-1922	F:(617)267-5009
원	김기석	Member, Committee	1 Terrace Rd., Westo		
		Kim, Kisuk	H:(617) 899-3453	O:(617) 576-6840	
원	안병학	Member, Committee	50 North St., Andove		
1 1 4 1		An, Byung Hak	H:(508) 689-9546	O:(508) 749-9904	F:(508) 749-9904
원	이경해	Member, Committee	239 Fremont St., Tar		
		Dong, Kay	H:(508) 824-4080	O:(800) 867-9000	F:(508) 828-1585
동보/출판	· 위원회	COMMUNICATIONS & PUR	BLICATION COMMITTE	EE .	
1원장	김명기	Chairperson, Committee	2 Lamprey Lane, Lee	e, NH 03824	H:(603) 659-5488
	Ti .	Kim, Michael Myungki	H:(603) 659-6129	O:(603) 659-4845	O:(603) 659-5488
1원	박경원	Member, Committee	127 Ridge St., Winch	nester, MA 01890	and the second
	, ,	Park, Kyung Won (M.D.)	H:(617) 721-1260	O:(617) 667-3112	F:(617) 667-5013
원	김연숙	Member, Committee	100 Kensington Dr.,		
		Corkum, Yon Sook Kim	H:(617) 821-5825	O:(617) 849-0980 x172	O:(617) 848-3617
			, ,	.a. e.	a 10 ""
너치 화도	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	IITTEE		
3시 글 3 1원장	김기자	Chairperson, Committee	23 Wright Farm, Cor	ncord, MA 01742	
E 8	실기사	Manperson, Committee	a wright Pathi, Col	ROIG, MITOT/ 12	

		Kim, Kija	H:(508) 369-6731 O:(617) 354-0100 x212	F:(617) 868-6855
위원	이강필	Member, Committee	Aspen Systems Inc., 184 Cedar Hill St., Marlboro, M.	
oì oì	김성인	Lee, Kang Pil (ph.D.) Member, Committee	H:(508) 443-7647 O:(508) 481-5058 x11 192 Parker St., Maynard, MA 01745	F:(508) 480-0328
위원	심장인	Kim, Sung In	H:(508) 461-0321 O:(617) 338-1480	
		idii, odiig iii	11.(500) 101 0521 0.(017) 550 1100	
이세 지원	위원희	SECOND GENERATION SUPP	PORT COMMITTEE	
위원장	한석훈	Chairperson, Committee	165-U. New.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	1
		Han, Kenneth S. (Esq.)	H:(617) 272-7692 O:(617) 935-4620	F:(617) 935-4187
위원	진동호	Member, Committee	27 Antone Drive, Norton, MA 02766	E ((01) 00 / 507/
റിറി	시기취	Jin, Donald	H:(508) 226-3116 O:(401) 884-6300 27 Naskwonicut St., Sharon, MA 02067	F:(401) 884-5276
위원	이정현	Member, Committee Jane Sullivan (Esq.)	H:(617) 784-9570 O:(508) 223-5509	F:(508) 223-5545
위원	방선욱	Member, Committee	431 Bay Rd., Easton, MA 02375	1.(500) ==0 55.05
., .	The Control	Gregory Pang	H:(508) 230-2757 O:(617) 239-8420	F:(617) 235-8506
국적 위원		NATIONALITY COMMITTEE		
위원장	고일석	Chairperson, Committee	5 Cityview Circle, N. Providence, RI 02911	E (401) 044 1106
ol ol	A) cd +	Koh, David I. Member, Committee	H:(401) 353-6180 O:(401) 944-1110 62 Yorkshire Rd., Dover, MA 02030	F:(401) 944-1106
위원	이영호	Lee, Young Ho	H:(508) 785-0925 O:(617) 547-7898	F:(617) 547-2077
		ice, roung rio	1.1(300) 707 0725	()>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	MITTEE	
위원장	박경수	Chairperson, Committee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Park, David KyungSu (Esq.)	H:(617) 964-1140 O:(617) 973-3536	
위원	노명호	Member, Committee	325 Western Ave., Lynn, MA 01904	
റ്റ് ചി	ור (כונו	Lowe, Myeong Ho Member, Committee	H:(617)595-4065 O:(617) 648-4783 298 Ocean Ave., Marblehead, MA 01945	
위원 제	시카 리	Jessica Lee	H:(617) 639-1847 O:(617) 639-1847	
		Jessieu Dee	11.(617) 657 1617	
인권 옹호	위원희	CIVIL RIGHTS COMMITTEE		
위원장	정용훈	Chairperson, Committee	80 Central St., Andover, MA 01810	
		Jung, Yoang Hoon (Esq.)	H:(508) 475-3124 O:(617) 727-9305 x202	
위원	임병규	Member, Committee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Lim, Byoung Kyu	H:(617) 942-0624 O:(617) 664-5527	
시미귀 치	든 아내 9	임원희 CITIZENSHIP COMM	ITTEE	
위원장	김성군	Chairperson, Committee	Gargill, Sassoon & Rudolf, 92 State St., Boston, MA	02109
नास् ७	404	Kim, Song-Kun (Esq.)	H:(617) 825-1115 O:(617) 523-7700	F:(617) 227-0313
위원	김한수	Member, Committee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ė
		Kim, Hansoo	H:(617) 275-2409 O:(617) 499-1433	F:(617) 864-1293
위원	이동익	Member, Committee	26 Rockyhill Road, Andover, MA 01810	E (500) (70 0000
		Lee, Dongik	H:(508) 470-1793 O:(508) 470-4793	F:(508) 470-8232
지역 간사		REGIONAL REPRESENTATIVI	FS.	
		Rhode Island Rep.	46 Beechwood Dr., Cranston, RI 02921	
RI予	이천각	Lee, Chun Kak (M.D.)	H:(401) 823-8343 O:(401) 785-2660	
NH주	김 섭	New Hampshire Rep.	5 Woodmeadow Drive, Salem, NH 03079	
,		Kim, Sub	H:(603) 893-5269 O:(617) 427-3044	
ME予	채도경	Maine Rep.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P (007) (0/ 0077
		Chai, Dou Kyung (M.D.)	H:(207) 622-9757 O:(207) 623-3515	F:(207) 626-9277

СТ	'주	이상원	Connecticut Rep. Lee, John Sangwon (M.D.)	99 Pigeon Rd., Willima H:(860) 456-4347	ontic, CT 06226 O:(860) 456-1132	
고	문	김은한	Advisor	23 Solomon Pierce Rd	., Lexington, MA 02173	
			Kim, Eun Han (M.D.)	H:(617) 861-0437	O:(617) 665-8912	F:(617) 861-0437
고	문	백 린	Advisor	6 Edwin Street, Brookl		
			Paik, Lin	H:(617) 734-9178		
고	문	박경민	Advisor	41 Laxfield Road, West	ton, MA 02193	
			Park, Kyung Min (M.D.)	H:(617) 899-5009	O:(508) 879-7111	
고	문	송병혁	Advisor	8 Pleasant St., Salem, N		
	_		Song, Byoung-Hyuk (Rev.)	H:(603) 437-8757	O:(603) 898-4176	
고	문	김 철	Advisor	8 Fresh Pond Lane, Ca	mbridge, MA 02138	
			Kim, Joseph Chul (M.D.)	H:(617) 661-0761	O:(617) 246-4333	
고	문	임원준	Advisor	23 Watson Rd., Belmon	nt, MA 02178	
	_		Yim, Won Joon (Rev.)	H:(617) 489-6107	O:(617) 647-0190	F:(617) 647-0385
고	문	김일평	Advisor	61 Hillyndale Rd., Stor	rs, CT 06268	
	_		Kim, Il-Pyong (Ph.D.)	H:(860) 429-2428	O:(860) 486-3456	
고	문	전중현	Advisor	37 Autran Ave., N. And	lover, MA 01845	
	_		Chun, Walter C. (Ph.D.)	H:(508) 689-3990	O:(508) 470-0621	F:(508) 470-1998
고	문	전주서	Advisor	75-83 Cambridge Pkwy	y PH-5, Cambridge, MA 021	142
	_		Chun, Chu Suh	H:(617) 621-1696	O:(617)	
고	문	박석만	Advisor	156 Beacon St., Andov	ver, MA 01810	
			Park, Suk Man	H:(508) 475-8627	O:(508) 686-9547	F:(508) 687-6255
고	문	이재신	Advisor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Lee, Jay	H:(508) 923-0031	O:(617)	
고	문	뉴잉글랜	드 한인회장 (자동 추대)			

200	00년도	99년도	98년도	97년도	당연직 이사(회장단)
'최낙철	김성인	이정현	*김명기	*정석호	김양길('98)
정수일	박경원	방선욱	*고일석	*김성군	최홍균('98)
김기자	김연숙	안병학	*정용훈	*최영훈	조봉준('98)
한석훈	노명호		*박경수	박필수	이현주('98)
윤익중	이동익		제시카 리	김기석	김명기('98)
이경해	진동호		이강필	임병규	함성기('98)
			김문소(이사장)	김한수	
			박대위(부이사정	}) 이영호	

- 이름 앞에 *표는 신임 감사 또는 신임 분과위원장으로 임기는 2000년임(단, 정용훈위원장은 유임으로 99년, 김명기위원장은 유임으로 98년임)
- 고문 추대 (자동):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해당 임기 기간)
- 지역간사 임기: 2000년 (이천각, 김섭, 채도경, 이상원)

Financial Report

Hyon C. Yi, Treasurer

회계 기간: 9/20/95-9/18/96

	BALANCE SH	<u>EETS</u>	CASH DISBURS	EMENTS:		
ASSETS			Advertising	\$2,080.00	Licenses & Fees	\$100.00
CURRENT ASSET	rs .		Bank Charge	s \$134.16	Office Expenses	\$575.09
Cash		\$4,203.06	Banner	\$120.00	Postage	\$503.68
Accour	nt Receivable	\$0.00	Banquets	\$1,253.00	Printing	\$4,000.00
Equipr	nent	\$3,210.80	Books	\$394.69	Seminar	\$3,925.00
TOTAL	. ASSETS	\$7,413.86	Software	\$300.00	Taxes-Other	\$15.00
JABILITIES ANI	FUND BALANCE		Contribution	\$2,972.00	Travel	\$905.63
CURRENT LIABI	LITIES		Gratuity	\$400.00	Miscellaneous	\$100.00
Accour	nt Payable	\$0.00	Total Expenses		\$17,778.25	
TOTAL	LIABILITIES	\$0.00	NET INCOME		\$3,446.03	
UND BALBEG	INNING	\$3,996.20	Ending Cash Ba	lance 9/18/96	\$4,203.06	
NET INCREASE(DECREASE)	\$3,417.66(*)				
UND BALANCE	-ENDING	\$7,413.86				
TOTAL LIAB. & 1	FUND BAL.	<i>\$7,413.86</i>				
			년도별 입금 내의			
회계 년도	8/31/91	9/30/92	10/31/93	9/17/94	9/19/95	9/18/96
회비	\$1,660.00	\$420.00	\$740.00	\$450.00	\$900.00	\$1,140.00
이사회비	\$1,600.00	\$500.00	\$1,300.00	\$1,500.00	\$2,500.00	\$2,200.00
찬조및 기타	\$640.00	\$720.00	\$615.00	\$1,000.00	\$1,704.18	3,060.00
광고, 후원		S2,400.00	\$750.00	\$1,500.00	\$2,270.00	3,750.00
은행이자				\$17.33	\$40.04	\$52.28
기타					\$	\$11,022.00
합계	\$3,900.00	\$4,040.00	\$3,405.00	\$4,467.33	\$7,414.22	21,224.28
	('96 기타 내역:	시민권 \$6 802 00	AAUD \$595 00	기금모금 \$3.6	25.00)	

편집 후기

1996년은 시민협회가 보다 큰 발전을 위해 탈바꿈을 하고 있는 해인 것 같다. 지난 해 11월 회장 대행으로 시작해 금년 6월부터 3대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양길 회장님, 시민권 교육과 시험을 주관하시며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 많은 일을 맡아서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였으며, 82명이 시민권 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시민협회는 이 지역 교민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인식을 더욱 굳게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본다. 지난 2년 반동안 협회의 사무 일을 맡아 해 오면서 항상 힘에 겨워 부족함을 느꼈는데, 금년 6월부터 김명기사무총장님이 이를 맡아 해 주시면서 일이 더욱 순조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회원 수가 훨씬 늘어야 된다. 회비를 내는 회원이 1,000명이 되면 우리도 미국 정치인에게 큰 소리를 할수 있을 것이다.

협회지는 협회의 얼굴이다. 지난 5호부터 한글, 영어를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대외 홍보용으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에 원고를 보내 주신 여러분들과 광고로 협조해 주신 여러 단체, 교회, 절, 사업체에 모두 감사드린다. 매년 가을 회지 발간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김명기 사무총장님, 여러 번의 편집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양길 회장님, 조봉준, 최낙철, 정석호, 함성기, 김성군 이사님들, 영문 번역을 해 주신 박경원 이사님, 매번 가정을 열어 음식을 대접하며 편집회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김계숙 이사장 사모님, 그리고 협회 시작부터 6년 동안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받쳐서 오늘의 시민협회가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신 김문소 이사장님의 끈기, 힘, 그리고 덕에 감사드린다. (최홍균총무)

이현주 공인회계사

C.P.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법인설립과 해체 회계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License 신청업무

응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523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tel: (617)944-2442 fax: (617)944-2772 14 Monument Square Leominster MA 01453

tel: (508) 534-8801 fax: (508) 840-3651

미주동포 전국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276 5th Avenue, #806, New York, NY 10001 Tel:(212)679-3482 Fax:(212)481-9569

National Board

Rev. Dr. Syngman Rhee President

Joseph J. Cho (CA) Vice President

Prof. Jung Ha Kim (GA) Vice President

Haeng Woo Lee (PA) Vice President

Joseph H. Kim, Esq.(NY) General Secretary

Min Yong Lee (MA) Treasurer

OBJECTIVES

- 1) To help safeguard the civil rights of U.S. citizens and residents of Korean Descent;
- To promote Korean culture in the U.S. and to help articulate the shared values of Korean Americans as a community;
- To promote cooperation and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other racial or ethnic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 4) To contribute to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1990 - 1996 창립 6주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2 Railroad St., Andover, MA 01810 Tel.:(508)749-9904

회장: 안병학 (508)749-9904 이사장: 한윤영 (603)622-8883 부이사장: 김영기 (508)975-0385

고문: 인준식, 김 섭, 김수환, 신고희, 오수택, 이문봉, 정수일, 구좌삼

부회장: 김성군 재무: 현인복

재무: 현인복 문화: 장병준, 이승주 사무총장: 김성환

정보: 최 순 선외: 김종효

1990 - 1996창립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미 한국 과학 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The Korean American Scientist & Engineers Association New England Chapter 1996-1997 (25th Term) 83 Mill Street, Westwood, MA 02090 Tel.:(617)769-3426

회장: 신재균

차기 회장: 조차희

충무: 고재상

섭외: 현덕환

편집: 한범이

조직/재무: 이준수

학생: 이래나

전기/전자: 신상철

생명과학: 김성우

건축: 최동호

섬유: 이충시

화학: 심재철

고문: 강경식, 김정완, 김희준, 김용구, 김 영, 이희규, 이강원

이충시, 임인학

감사: 최도철, 도운회

시민협회의 발전과 회지 6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노인회

25 Chestnut Court, Andover, MA 01810 Tel.:(508)470-2588

> 회장: 안준모 (508)470-2588 부회장: 백 린 (617)734-9178 부회장: 양배상 (617)861-0226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노인회 임원 및 회원 일동

뉴잉글랜드 한인 드라이클리너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325 Western Ave., MA 01904 Tel.:(617)648-4783

희장: 노명호 (617)648-4783 부희장: 윤익증 (508)689-3122 부희장: 김경무 (617)254-9576 이사장: 허영욱 (508)343-9715



시민협회의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민주 평화 통일 자문 위원회 (뉴잉글랜드 지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New England Chapter (17th Term) 44 Swallow Drive, Newton, MA 02162 Tel.:(617)965-3095

지회장: 김인수 (617)965-3095

위원: 김창덕, 김인수, 김수한, 김양길, 남궁연, 조남규

조봉준, 이천각, 최승훈, 최도경, 이의철

1990년 - 1996년 시민협회의 회지 제6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Tel.:(617)427-8576

> 회장: 안병권 (617)427-8576 이사장: 서규택 (508)478-7564

> > 사무총장: 김영기 수석부이사장: : 원덕수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내슈아 한마음 장로 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목표 (형 2:42)

- 1. 말씀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 2.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 3.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마음 교회 성구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마음을 품어 (별 2:2")

본교회 집회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30

금요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00

매월 구역 예배

한마음 한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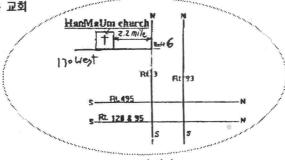
주일 오후 12:30

유년/중고등부

주일 오후 1:30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 목사: 박계칠 (Rev. Gye Chil Park, Pastor) 어린이/청년 지도: 박요한 전도사, Grace 문 전도사



교회 위치

Rt.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603) 889-4020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 888-8040

뉴햄프셔주의 최초 한인교회

뉴 버 드 연 합 감 리 교 회

The New Bud United Methodist Church

28 Cataract Avenue., Dover, NH 03820

말씀위에 성숙하는 교회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회 Ministry for Christian Education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

Ministry for Church Leadership

2세들을 양육하는 교회

Ministry for Second Generation

지역 사회를 돌보는 교회

Ministry for Community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Ministry for World Mission

주일 예배: 오후 1시

담임목사: 한 상 신 (Rev. Sang Shin Han, Pastor)

전도사: 김사무엘 최정열 김선희 김엘리자베스

Mailing Address:

555 Ocean Road, Portsmouth, NH 03801-6021 대표전화 (603) 433-7475

미주 한민 에수교 장로회 **보스턴 장로 교회**

집회안내

주일 낮 예배(한국어) 주일 오후 2시 *영어 예배부는 독립하여 9:30AM에 예배.

장소: New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88 Tremont St., Boston, MA 02108, (617)725-3344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장년 성경 공부 주일 오전 6시 주일 오후 1시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7시30분

유치, 유년부

주일 오후 1시

중, 고등학생부

주일 오후 1시

대학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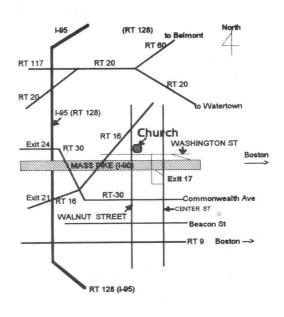
금요일 오후 7시30분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30분

각 구역 성경 공부

금요일 오후 7시30분



담임목사: 전덕영

218 Walnut St., Newton, MA 02160

(617)965-5002, 0297(팩스), 964-7964(전화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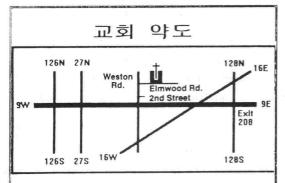
보스톤 사랑의 (Wellesley 소재) 辺刻

Grow Together With Us!

주일 대에배 : 매주일 오후 1시30분

아가페 찬양 선교단의 영감있는 찬양과 이의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앙 상담 전화 (617)661-7532



보스톤 사랑의 교회

Boston Korean Love Church 42 Elmwood Rd. Wellesley, MA. 02181 Tel.(617)661-7532 Fax.(617)576-1657 담임목사 : 이의철(Rev. Eui Chul Lee)

예 배 안 내

주일예배:주일 오후1시30분

일 학 교:주일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 수요일 오후 8시 한 국 학 교:주일 오후 12시 45분 새 벽 기도 회: 매주 토요일 6시 철 야 기 도 회: 매월셋짜금요 오후8시 구역 성경 공부 : 각 구역별로 모임 지도자성경공부 : 매주 월요 오후 8시 부부 성경 공부 : 매주 화요 오후 8시 대 학 청 년 부 : 금요 오후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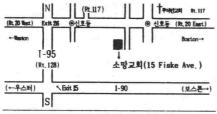
청 장 년 부: 매월넷짜금요 6시30분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15 Fiske Ave. Waltham, MA 02154 Tel: (617) 647-0190 Fax: (617) 647-0385



교호(字)大



I-95, Exit 25으로 나와서 Rt. 20 East(Boston 방향) 쪽으로 I 마일 지점 Exit 26으로부터 두번째 신호등 직전에 우희견을 하면 교회가 보입니다

OILAH .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매일)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장년 성경 공부	:오전 10:00 (주일)
한글학교	:오전 10:00 (주일)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00 (매 금요일)
여전도회 성경공부	:오전 11:00 (매 수요일)

*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약 20분간 인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 교회: (617)647-0190 목사관: (617)489-6107

사용 선교회 (60세이상) (60세이상) 등 백왕 등 경 나동 이 여행

Directon:

지하철(T)RED Line, Davis Sq. 에서 College Ave(서쪽방향)로 200 m 거리, 왼쪽 석조교회건물.교회입구는 Chapel St. (건물측면입구)를 이용하세요

보스톤한인감리교회

집 회 안 내

주일1부예배: 주일오전 8:00 주일2부예배: 주일오후 1:00 중 고 등 부: 주일오후 1:00 아동주일학교:주일오후 1:00 성 가 대 : 주일오전 12:00 새벽성찬기도: 월-금새벽6:00 속 회 : 매주중 회원가정 장년성서공부:매주일 12:00 통일전도기도:매일정오10분 성 가 대 : 주일오전 12:00 철야기도회: 금요일11:30pm 온교우성찬: 매월첫째주일

보스톤감리교회 한국학교

주일 낮 12:00부터

토요일특강및특별활동

교장: 박에스더 H(617)928-1023 B(617)267-3633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F BOSTON 14 CHAPEL ST. SOMERVILLE, MA. 02144

담임목사: 정 인경 협동목사: 김 정수 Tel: (617)254-5746 Fax:(617)782-4095 Bef:1-800-691-2617

장로: 이 인호, 최 창섭, 정 석호, 기획위원장: 이 훈재 지휘: 신 현중 반주: 박 정원, 이 동은

보스톤 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 (U.S.A.)



Founded in 1953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146 Tel (617) 739-2663, Fax (617) 739-1366

담임목사 : 이영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주일에배(Sunday Worship Service)

 주침액배
 Korean Service
 호전
 11:30 - 12:30

 유년부액배
 Children's Service
 호전
 11:30-12:00

 무고부부액배
 Youth Group Service
 호전
 11:30-12:00

 영어에배
 English Service
 호주
 1:30-3:00

교획학교 성경공부 (Church Bible Study)

 재신자반
 New Believers' Class
 호면 10:30-11:10

 항년성경우
 Adult Bible Class
 호전 10:30-11:00

 정보부
 Young Adult Group
 호구 7:30(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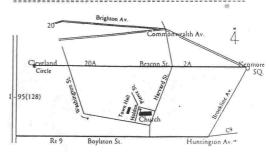
 대학부
 College Group
 호구 7:30(급)

 항고통부
 Youth Group Class
 호구 12:00-12:30

 용신부
 Children's Classes
 호구 12:00-12:30

 영어에배부
 English Bible Class
 (Fri.)7:30-9:00PM

보스론 환인 학교 (The Boston Korean School) 일요일 오전 9:15-11:15 한국어,한국의 문화와 역사,특별활동 고장: 결정선 장로 H (617) 344-4383, B (617)461-9021



Van service to Harvard, MIT, BCM, Berklee, NEC, NU, & BIJ

북부 보스톤 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 1. 세 담임목사: 보스톤대학 사회윤리 철학박사. 한인 교회와 미국인교회의 경험을 가지시고 1996년 7월 부임.
- 2.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찾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 가정, 교포, 이웃이 달라지는 선구적 역할.
- 3. 인간의 존엄성 회복: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드높혀 지는 보람된 삶을 추구.
- 4. 다양 속의 창조성: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의 풍요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로서, 다양한 사회 전기(Sociobiography) 안에서의 창조성 표출
- 5. 이민 사회의 보람과 성취: 이제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표하는 건설적인 태도와 실생활 속에서의 구현.
- 6. 이세 교육에 초점: 장래의 소망인 유치부. 유년부. 중 고등, 대학부의 미래를 향한 신양앙교육의 중대성 강조.
- 7. 한국학교의 한국 문화와 컴퓨터 교육: 투철한 이념과 소명감으로 공헌하시는 김종례 박사가 이끄는 알찬 교육.
- 8. 자체 교회: 아름다운 예배실을 비롯, 12개의 교실, 운동장, 주차장 등 공간적 여유 구비.
- 9. 교통 편리: 93번 도로에서 ½마일, 495번 도로에서 2마일, 128번 도로에서 10분 거리로 보스톤을 비롯, 각 시역에서 쉽게 오실 수 있음.

	교회 모임 인	ŀų	
주일예배	영어 예배	오전	9:30
	대예배	오전 1	1:00
주일성경	성인성경반	오전	9:30
	중고등 대학	오전 :	1:00
주일학교		오전 1	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기도회	주일새벽	오전	6:00
	월말금요일	오후	8:30
지역모임	속회예배	속회별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



담임목사: 전 중 현 (Rev. Walter C. Chun, Ph.D.)

교회사무실:(508)470-0621, (508)470-1998(Fax) 목사관:(508)689-3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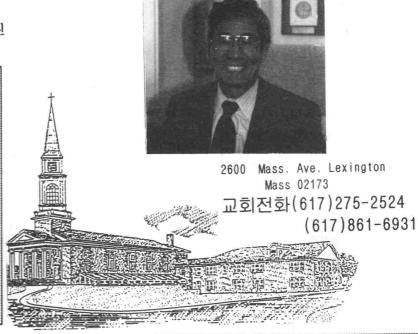
성요한 감리교회

담임목사: 권진대 (617)275-7880 1부 목사: 배경태 (508) 468-0159

2부 전도사: 이요셉, 권용두, 김세전, 최국진

성가지휘: 김호기, 반주자: 이수연

교회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영 어)	일요일 오후 1:45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세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주일학교	일요일 오전 11:30
성경공부 장년부(한국어)	일요일 오전 10:30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대학생부(영어)	급요일 오후 7:30
청년부(영어)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영어)	토요일 오후 5:30
	일요일 오전 9:00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지혜가 충만한 교회! 칭찬이 충만한 교회!



영광 순복음교회

이곳에 귀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받을 주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은혜스런 예배와 깊은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뉴 잉글랜드는 물론 세계 선교에 비젼을 가진 영광 순복음교회로 정중히 귀하를 초청합니다.

요일	모임	장소	시간
	주일대예배	예배실	오후 1시30분
	유년주일 학교	교육관	오후 1시30분
주일	장년성경 공부	예배실	오후 12시45분
	한글학교	교육관	오후 12시45분
	주일새벽기도	예배실	새벽 6시
수요일	제자훈련	교육관	오후 7시30분
금요일	성령대망회	예배실	오후 8시
	중고등집회	예배실	오후 7시
토요일	영적대각성일	예배실	오후 8시(매월말)



〈교회로 오시는 길〉

- * 남쪽에서(보스톤 방향): I 93® (Exit 40) ☞ Rt.62®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 북쪽에서(뉴햄셔 방향): I 93® (Exit 40) ☞ Rt.62® ☞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있는 교회임.
 - 173 Church St., Wilmington, MA 01887

☎ (508)681-8436(목사관, 팩스) (508)658-8584(교회)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이정추(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이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30

목요미사: 목요일 오후 730

예비자교리: 주일 오후 3:00

주일학교: 주일 오후 30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98 Tel.: (617) 244-9685

〈성당 찾아 오시는 방법〉

Mass Pike(West)에서 Exit 16(West Newton)으로 나와 Toll Cate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에서 좌회전 한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담임목사: 김 경진

PRESBYTERIAN CHURCH (USA)

전확: (617)770-2755

퀸 지 영 생 장 로 교 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ssachusette 02169

담암: 김경진 목사 청년부지도: 김성근 박사 Youth지도: 김영일 전도사

예배 시간

교회학교

퀸지 한국학교

주일 낮 12:30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 기도회: 토요일 새벽 6: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후 1:00 유치, 유년부: 주일 오후 2:40 중등, 고등부: 주일 오후 2:40 청년부: 금요일 오후 7:00

장년지도자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8:0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35 Magazine Street • Cambridge • MA 02139 & (617)491-1474(교회)/491-0855(목사관/Fax)

●담임목사: 김태환(Rev. Tae Whan Kim. Pastor) 교육전도사 신해정

- 성경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인 교회임니다.
- 가체 성전에서 오전 11시에 예뻐드립니다.
- 수요찬양예배를 드립니다(수요일 오후 7:30).
- 한국학교를 토요주말학교로 운영합니다(토요일 오전10시).
- 최고의 주일학교 교사진과 교육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⑥ Meal Program (토요일)을 운영하여 지역봉사를 합니다.
- ② 교통이 편리합니다(Harvard, M.I.T., B.U. 중간).

교회 버스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합니다. 교회 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491-0855로 히십시오.

10:30 NEC(기숙사 앞)

10:34 Berklee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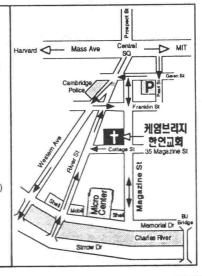
10:38 BU Bookstore

10:41 BU (Burger King)

10:43 BU (McDonald)

10:46 Harvard St. (미림식품)

10:50 808 Memorial Dr.



한빛 교회 The Korean Beacon Church (The United Methodist)

155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교회:(617)441-5211 목사관:(617)576-5572

담임목회자: 강래문 (Rev. Raymond A. Kahng, Pastor)

교육전도사: 서애란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Lee-Ellen Strawn)

- 새시대에 배우고 - 봉사하고 - 재창조하는 교회 -

예배

주일 예배: 일요일 오후 2:00 교회 학교: 일요일 오후 1:00 일요일 오후 7:00 성경 공부: 일요일 오후 7:00 친교 찬양:

장소: 한빛교회 - 하바드법과 대학옆

전철을 이용하실 때는 Red Line/Harvard Sq.에서 하차 한빛교회 주일 예배 Parking Permit이 38 Oxford St. 하바드 대 학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111 Greenwich Ave., Warwick, RI 02886

교회: (401) 739-7168 팩스: (401) 738-4215 독사관: (401) 885-9418

담임목사: 서정주 (Rev. Brian Y. Seo, P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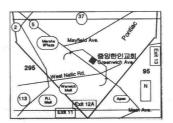
교육전도사: 손혤렌 (Sunday School Minister: Mrs. Hellen Son) 중.고등부 담당: 김정환 (Youth Group Teacher: Mr. John Kim)

말씀으로 배우고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

성경 공부 예배 오후 12:30 주일 세가정반: 주일 미예배 :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2:30 화요일성경반: 오전 11:00 중고등부 영어 예배: 오후 12:30 목요일 교리반: 오후 7:00 오후 6:00 청년회예배: 오후 2:00 금요일 Youth: 토요일 청년반: 오후 7: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30 구역 예배: 내월 바지막주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주일마다 교회 버스가 운 행합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Travel & Tours in Boston

보스톤 교통의 중심지 Kenmore Sq. (B.U Book Store 옆)에 위치하여 최고의 써비스/최저가격 으로 항상 봉사하고 있읍니다.

지정Ticket 대리점



대한항공



모든 국내선 / 국제선 항공권 최저 가격 보장 (각종할인)

보스톤 유일의 관광가이드

- * 일일관광-시내 & 프리머스
- ** VISA, 통역/번역 기타 **



We are located in 650 Beacon St. Suit #205 Boston, MA 02215

Toll: 1-800-473-1922

Tel: (617)267-7777 Fax: (617)267-5009

Esther Chung (에스더 정)



Korean & Japanese Restaurant

Harvard Square 의 명소 보스톤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

신라를 찾아주신 그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 신선도 제일의 스시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신라에서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 드리며 계속 찾아주셔서 이용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Sake, 맥주, 각종와인
- 각종 모임을 위한 완벽한 설비
- 찰스호텔 주차료 2시간까지 할인

영 업 시 간 11:30 AM - 10:30 PM (목,금,토 새벽1시까지) 7 Days Open

95 Winthrop St., Cambridge, MA 02138

ASIANA GRILLE

하식일절

바베큐 그릴

스시바

중화요리(짜장, 짬뽕)

정통 일식(스시, 사시미)

타이음식

FREE PARKING

Open Hour: 7 days open

Mon ~ Thur: 11:30am ~ 10:00pm / Fri ~ Sat: 11:30am ~ 11:00pm / Sunday: 2:30pm ~ 10:00pm



Tel. 617-646-2766 / 5686

Korean-Japanese Restaurant



HOME TOWN

순대, 족발, 한국전통음식

'한국전통의 분위기와 주인이 식섭 입맛에 맞게 요리합니다'

- . Sushi Bar
- . Take-Out Available
- . Japanese & Korean **Specialties**
- . 한국전통의 분위기와 음식

영업시간 (Open Hour)

월 - 목 12:00 - 10:00 PM 금, 토, 일 12:00 - 10:30 PM 런치스페샬 11:30 - 3:00PM(\$5.95) 휴무일: 매월 2째, 4째 (월)

저화. (617)623-7220

9A Union Square, Somerville, MA 02143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50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10시-오후7시 금-토: 오전10시-오후8시 일요일: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휴무함



떡 전문점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멱집

백일 돐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 (Armory Sq.), Mathuen, MASS 01844

(50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SS 01976

(508) 851-4182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무공해 야채를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양식품 일체 (친절, 봉사, 특별서비스)

- 모든 동양식품 일체
- 항상 청결 신선유지, 기격저렴
- 생산삼. 생로알제리, 한국과일 묘목있음
- 비디오 테이프 대여
- ■질 좋은 육류 판매
- 위생적인 무공해 밑반찬

7) 232-0800낮

1617 Begcon Street, Brookline, MA 02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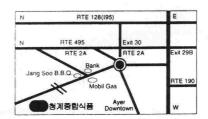
청계종합식품

- ♦ 다양한 동양식품류 취급
- ♦ 최신 시설을 갖춘 생선부
- ♦ 싱싱한 야채류 취급
- ♦ 최고급 비육류 취급
- ◆ 조리된 밑반찬류 판매
- ♦ 특별 선물용 코너
- ♦ 한국 비데오 테이프 취급
- ♦ 넓은 주차장 시설 완비

주 7일 영업 / 10:00 am - 9:00 pm

아모레화장품 취급전문

싱싱한 생선회 전문



1 (508) 772-5213

210-D West Main St., Ayer, MA 01432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횟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영업시간: 월-토 8am-7:30pm

Tel. (617) 395-8138 Fax. (617) 391-5782

375 Main Street, Medford, MA 02155 93(N), Exit 31, 38번 도로 패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S), Exit 29, 38(N)번, 왼쪽 Harvard St., 두번째 신호등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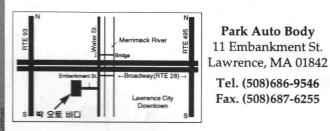
박 자동자 바디

Park Auto Body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까? 오토바디 예술사- 박 오토바디를 찾아주십시오.

* 자동차 보험청구를 위한

견적서 작성



Park Auto Body 11 Embankment St.

Tel. (508)686-9546 Fax. (508)687-6255 Harvard Design & Mapping

HDM

Total Solution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0 Spinelli Place Cambridge, MA 02138-1046 Tel. (617)354-0100

> Or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hdm.com

■ 태양자동차공업사

한인 최대의 자동차 정비 수리및 바디 전문 업소

서비스 분이 엔진수리 트렌스미션 브레이크 컴퓨터 테러 자동차 전 이어콘 문업 오일교환 자동차 폐인트 파이어 그러임

총면적 8천 스퀘어피트에, 보스톤에서는 최초로 한인 자동차 바디샵까지 갖춘 태양자동차 광업사는 더욱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철저한 서비스로 성실히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양 엔진 전문 수리샵 최신형 컴퓨터로 진단, 정검 Owner가 직접 정비합니다. 태양 자동차 바디샵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차 바디 페인트 배합 시설완비 원색과 같은 페인트를 재생시킬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진 크게 파손된 자동차 바디를 새것처럼 바꾸는 기술 사고난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 견적서 작성



영업시간

월 ~ 금 : 7:30 am - 6:00 pm 토요일 : 7:30 am - 1:00 pm

주소: 47 Webster Ave., Somerville, MA 02143 팩스: (617)628-6337 Tel: 617-628-1589 (정비부) / 617-628-4646 (바디부)



자동차 종합정비소

컴퓨터에 의한 각종 차량의 정확한 분석

- Tune-Up
- Heating & Air Condition
- Brake

- Muffler
- Engine Repair
- Alignment

수너루브 자매업체인 옆에 문의 David Kim

(508) 858-0074

818 MAIN STREET 1 Mile South of 495 on Rte.38 TEWKSBURY Sooner Lube 자매업체임

		=
	LOEWLL	
mile south of I 495 o	n Rt. 38	
		1 495
-	Friendly's	Sooner Lube
8		Complete
		Car Care
	Rt. 38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일요일 12시-5시 까지 OPEN 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톤 보석

(THE DIAMOND EXCHANGE)

한국말로 된 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 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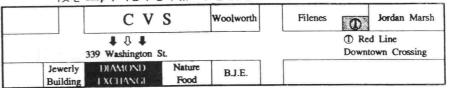


신용과 성실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교포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드립니다.

- ※ 다이아몬드 전문점(GIA Certificate)
- ◉ 각종 보석 감정, 재가공 상담등 전문 서비스
- ⊗ Gold-18K,14K 팔찌,반지,목걸이 도매가 제공
- ※ 약혼 생일 결혼예물 상담

339 Washington St., Boston Downtown (617)723-7979 / 723-3029 / 491-6227(今社) Mr.& Mrs.李

비슷한 Shop이 나란히 불어 있으니 한국간판 『보스톤 보석』을 꼭 확인하세요



Services The latter of the lat

Parts Service Installation

에어콘/냉동/히팅

냉동 및 에어콘 설치, 수리 상담 사업용 및 가정용

냉동 : Freezer, Cooler, Ice Machine

에어콘: Central, Roof Top Unit 히팅: Gas & Oil Heater, Hot Water Heater, Heat Pump



ALL INSURED & LICENSED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들이 Quality Work를 보장합니다. 24시가 출장 서비스!!!

대표 이영호 CALL US TODAY, 5 DAYS A WEEK!

Tel. (617) 547-0211

우리말 상담 Peter Lee

24 Baystate Rd., Cambridge MA 02138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이 즐거

메트라이프 보험 및 관련

메트라이프의 보험대리인이 귀하를 방문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불구시 소득 보장보험, 집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뮤 추얼펀드. IRAs 및 은퇴기금 서비스

GET MET. IT PAYS

AFFILIATED COMPANIES

Offered by Metife Securities, Inc., One Madison venue, New York, NY 10010

2 Offered by Metropolita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y, Warwick, RI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New York NY 9509W9Z(MLIC-LD)

301 Edgewater Place, Suite 310 Wakefield Ma 01880



Account Executive

저화 (617) 246-4116 팩스 (617) 224-0632

- * 재정분석 * 은퇴플랜
- * 뮤주얼 펀드(1) * 교육자금
- * 건강,불구시 소득보장,손해② 및 자동차(2) 보험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Yon Kim Corkum Advanced Planner Group Personal Financial Advisor

현재 미국내 재정기획 기업 중에서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재정기획 회사는 1백2년의 역사와 1억14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2백만명의 고객을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틀림없는 생활의 안내자인 재정기획 전문가 김연숙씨를 만나 십시요. 당신의 소박한 꿈이 꼭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개인과 사업체 재정 계획 ⊙ 유산상속 계획 ⊙ 은퇴 계획 ⊙ 학자금 계획 ⊙ 연금 계획

▲ 생명보험 ▲ 불능보험 ▲ 의료보험 ▲ 사망 요양원보험 ▲ 사업체이전 보험

Stock & Bond Mutual Funds Annunity IRA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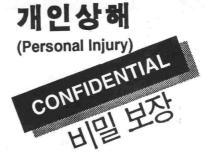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IDS Life Insurance Company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P.O. Box 9154, Braintree, MA 02184 Phone: (617)849-0980 Ext. 172 or (617)821-5825 Fax: (617)848-3617

Financial Advisors

한국인 변호사 Young Lee Danesh

- ⋅⋅⋅⋅> 교통사고
- → 민사소송
- ⋅ 법률상담



18 Tremont Street Suite 705 Boston, MA 02108

Tel. (617)367-4949 Fax.(617)367-3390

임 나경 상담소

NAKYUNG IM Counseling Services

PSYCHOTHERAPIST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Independent Clinical Social Worker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 Board Certified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er

20 years of experience, providing individual, group, couple, family therapy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20년 경험, 어린아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카운셀링 함

- ◎ 가정/대인관계 문제
- ◎ 자녀문제/자녀 양육문제
- ◎ 직장/학교 생활문제
- ◎ 신앙문제/풍습문제
- ◎ 마약/알콜 중독
- ◎ 어린아이 후견인/ 구타
- ◎ 성적 구타
- ◎ 우울증/공포증
- ◎ 신경쇠약 과민/ 정신착란증
- Marriage/Relationships
- O Play therapy/Parenting Skills
- O Religious/Asian Cultural issues
- O Drug/Alcohol abuse
- O Child Custody/abuse
- O Sexual abuse(Victims/offenders)
- O Depression/Panic Disorders
- O Stress Management/Mental Disorders
- O Domestic Violence/Forensic psychology

상담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비용은 건강 보험에서 부담됩니다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64

110W. Squantum St., Suite 20, N. Quincy, MA 02171

Tel: (617)738-9622

Tel: (617)472-5428

Gargill, Sassoon & Rudolph .William Diller 합동법률 사무소 92 State St., Boston, MA 02109

전화: (617)523-7700 팩스: (617)227-0313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1993)
- 주법원 판사 보조(1992)
- 메시츄세츠 국제투자개발원 근무(1988)
- 메사츄세츠 주립대 졸업(1988)
- 성균관 대학교

- 回 교통사고 및 처리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교통사고 피해 보상 교통사고 후유증 취중운전
- ◎ 산업재해 / 직장상해를 입으셨습니까? 직장근무시 입은 상해보험 납 / 아베스토스 중독 화재로 인한 상해
- ☐ 라이센스가 필요하십니까? Beer / Liquor 소,도매 면허증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이민법 / 국제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영주권 이민 / 투자이민 수속 장단기 취업비자 취득 유학생 비자변경
-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판매 를 가정법 / 파산신청 Chapter 7/11/13
- ♦ 상해보상은 변호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1972년에 설립된 Gargill, Sassoon & Rudolph는 13명의 상주 전문 변호사가 고객 한분 한분의 필요에 따라 전문법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실은 재미 교포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치요령: 60 State St. 주처장에 주치하시면 3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한 석 훈 변 호 사

Kenneth S. Han **Attorneys at Law** Law Offices of Kenneth S. Han

GENERAL PRACTICE Including;

* 상법

Commercial

* 사고상해법

Personal Injury/Auto. Accidents

* 회사법

Corporate/Small Business

Real Estate

* 부동산법

Immigration

* 이민법

* 가정법

Family/Divorce

* 상속법

Wills/Trust & Estate

* 민사, 형사 소송 Civil/Criminal Litigation



165-U New Boston St., Suite 289, Woburn, MA 01801 Tel: (617) 935-4620 Fax: (617)935-4187

신영묵 치과

Dr. Frank Shin, D.M.D Family Dental Care



- *미용 치과(본딩, Bleaching) *각종 보험 혜택 취급
- *치과 전반 치료 가능 *미리 전화 예약 요함
- *토요일에도 진료함
- *당일 응급 치료 가능

(617) 265-5606 (617) 265-3803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08

Cambridge Dental Assoc.

원장: Dr. Carol Yun(윤) D.M.D.

- *최고의 치과 진료는 예방합니다.
 * 케임브리지, 섬머빌 두군데에 위치한
- * 케임브리지, 섬머빌 두군데에 위치한 종합의료원에서 모든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 * 각종 보험 취급, 응급 치료
 - * 저녁 시간, 토요일도 진료합니다.
 - * 전화 예약 바랍니다.







921 Mass Ave., Cambridge (617) 492-8210

56 College Ave., Sommerville (617) 776-5900

Mary T. Truong
Assistant Vice President
Community Development

BANK OF BOSTON

First Community Bank



A BankBoston Company

1762 Washington Street Boston, Massachusetts 02118 617-434-3442 Fax 617-442-1851

Member FDIC

한인 종합 보험

1842 Beacon St., Suite 303, Brookline, MA 02146

Tel.: (617)734-7998 Fax: (617)734-3984 대표: 김선희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정상의 보험인



자녀 교육 자금

나이에 따라 학자금 산출 저축 방법 및 액수



가정의 재정 계획

비상금의 목석과 액수 경제 석 재난시의 대비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산의 중식



노후 은퇴 연금

저축 액수에 따른 연금 계산 개인 은최퇴연금 구좌(IRA) 다양한 Amuity

Lexington Family Dental

CHARLES C. HUR D.M.D.

(617)861-8978

. 기 과

MYUNG J. KIM D.M.D.

New Patients Welcome!

▲ 일반치과

▲ 유아치과

▲ 미용치과



394 Lowell St., Suite 3 Lexington, MA 02173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하은에 교정치과

Dr. Unae K. Han (Orthodontist)

하바드 지과대학 D.M.D

하바드 보건대학 M.P.H

미시간 지과대학 M.S. 교정전문의

Orthodontics for Adults and Children

성인과 어린이

Member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교정치료 전문

(617) 862 - 0930

Orthodontist Dr. Unae K. Han 789 Mass. Ave. Lexington, MA 02173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이 경 해 (Kay Dong)

B: 1-800-867-9000

(508) 880-3535

Fax.:(508) 828-1585

239 Fremont Street Taunton, Ma 02780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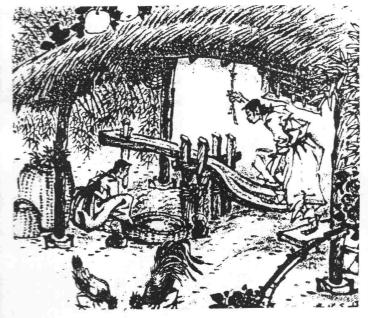
부동산 (주택과 상업용) 비지니스 브로커(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융 자 (노 인캄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0. 含温

Wuchon House

Korean - Japanese Reataurant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 업 시 간

월-토 : 오전11시30-오후11시30분

일요일: 오후**12시 -** 오후 10시

일품요리

특미 냉면 왕갈비 즉석곱창낚지전골 해물전골

- * 각종 대소연회
-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 무료주차장 오후5시이후
- * 일요일은 무료주차
- * 1 1/2 Mile from Harvard & MIT
- * 돐.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Tel. (617)623-3313 / Fax. (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ss

KCC국제해운(주) /

귀국이삿짐 수출·수입화물 운송전문

신속! 정확! 원가절감!



상담전화 1-800-622-8282 뉴욕지구 대표전화 (201) 946-9100 (201) 344-5555 FAX. (201) 344-7322

뉴욕사무소

서울본사

TEL. (02) 667-0111 FAX. (02) 667-0110

영업종목

귀국이삿짐 포장 운송 통관 수출 수입 해상 항공운송 승용차 특수화물 운송 해상보험 업무 미국내 장거리 운송 ■ 부산식무소

> TEL. (051) 466-0931 FAX. (051) 464-6725

KCC 특징

귀국물품 도매가 구입알선 감면(TAX)서류 발행 탁송비용 후불제 실시 세관별 구분 선별 선적 DOOR TO DOOR 집안까지 LA사무소 ■ SF사무소

TEL. (310) 323-3500 FAX. (310) 323-2249 TEL. (415) 952-6572 FAX. (415) 952-6575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 (갱신 또는 년 회비 납부) () New (신규) (성명: (한글)_____(영문)___ 직장 전화: ()______ 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성명: (한글)_____(영문)___ 직장전화: ()_____정당:Independent() Republican() Democratic() 주소 : (City)_____(Zip)____ (County)_____ 집 전화:()_____ 소속 교회 혹은 기관 : _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서명 서명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 - \$_____ \$_____ 총계 (Total): \$_____ : 찬조비 (Other Contribution) 수표 작성, Payable to : KACL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알리는 말씀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갖추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

c/o Yangkil Kim (회장 김양길, Tel.508-691-5108)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等多等量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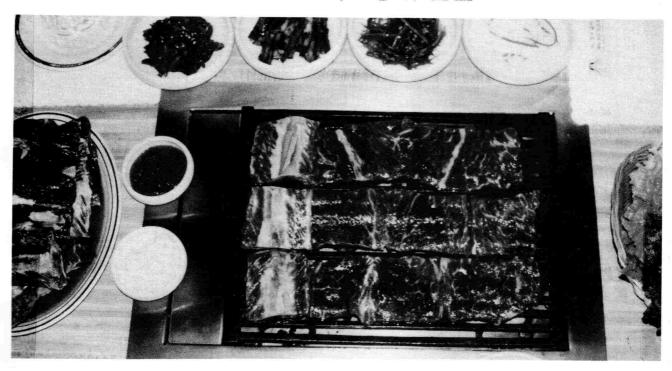
ニュー・ジャソス・カルビ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갈비 경력 15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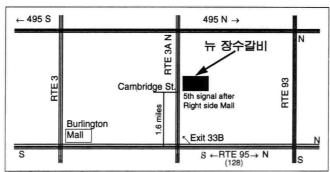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뉴 장수갈비

2 617-272-3787

260 Cambridg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대형 무료 주차장시설

OPEN HOURS

화-금: 11am - 10pm

토-일: 12pm - 10pm

※ 매주 월요일 휴업



고국여행은 스카이패스와 함께, 무료여행의 기쁨은 가족과 함께-

누적된 탑승거리 실적에 따라 좌석 승급 및 보너스항공권의 혜택을 드리는 스카이패스 — 보너스항공권은 가족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국가는 즐거움, 온가족 모두 함께 나누십시오.

■ 수혜대상 : 본인, 직계가족,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및 며느리

미국/서울 구간 보너스별 공제거리

(단위:마일)

	좌석승급	일반석 항공권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일등석 항공권
편도1매	20,000	30,000	35,000	45,000
왕복1매	30,000	55,000	70,000	90,000
왕복2매	60.000	80,000	100,000	140,000

• 예약 및 문의 : 1-800-438-5000(24시간) • 스카이패스 서비스센터 : 1-800-525-4480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 승객을 위하여 SKYPASS JUNIOR 회원제도가 운영되오며, 성인 탑승 실적의 50% 를 인정하여 드립니다.



- 스카이패스의 풍부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 스카이패스에 누적된 탑승거리 실적은 유효기간이 없어 보너스혜택을 받으실 때까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아시아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X) 신용카드사와 제휴, 카드사용 고객들은 더욱 많은 마일리지 누적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내 특급호텔 할인 서비스와 렌트카 (Hertz) 할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내 대한항공 직영 한진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전품목 15%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이스니다.

